

미지의 원하질서에서 기지의 복합질서로

사랑방의
젊은 그들
베이징을 품다

하영선 편

9



EAI
EAST ASIAN INSTITUTE

EAI 사랑방

미래한국의 국제정치학자와 외교관을 육성하고자
2013년에 시작한 EAI 교육프로그램이다.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
이끄는 본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와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매 학기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은
심화학습을 수행하고 답사여행을 통해 역사와 국제정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목차

황청직공도: 청의 마지막 복합 천하질서 4

_중국국가박물관

① 정다은

『노가재연행일기』에 비친 베이징: 북벌에서 북학으로 52

_자금성

② 김유나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만남 100

_고관상대

③ 유지현

건륭과 카스틸리오네의 건축학개론 136

_원명원

④ 박진희

모택동과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야 170

_모택동 기념관

⑤ 정하민

President Xi Jinping's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Cross-Strait Relations 196

_Museu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⑥ 성종은

황청직공도: 청의 마지막 복합 천하질서

중국국가박물관

정다운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정복왕조이자 중국의 마지막 통일왕조로, 중국 역사상 한대(漢代) 이래 가장 오랫동안 존속된 국가였습니다. 18세기 중반 청나라는 단연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중국 본토를 포함하여 최대 위협 세력인 준가르를 복속하여, 만주, 티베트, 몽골, 신강에 걸치는 사상 최대의 영토를 통치한 다민족국가였습니다(Islamoglu and Perdu 2009, 21). 건륭제는 막대한 문화 사업을 단행하여 1761년 이역의 형상을 자세히 묘사한 <황청직공도皇清職貢圖>를 제작하고 1781년 역사상 최대의 총서인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완수하였습니다. 건륭제의 60년 치세 동안 청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가 전성기를 누리면서 대내외적 위상을 높인 화려한 시기였으나, 속으로는 조금씩 끓어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잦은

대의 원정으로 인한 재정 소모와 황족 및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청나라 쇠퇴의 전주곡을 올렸습니다. 1793년 영국 매카트니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서양에서 중국에 대한 평가가 하락한 것도 이 때였습니다.

<황청직공도>는 청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질서에 포섭된 타자들, 37개의 국가와 264개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총 301개 도상과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역사, 독특한 풍습, 그리고 청나라와의 관계를 중국어와 만주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중심의 중화와 주변의 이적의 화이(華夷)관념을 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였고, 이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한 체제는 조공체제였습니다. 바로 직공(職貢)은 주변의 외번과 외국이 중국의 천자에게 공납하는 의사소통의 상징적 행위로, 이에 동반하는 외교 의례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직공도는 외교 사절들이 입공하는 정황을 그리거나 중국과 각국의 대외관계, 역사, 풍속을 덧붙여 적은 기록화로, 중국 왕조가 주변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건륭제의 속마음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건륭제는 영토 확장의 물리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대일통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전통적 우주론과 서구의 물질적 세계와의 충돌

속에 천하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천자로서 그의 고민은 고스란히 황청직공도에 담겼습니다.

본 보고서는 <황청직공도>의 시각적 이미지에서 18세기의 청과 주변국의 정세 변화를 보여주는 복합 천하질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기 다른 시기별 이역에 대한 상상을 그린 도상들을 비교하여 이역에 대한 상상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추적합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제작된 <만국래조도萬國來朝圖>가 외국 사신들의 조공 장면을 아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황청직공도>와의 도상적 관련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몽골-티베트, 조선과 서양에 관한 도상과 묘사를 통해 청 제국의 자기 인식과 대외 인식을 파악하여 복합 천하질서의 관계망을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건륭제가 주변국가와 외번의 복색과 풍물에 대한 그림과 기록을 직공도에 담은 숨겨진 목적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 검토

기존의 <황청직공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사학과 미술사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정은주(2015)는 중국에 현존하는 역대 직공도의 제작배경을 살펴보고 한인 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인식 변화를 파악합니다. 여기서

<황청직공도>는 건륭연간 영토 확장을 정치적으로 현창하려는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제국의 위상을 세계로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정은주(2011, 2014)는 <황청직공도>의 제작 경위를 검토하여 사료적 가치를 정리하고, <만국래조도>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특징과 회화적 변화를 분석합니다. 賴毓芝 또한 <황청직공도>의 제1권에 그려낸 형상이 <만국래조도>의 만국이 내조하는 제도의 이미지임을 논증함으로써, 두 작품 모두 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황청직공도>의 정치적 목적에 주목하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정(2019)은 18세기 청과 조선의 조공관계라는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여 청의 물질문화가 조선에 전해지는 양상과 지식인에 끼친 영향을 검토합니다. 특히 <평정서역전도>와 <평정양금전천도>의 사례에 주목하여 외교 선물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송인주(2018)는 <황청직공도>의 비한인 세계에 대한 서술 논리가 청조의 지배 논리와 일치하며, 나아가 근현대 중국의 민족담론까지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청조가 대일통의 위업을 확정하기 위해 기존 중화왕조의 화이관념을 그대로 계승하여 중국 내지의 비한인들을 통치하였으며, <황청직공도>를 비롯한 일련의 편찬 산업을 통해 청조가 새롭게 확보한 영역을 이미지화함으로써 지배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건륭제가 남긴 수많은 시각적 이미지들을 정치학적 시각에서 포착한 연구로는 이은상이 대표적입니다. 이은상(2021)은 18세기 청나라를 ‘이미지 제국’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다민족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건륭제의 시각정치학을 강조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민족을 회유하고 통치하기 위해 황제의 이미지나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청 제국 내의 다양한 민족들에 대한 지식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제국의 통치자는 권력을 성취하고 그들에 대한 지배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건륭제의 제국 이미지 형성과 시각적 이미지 정책에 관한 비슷한 논의로 정석범과 유재빈의 연구가 있습니다. 정석범(2009)은 건륭제가 청조의 군사적 위용과 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시각적 기념물을 통해 대일통의 위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유재빈(2006)은 건륭제의 초상화에 대한 회화적 접근을 통해 건륭제가 천하의 흠어진 세력을 하나의 제국 아래 통합하고자 했던 그의 통치관을 문화적으로 구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선 <황청직공도>의 정치적 함의와 구체적인 배경 규명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크 맨콜(1968)의 독자적인 지배체제가 결합된 서북 초승달 지역과 조공 관계로 구성된 동남 초승달 지역의 이분법은 청나라의 천하질서가 가지는 복잡성을 다소 납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격한 두 가지 틀 안에 질적 세계를 해석한다면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역사적 가치들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복합 천하질서를 이루는 또 다른 주인공들을 제국의 역사와 분리시키고 단순히 고정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각 지역의 관계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음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연구는 청나라와 조선의 대외 관계와 그에 따른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지만, 향후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를 붕괴시켰던 서양과의 만남에 주목하는 연구엔 다소 미흡했습니다. 최근 이유진(2020)의 연구는 <황청직공도>에서 서양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한가운데 서양에 대한 청의 이중적인 인식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Cheng-Hua Wang(2014)도 18세기 청나라의 예술과 시각 문화에 있어 중국과 유럽의 상호작용을 탐구함으로써 중국 역사의 세계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연구들도 하나의 상대를 미리 정해두고 그에 대한 청나라의 대응 인식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당시 복합적인 맥락이나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답사보고서는 천하질서의 전통적 주인공이었던 중국과 조선, 몽골과 티베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인공인 서양을 함께 무대에 올려, 서로 다른 여러 관계들 사이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직공도: 이역에 대한 상상에서 사실로

역사 속 중국은 중심의 중화와 주변의 오랑캐라는 구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였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이역의 형상을 담은 도상들을 여행기, 직공도, 신화/전설로 그렸습니다. 이역에 사는 타자를 묘사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산해경山海經>입니다. <산해경>에 묘사된 이역인들의 삽화는 대부분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비인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사람답지 않음과 야만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역의 관찰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억과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거자오광 2012). 그 이면에는 이역과 이민족에 대한 천조대국의 비웃음과 배척 그리고 경시와 경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직공도 중 가장 오래된 그림은 남조 시기의 <양직공도梁職貢圖>로, 양 무제 즉위 40년만을 맞아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 사신의 용모를 관찰하고 풍속을 물어 제작되었습니다. 중국국가박물관 소장 <양직공도>는 백제를 포함한 12개국이 채색인물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 사신은 세 번째로 등장하며 백색 모자를 머리에 쓰고 깃과 단 소매를 고동색으로 선을 댄 연두색 복삼을 입고 주황색 선을 댄 통이

큰 분홍색 바지와 검은 신발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백제국 사신 〈양직공도〉
중국국가박물관

해당 <양직공도>의 인물 묘사는 엽립본의 <왕회도王會圖>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 태종은 주 무왕을 전거로 삼아 <왕회도>를 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삼국을 비롯하여 총 24개국 사신이 접견하는 모습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그림 2> <왕회도> 629년경 대북고궁박물관

명대 <삼재도회三才圖會>의 인물편은 비현실적인 상상 속 국가의 인물들이 혼재되었으며, 직접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설을 답습하였습니다. 통상 무역과 사신의 교류로 인해 이역에 대한 실측 지식은 점진적으로 축적되었지만, 이역에 대한 묘사는 천하와 사방 오랑캐에 대한 일종의 상상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부터 형성됐던 상상적 지식이 고전에 대한 추측과 이해를 토대로, 고대의 상상에 후대의 상상이 덧붙여지고 이야기 위에 다시 이야기가 겹쳐져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602년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가 제작된 후에야,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점차 새로운 만국의 세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테오

리치부터 건륭제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상상으로부터 생겨난 이역에 대한 형상은 사실적 견문에 근접한 사생화로 대체되었습니다.

<황청직공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작된 직공도로, ‘황청(皇淸)’은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높여 말한 것입니다. 전통시기 중국에서는 현재의 태평성세를 현창하고자 할 때면 과거 속에서 그 모델을 찾았습니다. 물리적 영토가 넓어진 만큼 대제국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들을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건륭제도 당 태종의 <왕회도>를 염두에 두고 <황청직공도>를 제작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도움을 주고 다스림을 돕는 거울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황청직공도>는 역대 제작된 직공도의 구도나 체제는 차용하되, 직접적인 관찰에 의해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와 인물의 사실적 묘사에 집중함으로써 세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주로 각국 사신을 위주로 그리던 방식에서 민족 고유 의상을 입은 한 쌍의 관인과 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림 속 인물은 독특한 문화관습을 보여주는 상징물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림 상단에는 민족의 역사와 지역, 음식과 복식, 풍속과 기호, 그리고 청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제1권에 등장하는 외국은 친소 개념과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여 조선,

유구, 안남, 섬라, 소록, 남장, 면전, 대서양 등의 순서로 배열하고, 제2권 이후에는 티베트를 포함한 내번과 토사의 소수민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되어 풍속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림 3> 요문한, 장정언 외 <만국래조도> 1761 북경고궁박물관

<만국래조도>는 건륭연간 청 자금성 태화문에서 외국 사신과 외번이 조공을 바치며 조하하는 장면을 하나의 그림에 담은 직공도입니다. 그림 밑에서부터 포르투갈 사신단, 코끼리를 탄 인도 사신단, 그 위로 갓을 쓴 조선 사신단이 보입니다. 또한 <만국래조도>의 1761년 가을에 쓴 건륭제의 어제시와 <황청직공도> 제1권 권두에 쓰인 어제시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제작 배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가 직공도를 제작했던 이유는 절대적 우월자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빚어내는 핵심이 직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직공이라는 행위를 통해 불평등한 관계 속에 타자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형성한 조공체제는 중국 역대 왕조가 추구한 이상적인 국제관계였습니다. 청나라도 대내적으로 중국 황제로서 정당성과 통치 위엄을 명시하고, 대외적으로 천하의 중심으로서 주변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공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1760년과 1779년 제작된 <만국래조도>에 조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인 자금성에 입공하는 각국의 사절단과 함께 건륭제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사방에서 주변 타자들이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러 오는 장면을 담아냄으로써 통치자의 권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 각국의 조공은 각 국가별로 이루어져서 모든

사신이 자금성 앞에 운집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청나라에 의해 극적으로 연출된 장면으로, 복합 천하질서에 속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위계를 세움으로써 청의 대국적 면모와 황권의 위엄을 극대화시킨 무대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태평성세가 누대에 이어져 사해가 봄과 같고,
황청에 조공하는 것은 만방이 균등하네.
문자와 수레의 제도 누가 예외일 수 있겠는가,
모든 인류 친하지 않은 이 없네.

동서에서 황제를 뵈러 모이고,
남만과 북적이 원단[조회]에 참여하였네.
그림은 황제의 교화를 과시함이 아니라,
안녕을 보위하고 살펴 삼가 위무함이라네.

어제시는 만국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황제의 치세 속에 사해가 평화롭게 통일된 태평성대가 지속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건륭제는 물리적 차원 너머의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일통을 꿈꿨습니다(엘리엇 2011, 58-67). 청나라가 단순히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제국이 아닌, 제국 안팎의 이민족들이 중국 문화에 교화되었음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국 내

모든 민족에 대한 지배를 주장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틀 속에서 문명화의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황청직공도>는 민족 화합의 증거이자 청 제국의 강성함을 밝히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청사고(淸史稿)』서문은 순치 연간에 이르러 청나라의 위엄이 국외에까지 진동하였으며, 여러 외국의 먼 지역이 먼저 입공을 청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것은 그 당시 무의가 빛나서 육지나 바다에서나 한결같이 두려워하여 외국의 먼 지역에서도 어깨를 맞대어 무릎을 꿇은 것이었으니, 의를 사모하고 덕에 감화되어 온 것이지 무력으로 정벌하여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며 청나라의 매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복합천하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축은 바로 황제 그 자신이었습니다. 건륭제는 시각적 이미지로서 자신의 초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의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부여하고, 동시에 모든 정체성이 황제로서의 자신으로 수렴되기를 원했습니다(Crossley 1999, 133-134). 건륭제는 중국 한족 백성들에겐 천자일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이자 유럽식의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탄 군주의 모습으로 자신을 재현했습니다(로 2014, 128-130). 두 상반된 모습은 ‘덕’으로 감화시키는 성군이자 ‘힘’으로 굴복시키는 정복자의 복합적 이미지로 천하세계의 모든 범주의 만물을 망라하는

보편군주로서 건륭제가 지향했던 자아상이었습니다.

또한 건륭제는 천하질서의 무대 위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 대응하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연기가 복합되는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광대한 천하의 공간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는 서로 다른 통치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륭제의 야심도 정벌과 회유의 정책을 적절히 운용하여 만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도 유교의 예치로서 문화적 통일을 지향하여 제국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있었습니다. 한쪽을 다스리기 위해 유교 제도와 철학을 사용했지만 제국의 다른 지역에선 몽골, 티베트, 투르크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반영했습니다(Mosca 2014, 103-116).

정벌과 회유: 몽골-티베트 세계

강희제 때부터 추진된 대외 팽창은 건륭제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건륭제는 중국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한 황제였습니다. 건륭 연간 제작된 전쟁 기념화인 <평정양금천전도>, <평정이리회부전도>, <평정준가르도>와 <건륭남순도> 모두 광활한 영토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황제의 통치하에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과시하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였습니다(Reed 2017).

나아가 건륭제는 ‘묘강^{苗疆}’과 ‘금천^{金川}’을 평정한 뒤 1748년 <황청직공도>의 제작을 명했습니다. 제작이 마무리된 1761년은 바로 건륭제가 몽골-티베트 세계의 패권을 다투던 준가르를 평정함으로써 거대한 제국의 판도를 완성한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피듀 2012, 316-369). 『청사고』의 서문도 “중국 주위의 여러 나라가 고리처럼 이어져 모두 속국이 되었고, 영토는 규모를 이루고 변방은 튼튼하였으며, 군비는 충실하여 황제의 덕이 끝없이 뻗었다. 이것은 진·한 이후 없었던 일이다.”며 자부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 4> <평정준가르도> 중국국가박물관.

<황청직공도> 제1권에 건륭제가 직접 붙인 표제 ‘라도식랑^{蘿圖式廊}’은 ‘강역이 확장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1권은 외국뿐만 아니라 외국이었다가 새롭게 내국이 된 지역인 티베트와 신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하여 ‘평정하다(平定)’와 ‘귀복하다(歸誠, 向化, 投誠, 內屬)’라는 단어가 강조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나름의 내재적 논리를 지닌 제1권의 배치는 확장하는 제국의 시선이 관철되어 있습니다.

청나라는 내속외번(內屬外藩)의 비한족 민족들을 상대로 무조건적인 한화보다는 그들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하는 회유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로스키 2010, 27-28). 황제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통치가 강력한 매력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나라는 몽골을 완전히 제압하자, 티베트불교를 매개로 내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티베트는 청나라 서쪽 국경의 완충 지대로서 전략적 거점일 뿐만 아니라 내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불교세계의 정치적·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몽골-티베트 세계는 명의 지배가 미치지 않았던 장소로 청의 존재 또한 종교적 판도에서 이해되었습니다(Farquhar, 1978). 따라서 청에 대한 관념은 중화 문명과 가치가 아닌 대부분 티베트불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목군주에서 출발한 청 황제는 문수보살의 화신이자 전륜성왕으로 윤색되었습니다(김성수 2009, 61-63).

열하는 청나라가 만리장성 밖 몽골-티베트 세계의 지배자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제2의 수도로 부상하였습니다. 1703년

강희제가 피서산장을 건축한 이래 황제는 매년 여름 이곳을 방문하여 몽골-티베트 세계의 왕공들을 불러 모아 군사훈련을 겸한 수렵행사를 갖고 티베트불교의 라마들을 초대하여 종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건륭제는 1780년 8월 13일 칠순을 맞아 황금으로 치장한 건물 ‘찰십륜포(札什倫布)’를 지었습니다. 이 화려한 건물은 티베트불교의 2인자인 판첸라마의 거처였습니다. 건륭제에게 칠순 만수절은 중국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치세에 이룩한 제국의 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이 아닌 열하를 선택한데는 판첸라마의 방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첸라마는 가마를 탄 채 황제의 침전까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조공사절과 달리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Hevia 1995, 46-47). 그는 황제의 정통성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하에 왔던 것입니다(차혜원 2010, 332). 이에 건륭제는 서쪽 변방의 안보를 확보하고 티베트를 회유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파격적인 환대를 화답하였습니다.

앞선 1744년 건륭제는 옹정제의 잠저이자 건륭제 본인의 탄생지인 옹화궁(雍和宮)을 개축하였습니다. 모든 티베트불교 신도들과 라마들의 눈길을 북경으로 유인할 뿐만 아니라, 라싸 포탈라궁에 필적할 만한 종교 성지로 삼아 황권의 신성화를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북경에 머무는 주경라마를 임명하여 청나라 중심의 불교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Sperling, 1998). 옹화궁은 몽골-티베트 세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티베트불교 지도자들은 황제가 손수 북경에 대규모 사원을 세우고 불교 수행에 정진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안윤아, 조병학 2019, 124). 오랜 기간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티베트불교는 실력 있는 세속의 권력자가 필요했고, 때로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청나라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내륙아시아 지역질서에 진입하고 싶었던 청나라의 요구가 점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림 5>

<건륭문수보살도>

1758 북경고궁박물관

한편 건륭제는 몽골, 티베트, 청해, 신강에 ‘암반Amban’으로

알려진 고관을 파견하여 정교이도(政教二道)를 상례화하고, 기존의 활불전승제도에 금병제침제도를 도입하여 티베트를 견제하는 고도의 통제 전략으로 활용하였습니다(Oidtmann 2014). 또한 그는 지방 통치제도와 비슷하게 이리와 금천으로 라마를 파견하여 황제의 시야 아래 이 지역에 대한 주권적 지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몽골과 티베트의 지배층을 제약하여 이곳의 형세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일찍부터 티베트불교와 신앙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던 청 황실은 몽골 제국의 유산을 민족적 뿌리를 함께 융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Millward 2004, 96-98). 이를 위해 건륭제는 1773년 만문대장경 편찬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주족의 언어와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 만주족의 위상과 정체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입니다(박서연 2015).

예치: 조선에 대한 파격적 대우의 이면

<황청직공도>는 청나라가 인식하고 있는 타자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서술로 해당 국가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조선은 제1권의 첫 번째에 등장합니다. 역대 직공도에서 백제나 조선 사신이 거의 마지막에 등장한 것과 정반대의 순서였습니다. <만국래조도>의 외국 사신의 배열순서는 <황청직공도>와 거의 일치하며, 각국 사신들과 번부의 구성과

모습도 유사하게 그려졌습니다. 여기서도 조선 사절단은 각국 행렬의 선두에 배치되어 문명국으로 대우받았습니다. 또한 직공도는 조선의 지리적 규모, 왕과 관리들의 관복제도, 여인들의 복식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물은 조선국 이관과 이부, 민인과 민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국가와 민족의 경우, 이민족 남자(夷人)와 여자(夷婦)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조선만 유일하게 백성 남자(民人)와 백성 여자(民婦)로 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나라가 조선을 이적이 아닌 중화 문명국가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조선국 관리와 부인
<황청직공도>

이어서 직공도는 조선에 관하여 기자조선부터 고구려와 고려를 거쳐 조선 건국의 역사와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조공관계가 성립된 역사적 내력을 기술하며 중원 왕조와의 관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공은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림 7>
조선국 백성과 부인
<황청직공도>

속인도 문자를 알아 독서를 좋아하고 음식은 변두에 놓는다. 관리는 우아하며 위의를 갖추었고, 여인의 치마와 저고리에는 가장자리 장식을 더했으며, 관복은 모두 비단에 금은으로 수를 놓아 장식했다.

이는 조선을 문을 숭상하고 유교적 예를 갖춘 국가이자 문명의 기준에 부합하는 타자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박원호 2007).



<그림 8>

조선 사절단

1761 <만국래조도>

『청사고』의 <조선열전朝鮮列傳>에서도 청과 조선의 관계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1627년 정묘호란 이후 조선의 요청으로 화의를 맺고 형제지국이 되었지만, 조선은 청의 요구에 거의 응하지 않았고 청은 조선이 맹약을 깨뜨렸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조선의 여러 차례 청나라의 군대에 항거하였으나, 1637년 병자호란 이후 청에 항복하고 인질을 보내어 영원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화이의 역전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감내하며 청나라에 적대감을 가진 채 조공을 바치는 군신관계에 있었습니다.

강희 연간에 이르러 조선과 청은 조공체제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청은 정기적으로 강하 지역에서 호시(互市)를 열어 무역을 관리하였고, 조선도 청나라의 국가 행사나 의식 때마다 사신을 보내 조하하였습니다. 강희제는 “조선은 북경과의 거리가 3천 여리나 되어 공사의 왕래가 어려우므로 이후 모든 사은과 장소는 성수·동지·원단 삼대절의 표와 동시에 가지고 오도록 하여 반드시 사신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법령으로 삼으라.”고 유시하였습니다.

이는 건륭 연간에도 이어져 건륭 원년 만수절의 표문과 공물도 연공과 함께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건륭제가 선양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칠순만수와 천수연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은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렸고, 건륭제는 어필 편액과 어제시를 하사하고 연회에 참석시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건륭제는 정조가 “학문을 좋아하고 시에 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송판을 모방한 오경 전질과 필묵 등을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사고』는 주로 황제가 조선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도, 조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강희] 45년(A.D.1706; 조선 숙종 32) 10월, 대학사에게 유시하기를, “조선국왕은 우리 조정을 받들어 섬김에 성심성의를 다해 공경하며 정중하다 [...] 태종께서 조선을 평정하신 뒤 그 나라에서 주둔하였던 곳에 비를 세워 덕을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다. 명나라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잘 섬겨 배반을 하였던 일이 일찍이 없었으니 실로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이므로 더욱 취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건륭] 23년(A.D.1758; 조선 영조 34) 4월 대학사가 상주하기를, “조선은 오랫동안 속국이 되어 예절과 언어·문자가 모두 아담하고 세련되었으니 설치된 통사관의 인원을 8명으로 고치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20대의 젊은 왕 정조는 무조건적인 반청보다 호의적인 태도로 실리적 현실 외교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교 노선의 배경에는 중원의 패권을 장악한 청의 안정이 조선의 안민과 보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대외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허태구 2020). 실제 조선은 청나라에 매년 정기적인 사행뿐만 아니라 건륭제의 70세 생일과 즉위 50주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진하와 사은행을 특파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한 조공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달리 우대하였습니다(구범진 2014). 조선은 비단, 종이, 모시를 비롯한 인삼, 가죽 등 토산품이나 금, 은, 쌀을 세폐로 청나라에 진헌하였습니다(서호수 2017; 홍선이 2014). 정조의 전례 없는 성의와 건륭제의 파격적 우대 속에서 조선과 청의 관계는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청직공도> 곳곳에선 타자를 ‘야만’으로 바라보는 ‘문명’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직공이라는 불평등한 관계 맺기를 통해 타자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해온 중국의 일관된 정체성이었죠. 특히 주변은 문명의 중심인 ‘중화’라는 주체에 의해 ‘번’으로 타자화되었습니다. ‘문명對야만’의 프레임 속에 문명의 제어를 벗어난 힘과 길들이기 어려운 타자에 대한 두려움은 멸시로 표출되었습니다. 중국에 동화되지 않은 야만의 상태에 있는 민족은 ‘생(生)’, 중국화되어 더 문명화된 민족은 ‘숙(熟)’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청의 조선에 대한 인식도 청나라에 복종한 타자이자 제어하기 쉬운 타자에 불과했습니다. 18세기 후반 안정기를 맞은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고 별다른 문제없이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외교 사절들이 바치는 예물은 그들의 종속적 지위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조공품으로 개념화되었습니다. 이에 청나라는 조선에 천하질서에 순응하는 조선의 모범적인 태도를 칭찬하는 미사여구로 가득한 황제의 어필이나 어제시, 궁정간해 고서와 필묵을 하사하였습니다. 특기할 만한 물품은 1789년 자광각의 세초연에 참가한 이성원 일행에게 하사한 <평정양금천도>와 <평정서역전도>가 있습니다. 이는 청의 강력한 힘과 서양의 기술을 결합한 선진 문화에 대한 과시이자,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서윤정 2019, 142-143).

한편 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선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건륭제는 열하의 피서산장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갈래의 손님을 초청하고, 주자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선 사신들에게 판첸라마 접견을 명하였습니다(구범진 2013). 건륭제는 판첸라마에게 티베트불교의 영향권이 아닌 천하질서의 또 다른 영역을 소개하였습니다. 북경에 찾아온 외국 사신과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모아 대일통세계를 확장시키고 복합 천하질서를 한 눈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이루어진 판첸라마와의 어색한 만남과 삼궤구고의 예법 요구는 조선 사절단에게 굴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대의 대상이 명에서 청으로 전환되었지만, 양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예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권선홍 2014, 159-160). 무엇보다 중화문명을 보편으로 간주하는 대명의리(對明義理)를 향한 당대 조선인의 이념이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암은 조공-책봉 관계의 예치만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요소들이 복합 천하질서 안에 운용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열하일기(熱河日記)』는 “황제는 법사(판첸라마)를 모셔 티베트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써 이들의 세력을 분산시켰다. 이것이 청나라가 주변나라는 제어하는 책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질서의 바깥 서양

<황청직공도>에 담긴 색다른 존재는 ‘서양’입니다. 제1권은 중국 역대 왕조와 조공 관계를 맺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중국의 지리 지식에 포함된 서양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18세기는 제국의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중국의 천하질서의 외부와의 접촉이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의 세계 지도 제작과 서양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직공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존재에 대한 단순 인지와, 그것의 수용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중국 스스로 서양을 알려는 동기 없이 서양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관에 어떠한 균열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서양 국가들은 ‘이인(夷人)’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제국의 시선에서 서양은 중화의 문명에 미치지 못하는 야만성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양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냅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존 이적과는 다른 ‘이인(異人)’이었습니다. 서양은 중화 문명과는 다른 독자적 문명을 소유한 부강한 존재였습니다. 서양 사절단의 선물 중 망원경과 같은 최신 과학기계와 무기가 건륭제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과달루피 2004). <황청직공도>는 그들이 지닌 병탄과 꺾병, 큰 배와 대포를 언급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횡포하며 무기에 정통하다 또는 네덜란드가 대만을 침략했다는 등 무력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양은 제국의 강역에서 해상 무역의 이익을 탐하고 독자적으로 속국을 거느린 부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림 9> 영吉利국(영국) <황청직공도>

하란(네덜란드)은 홍모번이라고도 하는데, 위치는 불랑기(포르투갈)와 가깝다. 명 만력 연간에 큰 배를 몰아 향산 오문(마카오)에 정박하고자 공시를 청했지만 실현되지 않자, 복건으로 들어와 팽호를 점거하고 대만을 침략하였다. 청 순치 10년(1653)에 비로소 광둥을 통하여 조공하였다. 강희 초에 청군을 도와 대만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고 그 이후 조공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조공 노선을 바꿔 복건을 통하여 조공하도록 했다. 하란 영토로

가라파(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있는데 남양(동남아 일대)의
도회지이다. (하란의) 속국으로 또 서(스웨덴)와
영길리(영국)라는 나라가 있다.

실제 서양 국가와 청 제국과 관계 맺는 방식은 통시(通市)
또는 호시(互市)로 ‘조공’이 아닌 ‘무역’이었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조공과 같이 황제가
은혜를 베푸는 시혜에 불과했습니다(김상조 2004, 363-364). 외국
상인은 광둥과 마카오 등지에서 ‘광둥 13행’이라고 하는
공행상인들과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청나라 당국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서구 문물의 수입을 위한
문화적 측면과 교역 확대를 위한 제한된 경제교류만이 허용될
뿐이었습니다(Fairbank 1969). 이처럼 건륭제는 조공이라는 맥락
안에서만 서양을 인식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유지하였습니다. <황청직공도>의 대서양의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조공을 하러 왔다고 기록하였으며, 사실 확인 없이
영국과 스웨덴이 네덜란드의 속국이라는 잘못된 정보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직공도는 서양의 부상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림 10> James Gillray 1792

The reception of the diplomatique & his suite, at the court of Peking
The British Museum

<황청직공도>에서 감지된 서양 세력의 확장은 직공도가 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점차 본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1793년 건륭제의 83세 만수절을 즈음해 각국에서 축하 사절이 도착했고, 이 가운데 영국의 조지 매카트니(George Macartney)도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물결을 타고 이미 동아시아로 진출한 유럽세력의 진정한 목적은 무역시장의 확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대외 무역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고 서양 물품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와 동인도회사는 매카트니 사절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조지 3세는 친필로 장문의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번영을 칭찬하며 주권 평등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교류를 맺는 위대한 문명국들의 형제애를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주권 평등 관계를 확립하고 국제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첫째, 양국 간의 무역에 대한 규제 완화. 둘째, 북경에 영국 대사 상주. 셋째, 영국 상인들의 안전한 거주지역 요청. 넷째, 광저우의 관세인하 등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청나라의 입장에서 천하에는 단 하나의 천자만 존재하며, 그 천자를 알현하러 오는 모든 사절단을 조공을 바치기 위한 사신이었습니다(최소자 2002, 108). 외국은 조공을 통해서만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이 요구하는 외교적 의례를 둘러싼 갈등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Peyrefitte 1993; Hevia 1995). 흥미로운 점은 해당 사건을 중국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마 조공 사절단이 천자에게 불복종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킬 수는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건륭제가 조지 3세에게 보낸 두 개의 서한은 청나라의 제국 주권과 영국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황청직공도>에 담긴 서양이라는 존재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권 평등은 천하질서와는 양립 불가능한 이단아였습니다. 그는 영국을 먼 황야에 위치해 있고 많은 바다로 분리되어 4대양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천조의 정책과 사용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공물을 바치는 사절을 어떻게 흠차(钦差)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통사가 천제국에서 공식 직함을 모방하여 사신을 격상시키려는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매한 짓은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 관리들이 무지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무감각함 때문에 이 특사를 흠차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따라서 정루이는 영국 사절과 그의 부관 모두 정해진 관용에 따라 공시(贡使)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Wang 2020, 325).

어설픈 번역된 편지들은 건륭제가 원하는 겸손한 복종과 경건한 경외심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영국의 요구사항도 멀리서 온 이방인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모든 관용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하늘 아래 모든 만물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물건은 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화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길 거부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표는 단 하나, 즉 완벽한 통치를 유지하고 국가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고 값비싼 물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 우리 왕조의 위엄은 천하만국에 스며들었고 만국의 왕들은 육지와 바다로 값비싼 조공을 바쳤습니다. 대사가 직접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거나 기발한 물건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당신 나라의 제조품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건륭제는 무역을 마카오로 한정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영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서양에 있는 중국의 다른 많은 교역 국가들로부터 유사한 요청이 쏟아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영국의 개인적인 요구를 맞추기 위해 한 세기 이상 확립된 모든 절차와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청 제국이 생산하는 차, 비단, 도자기는 유럽 국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도리어 무역은 천자가 멀리 있는 이에게 주는 은혜와 보살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무수한 인종을 휘젓고 있는 우리 왕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국은 광저우에서 무역을 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닙니다. 나의 수도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회전하는 중심입니다. 그곳의 법령은 대부분 엄숙하고 법은 극도로 엄격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매카트니 사절단이 떠나자 건륭제는 영국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을 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연안 지방 당국에 서한을 보내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영국인들에게 군사 행동에 대한 구실을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Harrison 2017, 684-685). <황청직공도>에서 엿볼 수 있는 서양 세력의 확장이 머지않은 훗날 건륭제의 우려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교도였습니다. 중국은 황제가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천주교의 신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건륭제는 예수회 선교사들과 화가들을 황궁에서 일하게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국제성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건륭제의 답장에도 종교 문제에 관한 경계심이 느껴집니다. 청의 전통 관습과 법도를 따르지도 않는 종교의 유입이 그와 그의 선조들이 영광스럽게 이루어 낸 것들을 약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조국이 하느님을 숭배하는 것은 다른 유럽 국가의 종교와 똑같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황제들과 현자들은 중국에 도덕 체계를 부여하고 규범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나의 수많은 신하들이 종교적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이단적인 교리에 대한 갈망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수도에 있는 유럽 선교사들도 중국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거주지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그들의 종교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과 야만인의 구별은 매우 엄격합니다. 야만인에게 종교를 전파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라는 대사의 요청은 완전히 비합리적입니다.

나가며: 중국 신형국제관계의 미래

건륭제는 수많은 자명종 컬렉션 가운데 1770년 영국이 건륭제에게 선물한 자명종을 가장 아꼈다고 합니다. 유럽인의 차림새를 한 정자 안의 남자는 붓글씨로 ‘팔방향화(八方向化), 구토래왕(九土來王)’을 정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팔방에서 임금의 어진 정치에 감화하여 구주의 백성들이 왕에게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 여덟 글자는 건륭제가 평생토록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습니다(이은상 2021, 5-6).

<황청직공도>는 객관적인 천하질서의 물상적 배분 상태를 축소시킴으로써 건륭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꿈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실제 만주족 왕조는 중국 전통 자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한화되었지만, 여기에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예치, 회유, 기미, 정벌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방대한 판도를 통치하기 위해 황제는 복합 천하질서 무대 위의 하나의 거대한 주인공으로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다면적 인물로 변신하였습니다. 제국의 팽창도 단순히 영토를 정복하는 것을 넘어 중심과 주변이 유연하게 상호작용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이 수반되었습니다.

청나라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이룩한 몽골-티베트 세계에선 회유를 통한 새로운 종교적 확장으로 천하질서의 주인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티베트불교는 청나라가 내륙아시아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연결점이었습니다. 특히 열하는 몽골-티베트 세계의 수도로서 정복과 회유의 연기를 함께 수행하는 장소였습니다. 나아가 건륭제는 티베트불교를 하나의 정치 제도로서 중앙집권화하여 몽골-티베트 세계를 견제하고 황제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다른 주변국과 달리 문명국으로

인정하였던 이유는 가장 충실하게 사대자소 질서를 따르고 중국에 동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조는 청에 대한 실리 외교를 시행하였고, 유례 없는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긍정적 시선에는 이렇듯 정치적인 이유가 숨어있었습니다. 조선은 천하질서의 전통적 일원으로 예치로서 대우받았지만, 때로는 황제의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손쉬운 타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선 역시 청나라의 매력에 사로잡혔다가보다 청나라의 무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종종 말을 듣지 않는 금쪽이처럼 행동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나라에게 서양은 부국강병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적에 불과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문명을 수용할 자세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스스로의 잣대를 세워 자기 기준에서 굴절된 인식으로 서양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서양에 대한 소극적인 무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건륭제는 역대 그 어떤 황제보다도 서양의 기술과 문화를 도구적 차원에서 활용했던 인물이었으나, 서양 그 자체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청직공도>에서 서양의 비중이 두드러진 이유 역시 천하제일의 제국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건륭제가 서양을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황청직공도> 곳곳에서 서양에 대한 경계심과

침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사절단과의 갈등은 두 제국 사이의 충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Liu 2006). 서양은 청 제국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존재라기보다 기존 오랑캐와는 분명히 다른 제국이 경계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세계질서 비전에 상대를 복종시키기 위한 경쟁 속에 주권 국가들 사이의 평등에 대한 영국의 믿음과 중국의 위계적 사대자소 질서는 결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서쪽으로 준가르부터 북쪽으로 티베트, 그리고 동쪽으로 조선까지 이르는 드넓은 지평의 제국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륭제 시기가 청의 ‘마지막’ 복합 천하질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그의 시선에는 변화의 파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오판과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게 하는 오만이 있었습니다. 건륭제의 복합 천하질서 역시 수천 년을 이어온 천하질서의 무대 위에 매우 자의적으로 건축된 질서였습니다. 청나라의 대외 인식은 복합질서로 가는 길목에 도달했지만, 어떠한 새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흡수해버릴 만큼 강력한 천하질서의 틀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특히 서구의 부국강병이 가져올 위협을 경계하는 속마음을 철저히 숨기고, 천하질서의 또 다른 일원으로 길들이고자 하였습니다. 천자의 권좌에서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타자는

복잡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인식을 증층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건륭제가 꿈꾸는 천하는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고 냉혹한 현실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주인공들을 천하질서에 복합하는 것에 관심이 있긴 했지만, 이들을 어떻게 품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있어 시대적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건륭제의 사망 뒤 불과 41년 만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대 국제질서와의 뼈아픈 충돌은 중국에게 주권 평등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화평굴기를 강조하던 중국은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과 2050 ‘아름다운 사회주의 건설’을 거침없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구축하여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과거의 영광으로 사라진 것만 같았던 만국내조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편전쟁 이후의 능욕을 언급하며 어떤 나라도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신형국제관계’는 건륭제의 복합 천하질서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건륭제는 준가르 제국을 ‘정복’했고, 티베트에 대해서는 ‘회유’책을 통해 매력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한국과는 전형적인 조공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문명 표준을 내세우며 근대 국제질서를 짜고 있는 서양 강대국과의 만남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에는 “분쟁 혹은 전쟁 방지(不冲突, 不对抗)”, “상호존중(相互尊重)”, “상호 윈-윈을 위한 협력(合作共赢)”에 따라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회피하고 경쟁과 협력의 경제관계에 주력합니다. 신형주변외교는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가치를 기반으로 3대 핵심이익을 십사리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국제정치와 함께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의의 국제정치,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의의 국제정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을 평화롭게 설득하기 위한 매력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21세기 복합력의 한계 때문에 미국과 세계질서를 공동으로 주도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신질서 건축의 중심 역할을 하려면 성장과 복지의 조화, 21세기형 정치체제 구축, 지역화와 지구화 추진의 딜레마를 먼저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시진핑이 변화의 파도를 주도적으로 읽어내고 강력한 매력을 키워 건륭제의 복합 천하질서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참고문헌

『열하일기 熱河日記』

『청사고 淸史稿』

<황청직공도 皇淸職貢圖>

TWO EDICTS FROM THE QIANLONG EMPEROR, ON THE OCCASION OF LORD MACARTNEY'S MISSION TO CHINA, SEPTEMBER 1793.

거자오광(葛兆光). 2012. 《이 중국에 거하라》. 이원석 옮김. 서울: 글항아리.

구범진. 2013.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인문논총> 제70집, 3-60.

_____. 2014. “조선의 청 황제 성절 축하와 건륭 칠순 ‘진하 외교’.” <한국문화> 제68호, 215-248.

권성홍. 2014. “유교의 禮규범에서 본 전통시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5집 2호, 139-170.

김상조. 2004. “박지원과 매카트니의 중국인식 비교 - 『熱河日記』와 『中國訪問使節日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5집(8권 4호), 351-376.

- 김성수. 2009. “청대 불교 세계의 여행.” <동양사학연구> 제107집, 53-90.
- 마크 C. 엘리엇. 2011.《건륭제: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양휘웅 옮김. 부산: 천지인.
- 박서연. 2015. “乾隆帝의 滿文大藏經 序文에 관한 연구.” <한국불교학연구> 제76집. 453-485.
- 박원호. 2007. “근대 이전 한중관계사에 대한 시각과 논점 -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이론을 덧붙여.” <한국사 시민강좌> 제40집, 40-58.
- 서윤정. 2019. “조선후기 외교 선물로 전해진 청과 서양의 예술과 물질문화: 정조대 후기 사행을 중심으로.” <미술사학보> 제53호, 123-150.
- 서호수. 2017. 《열하기유, 조선 학자의 눈에 비친 열하와 북경》. 서울: 아카넷.
- 송인주. 2018. “『皇清職貢圖』의 ‘大一統’ 세계.” <한국사학사학보> 제38호, 429-456.
- 안윤아, 조병학. 2019. “옹화궁(雍和宮) 시론(試論) I - 옹화궁의 기능과 옹화궁을 통한 건륭제 시기의 티베트 불교정책-.” <韓國史學史學報> 제39호, 117-142.
- 윌리엄 T. 로. 2014.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기세찬 옮김. 서울: 너머북스.
- 유재빈. 2006. “乾隆 肖像畫, 제국 이미지의 형성- <乾隆洗象圖>

와 <乾隆觀畫圖>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제42호, 113-141.

이블린 S. 로스키. 2010. 《최후의 황제들: 청 황실의 사회사》. 구범진 옮김. 서울: 까치글방.

이유진. 2020. “『황청직공도』와 서양의 만남 - 중심에 대한 희구, 중국의 망탈리테에 관한 일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124호, 231-266.

이은상. 2017. “18세기 清代에 제작된 民族誌 『皇清職貢圖』에 관한 試論.”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6집 2호, 67-89.

_____. 2021. 《이미지 제국: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부산: 산지니.

정석범. 2009. “康雍乾시대 ‘大一統’ 정책과 시각 이미지.” <美術史學> 제23집, 7-44.

정은주. 2011. “乾隆年間 萬國來朝圖 研究.” <중국사연구> 제72호, 93-125.

_____. 2014. “皇清職貢圖 제작 경위와 조선 유입 연구.” <명청사연구> 제35호, 339-373.

_____. 2015. “中國 歷代 職貢圖의 韓人圖과 그 인식.” <한문학논집> 통권 42호, 77-124.

지안니 과달루피. 2004. 《중국의 발견》. 이혜소·김택규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차혜원. 2010. “열하사절단이 체험한 18세기 말의 국제질서 -

- 변동하는 조공책봉 관계의 증언.” <역사비평> 제93집, 329-353.
- 최소자. 2002. “中國에서 본 西洋-傳統時代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80집, 4-126.
- 피터 C. 퍼듀. 2012. 《중국의 서진(西進): 청(淸)의 중앙유라시아 정복사》. 공원국 옮김. 서울: 길.
- 허태구. 2020. “정조대 대청 외교와 대명의리의 공존, 그 맥락과 의미.” <지역과 역사> 제47호, 141-178.
- 홍선이. 2014. “歲幣·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한국사학보> 제55호, 257-295.
- 賴毓芝. 2012. “圖像帝國: 乾隆朝職貢圖的製作與帝都呈現.”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75, 1-76.
- Crossley, Pamela K.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irbank, John King. 1969.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The Opening of the Treaty Ports, 1842-185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Farquhar, David. 1978. “Emperor as Bodhisattva in The Governance of The Ch'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8, No. 1, 5-34.
- Islamoglu, Huri. and Peter C. Perdue (ed.), 2009. *Shared Histories of*

Modernity: China, India and the Ottoman Empire. New York: Routledge.

Harrison, Henrietta. 2017. "The Qianlong Emperor's Letter to George III and the Early-Twentieth-Century Origins of Ideas about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22, No. 3, 680-701.

Hevia, James. 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Liu, Lydia. 2006.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illward, James A.,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eds.), 2004.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first edition) Abingdon: Routledge.

Morse, Hosea Ballou. 2007.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1635-1834. Vol. 2*. Oxford: Clarendon Press.

Mosca, Matthew. 2014. "The Qing State and Its Awareness of Eurasian Interconnections, 1789-1805." *Eighteenth Century Studies* Vol. 47, No. 2, 103-116.

Oidtmann, Max Gordon. 2014. *Between Patron and Priest: Amdo Tibet Under Qing Rule, 1792-1911*.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Peyrefitte, Alain. 1993. *The Collision of Two Civilisations: The British*

Expedition to China in 1792-94. London: Harvill.

Reed, Marica. 2017. "The Qianlong Emperor's Copperplate Engravings."

Harvard Library Bulletin Vol. 28, No. 1. Spring, 1-24.

Sperling, Elliot. 1998. "Awe and Submission: A Tibetan Aristocrat at the

Court of Qianlong."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0, No. 2.

June, 325-335.

Wang, Cheng-hua. 2014. "A global perspective on eighteenth century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The Art Bulletin* Vol. 96. No. 4, 379-

394.

Wang, Hui. 2020. "Translation between two imperial discourses:

Metamorphosis of Kong George III's letters to the Qianlong emperor."

Translation Studies, Vol. 13, No. 3, 318-332.

『노가재연행일기』에 비친 베이징
: 북벌에서 북학으로
자금성

김유나

서울대학교

들어가며

17세기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등장은 단순히 왕조가 교체된 사건이 아니라 천하질서의 ‘중국’이 ‘이적’에 의해 멸망한 사건이었다. 이는 화이(華夷) 관념을 지닌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는 중화적 세계질서의 붕괴를 의미했다. 당시 조선은 청조에 굴복하여 청조 중심의 조공책봉질서에 순응해야만 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대명의리를 강조하고 청조를 이적으로 여기면서 북벌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조가 전성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자 조선 사회에서는 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때 두 가지 사상적 흐름이 등장하게 됐다. 하나는

‘조선중화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북학론’이다. 18세기 초 김창업(金昌業, 1658 -1722)이 청조를 방문하여 남긴 『노가재연행일기』에서는 ‘조선중화주의’와 ‘북학론’이 교차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가재연행일기』는 김창업이 제4대 황제 강희제(재위 1661-1722)가 통치하던 1712년 동지사겸사은사행(冬至使兼謝恩使行)의 정사인 김창집(1648-1722)의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북경을 방문했을 때 남긴 사행 일기다. 자제군관이란 사행단의 유력자의 친인척으로 자비를 들여 사행에 참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가재연행일기』의 「왕래총록」에 따르면 김창업의 형 김창집이 1712년 6월 23일 동지사겸사은사로 임명되었는데 중병을 앓은 직후라 수행원이 필요하였고, 김창업의 둘째 형 김창협(1651-1708)이 사행단에 들어가려다 그만두어 김창업이 자제군관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당시 김창업의 나이는 56세였으며, 늘 중국 산천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여기던 김창업은 형의 수발을 든다는 명목을 빌어 북경을 방문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4대 여행록 저자 중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 3명이 자제군관으로 사행에 참가하였다. 특히 김창업과 박지원은 어떠한 공식적 임무와도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남기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기행의 작성이 가능했다(이호윤 2018, 220).

청대(1644-1911)는 현대 중국의 영토와 민족 구성이 갖추어진

시기로, 중국에서도 중국인 스스로의 역사적 위상을 근현대라는 시간적 연속에서 규명하기보다는 주변 제 민족을 포함해 가는 청대에서 찾고 있다(정혜중 2015, 377). 중국 역사에서 청조는 통일다민족국가의 성격을 완성한 왕조로 평가된다. 청조가 만주족을 단순히 여진족의 후손으로 보지 않고 만주족·몽골족·한족을 아우른 ‘만족공동체’로 보았다는 데서 현재 ‘중화민족’의 개념을 정의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장근 2009, 47-49). 이렇듯 청대에 관한 연구는 중국인 스스로 중국의 역사적 위상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그리고 주변국은 중국의 형성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18세기 초 조선 사회에서 청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한 변화의 축적으로 북학파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청대와 관련한 연구는 북학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18세기 말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노가재연행일기』는 홍대용(1731-1783)의 『담헌연기』, 『연행잡기』 (1765년), 박지원(1737-1805)의 『열하일기』 (1780년), 김경선(1788-1853)의 『연원직지』 (1832년)와 함께 조선 후기 4대 연행록으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는 그 내용과 묘사가 상세하여 연행록의 교과서로 불릴 뿐 아니라 가장 이른 시기인 18세기 초에 기록되어 후기 연행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북벌’에서 ‘북학’으로 가는 인식의 전환 과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18세기 조선과 청조의 관계, 청조에 대한 조선의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인 만큼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노가재연행일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김창업의 대청인식에 관한 연구, 청조의 문화에 관한 연구, 문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김창업의 대청인식에 관한 연구로는 김창업의 ‘조선중화주의’를 다룬 연구가 많았으며,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김창업이 조선의 의관과 문물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청조에 대한 우월의식을 지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가재연행일기』에는 김창업이 청조의 예악문물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김상조(2005)는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의 의의는 무조건 청을 배척하는 비합리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융성기를 맞이한 청의 문물제도를 폭넓게 관찰하고 그 의의를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이롭다면 이적의 것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적극적 수용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김창업의 합리적, 이성적 태도가 후대 실학파 계열의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김상조 2005, 251). 이호윤(2018)은 김창업이 청조의 예악문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은 ‘북학론’의 등장을 예고하는 ‘북학론’의 맹아적 형태라고 표현했다(이호윤 2018, 218-219). 본 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조선중화주의’와 ‘북학’의

사이를 미묘하게 오고 가는 김창업의 복합적인 심상을 ‘화이관’과 ‘청조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양면적 사고의 공존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 파악 노력’이라는 기준을 더한 삼중 틀로 짚어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본 고에서는 김창업 개인의 삶과 18세기 초 조선과 청조의 시대적 상황을 고찰한 뒤, 『노가재연행일기』에서 드러나는 ‘화이관’, ‘청조에 대한 재인식’, ‘동아시아 정세 파악 노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벌론이 대두되던 시기의 조선 지식인 김창업의 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등한시되었던 18세기 초반 조선 지식인의 대청인식을 조명해보고, 그 사고가 단순히 북벌이나 대명의리론, 조선중화주의에만 매몰되어있던 것이 아니라 18세기 말 북학론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더하여 당대 지식인이 오랑캐와 해적을 우려하여 나라 밖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정세를 냉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자 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벼슬을 멀리하는 안분지족의 삶

김창업의 자는 대유(大有), 호는 가재(稼齋) 또는 노가재,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병자호란 당시 대표적 척화론자이며 중국 심양(瀋陽)에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온 김상헌의 증손으로 안동 김씨 가운데서도 명문의 일원이었다(이장우 1976, 7).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사에 능했으며 유명한 문장가이자 화가였다. 24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당대의 사대부들이 모두 왕을 보필할 재목이라 여겼으나, 가세가 너무 번창함을 경계한 부친 영의정 김수항의 훈계를 따라 벼슬을 하지 않았다. 부친 김수항은 김창업이 진사시에 합격하기 전인 1675년(숙종1) 왕에 상소를 올렸다가 죄를 얻어 영암으로 유배되었다. 1678년(숙종4)에 김수항이 철원으로 이배되자 김창업은 그곳에서 부친을 모셨다. 이러한 경험이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혹은 큰형 김창집과 둘째 형 김창협이 벼슬에 오른 상태여서 자신까지 출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구본현 2008, 150-151). 김창업은 부귀공명을 멀리하여 동장(東庄)인 송계(중랑천 월계동 일대)에 물러나 밭을 다스리며 일생을 마치고자 하여 스스로를 심을 가에 재계할 재를 써 가재라고 불렀다.

김창업은 지금의 석관동인 돌곶이에 동장을 마련하여 살았다. 조선 후기에는 본가 외에 화려한 별장을 짓는 풍속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김창업의 동장은 휴식을 위한 별장이 아니었다. 김창업은 아예 과거를 포기하고 식솔들과 가묘까지 모두 석관동으로 옮겨 살면서 그곳에서 여생을 마쳤다.

석관동은 명승지가 아니어서 김창업 이전에는 유명한 문인의 자취가 없었다. 김창업은 여가를 즐기거나 학문을 수양할 목적으로 그곳에 살지 않았다.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고자 했다. 북쪽으로 한양과 양주의 경계에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있어 산세가 험하고 농사지을 땅이 많지 않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으나 서쪽이나 남쪽에 비해 외진 곳이었다. 김창업의 동장에도 연못과 정자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풍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집의 건물들 대부분의 이름을 농사에 관한 것으로 붙인 데서 알 수 있다. 김창업은 직접 호미, 낫, 가래로 농사를 지었으며 집 주변의 꽃, 나무, 바위와 손수 기른 채소에 대해서도 시를 지으며 애정을 표했다(구본현 2011, 9-10).

『노가재연행일기』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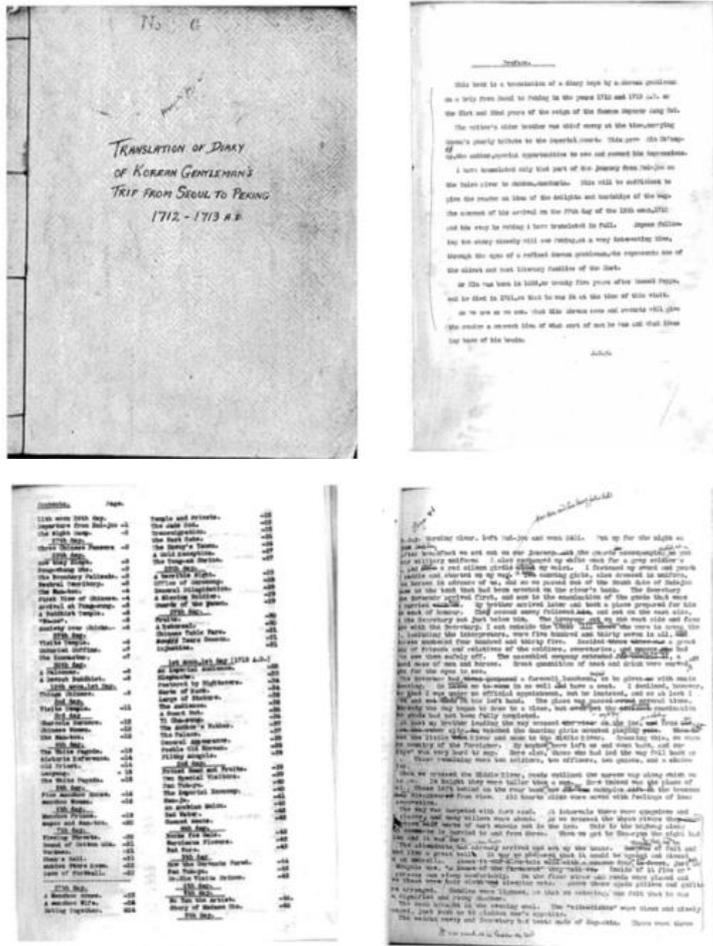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는 일찍이 조선후기 학자들과 외국인 선교사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연원직지』를 쓴 김경선(1788-1853)은 조선 후기 연행록을 평가하며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 세 사람의 글이 가장 저명하다고 기록했다. 김창업의 죽마고우였던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 조정만(1656-1739)은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를 읽고 이를 칭송하는 시를 썼다.

형제가 번갈아 시 지으며 북경에 가더니
만 리에서 온통 돌아옴을 잊었네.
붓을 잡아 이미 연행일록을 지었고
채찍 돌려 다시금 천산을 보러 갔지.
이적의 풍속을 자세히 빠뜨리지 않았고
이정(里程)과 요충지를 갖추어 덜지 않았네.
앞사람의 글에서 취하여 보더라도
내 벋처럼 빛나게 기록한 이 어찌 있으랴?
- 조정만, <연행일록>

조정만은 『노가재연행일기』가 풍속과 이정, 요충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연행일기 중에서 백미라고 칭송했다(김남기 2002, 157). 1888년부터 1927년까지 조선에서 활동한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은 조선의 고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영어로 번역했다. 게일은 자신이 편집자로 있던 The Korea Magazine에 『노가재연행일기』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했다. 게일은 김창업을 17-18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으며 그가 북경의 모습을 흥미롭게 묘사했다고 강조했다. 게일은 김창업이 정치적·사회적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조선 선비의 자유로운 생각을 보여줬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민족사』에서 서구 열강들이 자본주의적

투기와 그로 인한 대공황으로 얼룩지던 혼돈기에 조선(인)은 이와 달리 편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백주희 2014, 304-305). 물론 이러한 평가에 대명익리와 북벌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청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에 순응해야 했던 당대 조선 지식인들의 치열한 고민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 사람의 평가를 종합해봤을 때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가 청나라의 산천과 문물, 풍속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록한 걸작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 『노가재연행일기』에 비친 베이징: 북벌에서 북학으로_자금성



<그림1> 게일의 『노가재연행일기』 영문 번역본

『Translation of diary of Korean Gentleman's trip from Seoul to Peking 1712-1713 A.D.』 원고 (백주희 2014)

18세기 초 조선과 만주족의 나라 ‘청’

역동의 시기였던 18세기는 세계사의 위대한 백년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근대적 인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대였다. 이는 조선과 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과 청은 긴장의 17세기를 보냈다. 그러나 청이 새로운 ‘중국’의 통일과 전성기를 맞이하고, 조선 역시 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속에 두 나라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다(윤재환 2019, 150-151).

다만 김창업이 연행하던 1712년 조선 사회에는 여전히 화이론적 세계관이 주를 이루었다. 명이 망한지 60년이 됐던 1704년 당시 조선은 창덕궁 후원에 대보단을 창설하여 숙종과 대신들이 명 신종의 제사를 지내며 중화 문화의 계승자가 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명 멸망 후 68년이 지난 1712년에도 북벌론과 대명의리론이 국가적 대의로 여겨졌으며,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중화문화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지녔다. 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정복 오랑캐인 청의 번영을 인정할 수 없었다(전혜숙 2005, 118-119).

이 시기 청조는 제4대 황제 강희제 재위 51년이 되는 때였다.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천문지리학 등 신학문과 기술이 중국에 들어왔고, 강희제의 통치 아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 한편, 만주족이 지배했던 청나라는 그 안에서 복합적인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중국 내에서는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명조의 계승자로서 통치를 이어갔으며, 만리장성 밖 열하를 거점으로 해서는 몽고, 티베트, 위구르뿐만 아니라 비한족세력의 통치자로서 존재했다(송미령 2005, 69). 이렇듯

한족과 비한족을 아우르는 통치가 요구됐던 당대의 중국 내에서는 한족과 만주족의 풍속 역시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노가재연행일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청인은 다 한어(漢語)를 하는데, 한인은 청어를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를 달갑잖게 여긴다. 그러나 청어를 하지 못하면 벼슬길에 해롭다. 대궐 안에서나 아문에선 다 청어를 쓰며 주어문서(奏御文書)도 다 청어로 번역되기 때문이다. 향간에서는 만주인과 한인이 다 한어를 쓴다. 때문에 청인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도 청어를 알지 못하는 자가 많다. 황제는 이를 근심하여 총명한 어린이를 뽑아 영고탑(寧古塔)으로 보내어 청어를 배우게 한다고 하였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1권 산천 풍속 총록

이윽고 영반이 왔다. 드디어 찰원의 한 뒷방에 앉히고 붓으로 문답하였다.

“내가 성화를 많이 들은 터라 마침 이곳에 온 김에 한번 보고싶었을 뿐이오. 반관에 들었으면 유생(儒生)일 텐데, 어찌해서 손가락에 각결(角決, 활 쏠 때 손에 끼는 것)이 있소?”

“저는 무반(武泮)에 들어갔습니다. 활과 말에 익숙하고 책론(策論)에 정통함을 본국에서 으뜸으로 칩니다. 다만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2권 1712년 12월 15일

당대에는 한어와 만주어가 함께 쓰이고 있었으며 한어가 만주어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조에서는 만주어를 하지 못하면 벼슬을 하기 어려웠다. 유목민족의 왕조답게 활과 말에 익숙하면서 책론에도 능한 것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한족 여인은 다 분을 바르는데, 호녀(胡女)는 바르지 않는다. 전에 듣기로는 한족 여인은 남편이 있으면 아무리 늙었어도 모두 화장을 하고 꽃을 꽂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니 다 그렇지 않았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1권 산천 풍속 총록

남녀의 복장은 사치한 이나 검소한 이를 막론하고 모두 검은 빛을 숭상하는데, 한족 여인은 그렇지 않아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은 자가 많았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1권 산천 풍속 총록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혜(鞋, 가죽신)나 화(靴, 목이 긴 신)를 신는다. 비록 말뚝이꾼이라도 다 혜를 신는데, 그 혜는 베나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된 것이나 삼신, 짚신 따위는 없다. 봉성과

심양 사이에선 간혹 가족신을 신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부르는 다로기다. 호녀(胡女)는 전각하지 않으나 간혹 화(靴)를 신는 수가 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1권 산천 풍속 총록

소녀의 머리는 호인의 방식을 하였고 발은 전족을 하였는데, 그것은 만한(滿漢)의 풍습을 섞어 차린 모습이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8권 1713년 2월 26일

한족 여인은 화장을 하고 만주족 여인은 화장을 하지 않았으며, 한족 여인은 푸르고 붉은 바지를 입고 만주족 사람들은 검은빛의 옷을 입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족신이나 목이 긴 신을 신었는데 만주족 여인은 전각하지 않고 가끔가다 목이 긴 신을 신었다. 한족의 전족을 하면서 호인의 머리 모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듯 외모를 가꾸거나 의복을 갖추는 데 한족과 만주족의 풍속이 구분되는 부분과 혼합되는 부분이 공존했다.

혹 한인(漢人)은 3년제를 쓰고, 청인(淸人)은 역월제(易月制)를 쓴다고도 한다. 청인은 모두 화장을 하며, 한인은 화장을 하지 않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인도 화장을 한다고 한다. 비록 화장을 하더라도 관에 넣어 태운 뒤, 그 뼈를 거두어 그릇에 담아

묻는다. 그리곤 흙을 모아 작은 봉분을 만든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1권 산천 풍속 총록

한족은 3년제를, 만주족은 역월제를 썼다. 한족은 화장을 하지 않고 만주족은 화장을 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한인도 화장을 한다.’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한족과 만주족의 의례에 차이가 존재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변화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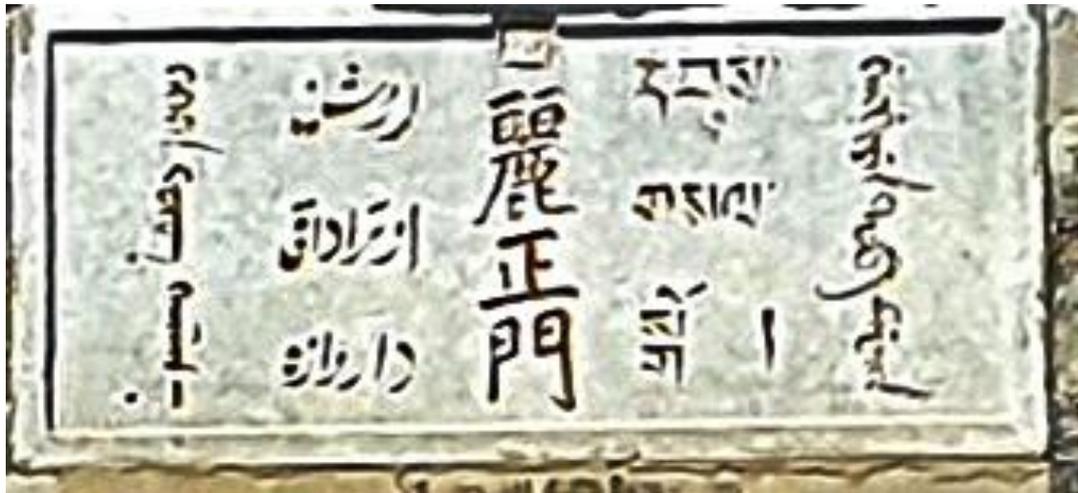
팔기의 만주인을 대상으로 기존과 같이 한문 과거의 수재, 거인, 진사를 뽑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번역과 무예의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만주인을 대상으로 만문을 번역하게 하여 수재, 거인, 진사를 뽑는 시험, 그리고 무과거의 수재, 거인, 진사를 뽑는 시험에 관해, 사무를 총괄하는 왕과 대신들이 관할하는 부와 회합하여 어떻게 시험을 실시할 것인가, 합격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등을 의논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상주하라, 특별히 유를 내린다.

- <상유기무의복> 만문본 (이시바시 다카오 2009, 160-161)

한족과 만주족을 구분하여 제도에서도 변화를 주었다. 청조 시대의 과거제도는 명조 때의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1723년 옹정제는 위와 같은 상유를 내리며 만주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에 무예과를 추가했다.

여러 언어로 쓰인 궁정의 편액은 다민족통일국가로서 청나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곤녕궁’은 만주문과 한문으로 같이 쓰였는데 한 편액의 좌측에는 한문, 우측에는 만문이 새겨져있다. 이때 만주문은 한자의 음가르 만주어로 옮겨적은 것이다. ‘태화전’ 역시 만한 합벽으로 쓰여졌는데 이때 만주문은 한자의 의미를 번역한 것이다. 한편, 항상 만한 합벽 형식만 쓰인 것은 아니다. 피서산장이나 외팔묘의 편액은 몽골·위구르·한·티베트·만의 순서로 쓰인 오체합벽과 몽골·티베트·만·한의 사체합벽도 있었다(이시바시 다카오 2009, 62).



<그림2> 만주어, 몽골어, 한자어, 티베트어, 위구르어로 쓰인 건륭제의 여름별장 ‘피서산장’의 ‘여정문’ 편각

연행 길에 드러나는 ‘조선중화주의’

1712년 11월 3일 김창업은 한성을 출발하여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했다. 연행길에서 김창업은 의관에 대한 일종의 집착을 보이기도 했다. 김창업은 청조인을 대할 때 호복(胡服)을 입고 변발을 하는 청조의 풍습과 달리 중화 문화를 계승한 조선의 의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아래는 김창업이 한인 왕오에게 조선의 의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대목이다.

한인 왕오의 집에 들어 아침을 먹었다. 주인은 나이 50쯤 되어 보였는데, 자기는 요동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노라고 하며, 또 ‘요동은 곧 당신네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하였다. 큰 돌 위에 벗어 놓은 나의 표범 갓옷을 보더니, 즉시 집어 입어 보면서, ‘참 좋다.’고 하였다. 내가, “당신은 우리나라의 갓과 옷을 어떻게 생각합니까?”고 물었더니, ‘좋다’고 하면서 모자를 벗고 자기의 머리를 가리키는 품이 할 말이 있는 듯하였다. 신지순(申之淳)을 시켜 물어보라고 하니, 자기의 아버지도 전에 망건을 쓰고 갓을 썼노라고 하였다. 처음엔 만주인이라고 자칭하다가, 우리가 캐물은 뒤에야 비로소 사실대로 고하므로, 어찌해서 앞뒤의 말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선대는 비록 한인이지만 오늘날엔 이미 황제에게 속한 바 되었으니, 어찌 만주인이 아납니까?”라고 답하고, 이어서 자기는 지금 팔고산(八高山) 군병에 속해있다고

한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2권 1712년 12월 11일

김창업의 조선 의관에 대한 자부심은 『노가재연행일기』 곳곳에서 확인된다. 아래는 김창업이 기모(奇謀)라는 청조의 어린 수재와 나눈 대화이다.

찰원의 방이 협소하므로 나는 촌가에 나가 잤는데, 마침 서장관이 사처에 있기 때문에 들렀더니 호인 어린이 하나가 앞에 있는데 얼굴이 귀여웠다. 서장관 말이, 그 아이는 주인집 아이로 글자를 알기에 불러왔으나, 머리에 쓴 것이 싫어서 보낸다는 것이다. 드디어 내가 이엄(耳掩)을 벗어서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주고 그 집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였더니, 아이는 웃으면서 들어갔다 조금 후에 나왔다. 내가, “너의 부모가 보고 어떻다고 하시더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하더라는 대답이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너의 조상의 의관 제도는 어떠했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릅니다.”고 하였다. “나의 의관이 네가 보기에 어떠냐? 꽤 우습지?”하고 물으니, “어찌 감히 웃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다고 하였더니, “의관이란 바로 예(禮)인데, 어찌 웃겠습니까?” 하였다. ...(중략)...

“머리를 깎는 것이 네 뜻엔 즐거우냐? 왜 우리처럼 머리를

기르지 않느냐?” “머리를 깎는 것은 풍속이며, 깎지 않음은 예(禮)입니다.”

“이 마을에도 달자(獠子, 서북변의 오랑캐)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들은 달자와 친교를 맺느냐?”

“이적(夷狄)의 사람이 어찌 우리들 중국과 어울려 친교를 맺겠습니까?”

“우리 고려 역시 동이(東夷)인데, 네가 우리들을 볼 때, 역시 달자와 한가지로 보느냐?”

“귀국은 상등인(上等人)이요, 달자는 하류인(下流人)인데, 어찌해서 한가지이겠습니까?”

“너는, 중국과 이적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의 말을 들어서 알았느냐?”

“공자의 말씀에, ‘우리는 오랑캐의 풍속이 될 뻔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달자들도 머리를 깎으며 너희들도 머리를 깎는데, 무엇으로써 중국과 이적을 가리느냐?”

“우리들은 머리를 깎지만 예가 있고, 달자는 머리도 깎고 예도 없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말이 이치에 맞는다. 네 나이 아직 어린데도 능히 이적과 중국의 구분을 아나, 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구나! 고려는 비록 동이(東夷)라고 불리고 있지만 의관 문물이 모두 중국을 모방하기 때문에 「소중화」라는 칭호가 있다.

지금의 이 문답이 누설되면 좋지 않으니 비밀로 해야된다.”고 하였다.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내가 「달자」라고 한 것은 청인을 지목함이었는데, 기모(奇謀)는 몽고로 오인한 때문에 답변이 그와 같았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2권 1712년 12월 12일

청조의 어린 수재 기모(奇謀)는 청조는 비록 변발은 하였지만 ‘예’가 있으므로 중국이며 ‘예’가 없는 ‘달자’(몽고)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김창업은 이에 감동하며 말이 이치에 맞다고 하였다. 예악문물은 조선중화사상을 관통하는 것으로 조선이 중화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선에 예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러한 점에 김창업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수재는 의상만이 아닌 청조의 법과 제도 등도 예악문물이며 이를 ‘예’라고 표현했다. 이에 김창업도 동의했다는 것은 중화문명의 계승자로서의 청조를 인식하는 데 한 걸음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십리하점(十里河店)을 지나 고교보(高橋堡)에 이르니, 인가는 역시 쓸쓸하였으나 마을 북쪽 2리쯤엔 옛 성이 온전히 남아 있었다. 세 사신은 찰원에 들고, 나는 민간에 들었는데 주인의 성은 유(劉)씨였다. ...(중략)...“우리들의 의관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2권 1712년 12월 14일

자신들의 의상을 의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한인 유 씨의 답에 김창업은 중화 문화의 계승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의관이 대국과 다른데, 해괴하지 않습니까?”

“노야들의 의관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도 명나라 때는 의관이 그와 같았었지요.”

“그렇다면 공들의 지금 의관은 옛 제도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지금 의관은 곧 만주 것입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3권 1712년 12월 19일

김창업은 특유의 반어법을 사용하여 조선 의관에 대한 청인들의 생각을 묻고 있다. 조선 의관을 좋아한다는 답을 들은 뒤에는 그들의 의관을 가리키며 옛 제도가 아니냐고 묻는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자극한 것이다.

내가 묻기를, “우리들의 의관은 그대가 보기에 어떠하오, 우습지 않소?” 하니, 답하기를, “우습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관입니다.” 하였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22일

위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창업은 우회적인 화법을 통해 조선의 의관이 우습냐고 묻고 상대에게서 조선의 의관이 정말 의관이라는 답을 끌어내고 있다.

나는 글로 써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관복(冠服)은 황제께서도 전에 가져다 구경하신 일이 있다”고 하였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8권 1713년 2월 22일

이처럼 김창업은 호복을 입고 변발을 하는 청조의 한족들에게 조선의 의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우회적으로 조선 의관의 우월함을 표현하고 있다. 명나라의 멸망 이후 중국의 예악문물을 조선이 계승하였다는 ‘조선중화주의’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청조에 의해 호복과 변발을 강요당한 한인들이 중화 문화를 그리워하고 조선의 의관을 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김창업은 중화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북경 궁궐은 명 영락제(永樂帝) 때 창건한 것인데, 갑신년 이 자성의 반란에 화재를 겪었지만, 뒤에 중수하여 제도는 모두 옛날 그대로였다. 장려하고 정제함이 정말 황제의 거처다웠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1일

김창업은 입궐하여 살펴본 궁궐에 대해 황제의 거처답게 웅장하고 화려하며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표현했다. 북경 궁궐은 명 영락제 때 창건한 것인데 옛 그대로였다고 표현한 점에서 명나라의 옛 제도를 떠올리며 감탄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람객 중에 먼저 온 자가 있기에 내가 글자를 써서 산 이름을 물으니, 한 사람이 「토아산」(兔兒山) 석 자를 썼다. 이 산은 궁장(宮牆) 안에 있으며 태액지에서 멀지 않은데, 생각하니 역시 명나라 때 왕실에서 놀던 곳인 듯하나 지금은 황폐되었다. 각 역시 모두 퇴락하였는데, 처마를 돌아가며 세운 돌은 그 모습이 천백 가지나 되었다. 대저 모두 텅 비고 영롱하며 그 색은 푸른데, 높은 것은 한 길 남짓하고, 큰 것은 더러 몇 아름씩 된다. 태호석 중에 기이한 것은 값이 백금(百金)이 넘는데 이 산에 모인 것만도 그 수가 무려 수천이 넘는다. 그것을 수레에 싣고 배로 운반한 비용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이는 송나라 휘종(徽宗)의 간악(艮嶽)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누구는 멀리 있으나 가져오고, 누구는 가까이 두고도 즐기지 않으니, 그 득실을 알 수가 있고, 흥폐의 운수가 또한 슬프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6권 1713년 2월 9일

옛날의 관복제도(冠服制度)나 중국의 풍속들은 불만한 것이 많다. 요새 한인(漢人)들의 후예가 오히려 중화의 제도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은 것은 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 『노가재연행일기』 제7권 1713년 2월 21일

1713년 2월 9일의 글에서 명나라 때 놀던 토아산이 지금은 황폐되어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을 보며 흥망성쇠의 운명을 슬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2월 21일 일기에서는 옛 중국의 문물과 풍속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성은 어느때 쌓은 것입니까?”

“구성(舊姓) 연행은 요순(堯舜) 적부터 있었습니다. 순의 아들을 계(薊)에 봉했지요.”

“이 성이, 안 녹산(安祿山)이 거주하던 곳입니까?”

“과객(過客)이었을 뿐이지요.”

“과객인데 어찌 사당을 세워서 온 고을이 제사를 지냅니까?”

“그 사당은 낭랑(娘娘)의 행궁(行宮)입니다.”

“낭랑이란 어떤 신(神)입니까?”

“태산(泰山)의 신이지요. 안 녹산은 본래 서쪽 호인(胡人) 권이지, 우리 계성(薊城)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국은 전부터 과객이 많았지요?” 이 말은 호족 황제를 가리켜

한 말이었는데,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3권 1712년 12월 24일

김창업은 청나라 황제를 호족 황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과객 즉,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청나라가 현재에는 명나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중국을 장악했지만 언젠가는 그 자리를 다시 한족 왕조에 내어놓고 북쪽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보인다.

김창업은 여행길에서 청나라의 지식인을 만날 때마다 조선 의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습지 않은지 특유의 반어적 화법을 통해 물으며 그들의 관심이 중국 문화를 계승한 조선의 의관을 향하게 만들었다. 오랑캐와 중국을 구분하는 화이론을 일깨우며 중국 문화를 공유했던 데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명나라의 멸망 이후 경험했던 천하질서와 ‘소중화’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명나라 때 지어진 궁궐을 보며 당시의 제도를 높이 평가한 것, 명나라 왕실에서 놀던 토아산의 황폐를 바라보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슬퍼한 것, 옛 중국의 관복제도와 풍속이 부러워할 만하다고 표현한 것 등에서 과거 명나라의 제도와 풍속을 떠올리며 ‘승명’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조의 황제를 호족황제와 과객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조선 지식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은 화이관과 더불어 만주족이

언젠가 중원을 내놓고 본래 자리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랑캐에 대한 재인식, 북벌에서 북학으로

김창업은 북경에 입관하고 난 뒤 사람들의 의복과 머리 모양을 보면서 오랑캐가 천하를 차지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노가재연행일기』를 읽다보면 김창업이 단순히 ‘북벌론’의 화이관과 ‘조선중화주의’만을 드러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글에서는 청나라의 문물과 풍속 그리고 청 황제의 통치와 인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드러난다. 청의 발전된 문물, 안정적인 황제의 통치, 청나라 사람들의 후한 인심이나 너그러움 등 풍속을 확인하면서 오랑캐인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국을 재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척흉, 마척뇌(馬踢腦)를 가리는 데 대해서는 그 제도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복색이 비록 원래 중국 제도는 아니나 그 귀천과 품급이 또한 분명해서 문란함이 없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관대지국(冠帶之國)이라고 하나, 귀천, 품급의 분별이 겨우 띠와 관자(貫子)에 불과하며, 보복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문무 귀천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부사(副使) 또한 백씨와 같이 선학(仙鶴)을 써서, 그 무늬가 문란하니, 가소롭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1일

유 봉산이 한 호아(胡兒)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제독의 아들이라고 했다. 의표(儀表)가 준수하고, 또한 귀중한 모습이 있다. 그 나이를 물으니, 14세라 대답하고, 성명을 물으니, 다만 「부」(傅)자만 쓰고 이름은 끝내 말하지 않는다. 그 의복은 극히 화려한데, 상의에는 안으로 푸른 실과 넓은 끈을 매었고, 그 좌우 전후에는 모두 금으로 새긴 대안(帶眼)이 있고, 전안(前眼)으로써 잠갔는데, 제작이 기교하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14일

앞에서 다뤘듯 김창업은 연행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조선 의관에 관한 생각을 물으며 은근히 중국 문화 계승자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창업은 새해 조참에 가서 본 청나라의 관복제도가 원래의 중국 제도는 아니지만 품급의 분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란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의 의관은 품급의 문무나 귀천에 구분을 두지 않고 품급의 분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소롭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호인 아이의 의복이 극히 화려하고 그 제작 기술이 아주 교묘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집에서는 노새 두 마리를 사용하여 메밀을 가는데, 밀가루

치는 기구를 보니, 그 기계가 편리하고 기묘하여 잠깐 사이에 두어 곡은 뺄 수 있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2권 1712년 12월 10일

호인 주인이 베를 짜는데 보니, 북 모양이 납작하면서도 뽕족하였으며 베틀의 구조가 우리나라 것과는 달라, 편리하고 힘이 덜 들게 만들어졌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3권 1712년 12월 20일

김창업은 당시 청나라의 문물 발전상을 보여주는 기계에 대해 설명하며 조선의 것보다도 더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다. 김창업이 연행 길에서 조선의 예악문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청조의 발전된 문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김창업은 강희제의 검소함과 효, 애민(愛民) 정치, 유교 숭상 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들으니, 조참례(朝參禮)후에는 관례로 다례(茶禮)와 연례(宴禮)를 행한다고 하는데, 계사(효종4, 1654), 계축(현종14, 1673) 두 해의 우리 아버님 일기에는 다례와 연례에 참가했다는 말씀이 있고 계축년에는 예부 상서로 하여금 아버님을 인도하여 태화전 내에 앉게 하고 술을 내렸다 하니,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이겠으나,

그러나 연례 같은 것은 예년에 행하던 일인데, 근년에는 폐지되었다. 전에는 태화전 앞의 12 향로에 침향(沉香)을 태웠으나, 지금 또한 이런 일을 없앤 것은 생각하건대, 황제가 검소한 것을 숭상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서인 것 같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1일

옛날에 듣건대, 황제는 창춘원에 이궁(離宮)을 15곳이나 지어놓고, 북경 및 14성의 미녀들을 모아두고 궁실제도와 의복, 음식, 기명을 모두 그 풍속에 따라 마련하고 황제가 그 가운데서 노닌다고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소문과는 크게 달랐다. 창춘원은 남북이 2백여 보, 동서가 1백여 보일 뿐인데, 그 안에 어찌 15개의 이궁을 설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삼면을 둘러보았지만 끝내 처마 끝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높고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진실로 놀기를 일삼고 사치에 바쁘다면 태액(太液) 오룡(五龍)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여기에 거처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곳은 서산(西山)과 옥천(玉泉)에 가까우니, 산수의 경치와 전야의 취미를 겸한 곳인데, 이러한 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듯하다. 이렇게 보건대, 그 사람의 성품을 헤아릴 수가 있다. ...(중략)... 처음 와 보았을 때에 북쪽 담 안에는 대나무가 있었다. 또 이 「군방보」(群芳譜)에는 황제가 창춘원의 벽모란(碧牡丹)을 읊은 시가 있는데 이로써 곧 그 안에 화초를 많이 심어두었음을 알 수 있다. 옥천수를 창춘원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좌우 언덕에는 벽돌도 놓지 않았으니, 비록 지대(地臺)와 원림(園林)을 두었다 하나 어디까지나 검소할 따름이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2월 7일

중국을 방문한 조선 사신들은 1665년 어린 황제가 사치스럽고, 행정이 부패하여 청조는 곧 붕괴할 것이라고 하였다. 삼번의 난 진압 직후 중국에 갔던 사신들은 강희제가 반란 진압 후 통치에 대한 과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군민을 징발하고 사냥하여 원성이 자자해 오랑캐의 운수가 다하려는 징조라고 보고했다. 1695년에 중국을 방문했던 사신들은 황제가 생활에 절제가 없고, 사냥을 즐겨 정사를 돌보지 않으며 관료들의 부패도 여전하다고 보고했다(송미령, 2005, 72). 이러한 사신들의 보고 내용은 김창업이 청조에 대해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 떠돌던 소문과는 달리 검소한 규모의 창춘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황제의 인품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졌다. 황제가 검소한 것을 숭상한다는 것이다.

창춘원에는 관부를 설치하지 않고 백관들을 승려(僧廬)에 들게 하며 또 날마다 25리나 되는 곳을 왕래케 하니, 더러는 이것을 괴이히 여기나 역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개, 호인들은 말 등을 집으로 삼으며 춥고 배고픔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이 그들의

장기였는데, 중국에 들어온 지 70년에 거처와 음식이 점차 사치해져서 그 본색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때문에 조석으로 왕래하게 하여 말달리기를 익히고, 거처할 곳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그 안일함을 경계하게 하니, 그 의도가 깊다고 하겠다. 열하(熱河)로 피서 가고 패주로 관어(觀魚) 가는 것도 역시 한갓 돌아다니며 노는 것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2월 7일

또, 건이(建夷), 동이(東夷)의 종족은 성격이 본래 어질고 약하여 살인을 즐기지 않는데, 더구나 강희(康熙)의 검약함으로 고생을 견디며, 관대하고 간소한 규모로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5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였으니, 태평을 이룩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정치에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능히 공자와 주자를 높이며, 몸소 효도를 닦고 적모(嫡母)를 잘 섬김에 이르러서는 비록 위나라의 효문왕이나 금나라의 옹왕에 비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2월 7일

김창업은 강희제가 백관들로 하여금 매일 25리씩 말을 타고 왕래하게 하는 것이 말 달리기를 익히고 안일함을 경계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또한 열하로 피서를 가고 패주로 낚시를 가는 것도 단순히 돌아다니며 노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강희제가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로 태평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비록 오랑캐일지라도 유교를 숭상하고 공자와 주자를 따르고 효를 행하는 것이 충분히 중국의 예악문물과 같다고 보는 것으로 조선에 예악문물이 있어 ‘소중화’로 볼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인 왕조가 아닌 위나라의 효문왕과 금나라의 옹왕을 비교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 정통왕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송미령 2005, 72).

김창업의 글에서는 청나라의 풍속을 통해 청을 재인식한 부분도 자주 등장한다.

아침에 수역이 와서 말하기를, “역졸 한 사람이 팔리포에서 낙후하고 지금껏 오지 않기에, 아문에 이야기해서 갑군을 풀어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날씨가 몹시 추웠고 또 그 사람은 처음 길이라 말도 통하지 않는데, 만약 인가에 찾아들지 못했다면 동사했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조금 후에 갑군이 데리고 왔다. 물어보니 날이 추워서 한 점방에 들어갔더니 따스한 온돌방에 재워 주고 밥도 주더라고 하였다. 이곳의 풍속이 후한 것을 가히 알만 하였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3권 1712년 12월 28일

김창업은 팔리포 인근 한 인가에서 조선 역졸을 재워주고 밥도 주었다며 이들의 풍속이 후하다고 평가했다.

기록된 물건과 세폐문서가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찌기 듣기로는, 이 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근래에는 기강이 없어 모든 일을 다 뇌물로써 해결한다고 하더니, 이번에 와서 보니, 역시 그렇지 않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마음이 밝고 통이 크며 잘못된 일은 비록 아주 능숙한 구변으로 꾸며댄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며, 옳은 일이라면 처음에는 비록 오인했더라도 이치로 따지면 곧 의혹을 푼다. 이번 사건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음에는 다만 문서만 보고 오인하다가, 장 원익의 말을 들은 뒤에는 곧 의혹을 풀어 버리고 조금도 의심치 않으니,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치지 못할 바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17일

김창업의 글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익히 알고 있던 바와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글을 써나간다는 것이다. 위 대목에서 김창업은 청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문제를 뇌물로 해결한다고 들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들이 이치에 따라 의혹을 풀고자 한다고 썼다. 이러한 점은 조선 사람들은 미치지 못할 바라고 하며 조선에 비해 이들의 풍속이 더 나은 부분에 대해 솔직한

평가를 하고있다.

서직문에 이르니 아직 열리지 않아 곧 말에서 내려 길옆에 앉았다. 문 안에는 수레와 말이 붐비고 등불과 촛불이 휘황한데 모두 창춘원으로 가는 관원들이었다. 한 작은 점포가 등을 걸어 놓고 일찍 가게를 열었는데, 매매하는 것을 보니 반랑(檳榔) 한 개를 네 쪽으로 갈라놓고 담배를 작은 봉투에 갈라 넣어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사는 자들이 돈을 탁자에 놓고는 값에 따라 가져갔다. 전후에 와서 사는 자들이 많았지만 모두 한결같았다. 그 주인이 보지 않으나, 가져가는 자들이 없었으니 풍속은 정말 가상하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5권 1713년 2월 6일

나는 연 3일 동안 창춘원에 가 보았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절대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안 들렸고, 책을 줄 때에도 우리나라 같으면 반드시 각 관청 사람들을 다 불러 거동이 분분했을 터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고 책만 내어줄 뿐이었다. 쌀 물건도 내어주니 싸서는 곧 들고 나올 뿐이며 사관에 옮겨놓기까지 일시반각도 지연함이 없으니 오직 이러한 일은 우리 나라에서는 미치지 못할 바이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5권 1713년 2월 6일

사동비의 문자는 명 나라 지휘동지(指揮同知) 왕평(王平)과 도독부첨사(都督府僉事) 왕성종(王盛宗) 두 사람에게 내린 칙유(勅諭)의 글이다. 좌측의 2개의 비는 왕성종이 만력 3년(1575)과 5년, 18년에 요동 전문 유격장군(遼東前屯衛遊擊將軍)을 제수한 칙서(勅書)다. 우측의 비석은 왕평이 만력 20년(1592) 및 21년에 유격장군(遊擊將軍)을 제수한 칙서다. 이 두 사람은 일찍이 금주(金州), 복주(復州), 해주(海州), 개주(蓋州), 금주(錦州) 등의 위(衛)와 철령위(鐵嶺衛) 등의 수장(守將)이 되어 누차 변방의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비문 가운데 「노추」 ‘奴酋’ 두 자는 모두 쪼아 내면서도 비석만은 그대로 두었으니 역시 너그러운 처사이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8권 1713년 2월 29일

김창업은 서직문 근처 무인 점포를 보며 주인이 없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며 그들의 풍속이 가상하다고 썼다. 창춘원에서는 사람이 많아도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책을 나눠주었다며 이러한 모습이 조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명나라 때 지휘동지와 도독부첨사에게 내려진 칙서가 적힌 비석을 그대로 두고 몇 글자만 쪼아 낸 것을 두고 너그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창업이 풍속을 통해 청을 재인식한 것은 조선에서 풍속이 지녔던 중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건국 때부터 풍속을 교화함으로써 성리학적 이상 국가를 추구했다.

조선에서 풍속은 정치의 주된 목적이자 정치적 교화의 결과이며, 임금의 정치적 능력과 그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이기도 하였다. 풍속이란 창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중국의 정치 상황을 알 수 있고, 황제의 정치적 능력을 헤아릴 수 있으며, 중국이 오랑캐의 나라인지 문명국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정훈식 2021, 41-42). 김창업은 청나라의 풍속을 자세히 살피고 이를 나름의 기준을 통해 평가하면서 오랑캐의 나라와 문명국으로 나뉘놓은 경계에서 한 걸음 벗어났다.

그러나 김창업의 글에서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청의 풍속과 문물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적’인 청나라에 대한 무시는 여전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북벌에서 북학으로 옮겨가는 전개과정에서 ‘이적’과 ‘문물’을 구분해서 바라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가 오래도록 변성할 수록 조선의 지배층은 청나라의 몰락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청나라의 몰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오랫동안 변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그러나 전통적 화이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나라의 변성 이유를 청나라의 근본적 속성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이 중화의 문물을 빼앗아서 그러다는 논리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적’으로서의 청나라와 ‘중화의 문물’인 청나라의 문물을 구분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청나라의 문물이 곧 중화의 문물이라는 관념으로 이어지며 청 문물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맥락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허태용 2007, 412).

18세기 동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다

김창엽은 단순히 중국의 산천과 풍속, 문물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멸망청초의 상황을 논하고 몽고의 동향을 살피고 해적에 관한 정보를 묻는 등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명나라 말기에 이 성을 지킨 장수는 누구였습니까?”

“처음엔 조대수였고 뒤엔 오삼귀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오삼귀는 곧 오삼계를 말한다.

“조 장군이 지켰는데 어찌해서 이 곳을 떠나고 오삼계가 대신 지키게 되었습니까? 오삼계는 행복하였습니까? 아니면 패전해서 후퇴한 것입니까?”...(중략)...

“조 장군이 끝내 행복하였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조이수가 행복한 것은 진(陳)이 북문 밖에서 망한데다가 조대수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씨 집안은 지금의 조정에서 모두 3품의 직분입니다.”

“조대수의 형제로는 조대락 한 사람뿐인데, 조이수는 누구입니까?”

“이수는 조대락의 속명입니다.”

“조대락은 송산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어 잡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송산에서 잡혔다는 것은 사실이나, 뒤에 다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영원으로 도망했습니다다.”

“그 뒤에 끝내 어느 편이 되었습니까?”

“뒤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과 진이 북문 밖에서 망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3권 1712년 12월 15일

아버지와 형이 모두 영의정을 지낸 조선왕조의 대표적 권문세족 출신이었던 김창업은 청나라의 정치 현실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중원 장악의 원인을 따져보고 역사를 현장에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오삼계와 조대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은 명말청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태극달자(太極獐子)도 진공합니까?” 물었더니 ”하지 않습니다.”

“그 달자는 이롭습니까, 아니면 해롭습니까? 황조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군병이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3권 1712년 12월 19일

“은(銀)을 만들어 바깥 달자들에게 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바깥이란 어느 곳이오?”

“영고탑 바깥입니다.”

“이 달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모릅니다.”

“달자가 곧 몽고인이오?”

“그렇습니다.”

“지금 몽고에서 여기 와서 머무르는 자가 몇이며,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48가인데, 48가가 다 와서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닭은 알 수 없습니다.”

“1년에 은 얼마씩을 상으로 주오?”

“매년 48가에 약 4만, 5만 냥입니다.”

“은 외에 비단도 주오?”

“별도로 비단 같은 물건도 줍니다.”

“달자들이 1년에 바치는 공물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오?”

“이는 모두 이번원(변방 사무를 총괄하는 관청)을 거치고 우리 예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예부의 일이 아니라 해도 혹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을 터인데 어찌 모르겠소?”

“듣건대 공물로 바치는 것은 인삼과 피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3일

통관배들이 말하기를, “몽골인들은 3월이 되도록 머물다가 황제 생일이 지나야 돌아가며 하루에 바치는 양고기와 술과 양식과 목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렇듯 오래 머물게 하는 뜻을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고, 이어서 황태자를 책립하기 때문에 묵고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13일

김창업은 청조가 몽고를 두려워하는 이유, 청조와 몽고의 관계, 몽고의 진공 등을 물었다. 통관들로부터 몽골인들은 3월까지 머물다가 황제의 생일이 지나야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해 궁금해했다. 김창업이 이처럼 몽고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기존에 몽고에 대해 지닌 인식 때문일 수 있다. 1702년 중국을 다녀온 사신은 청조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서북방의 몽고이며 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금과 비단으로 뇌물을 썼으나 그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여, 이후 청조의 근심은 오직 거기에 있다고 보고했다. 청조와 몽고의

충돌은 청조의 기틀이 마련되어 가는 강희제 때 시작되었다. 준가르의 갈단은 수령이 된 후 여러 몽고 세력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강희제는 강력한 유목제국 출현을 우려했다. 이에 준가르 연합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청조와 준가르는 1690년에 전쟁을 시작했고, 1696, 1697년 강희제가 친정을 하였다. 당시 조선은 청조가 붕괴되어 본거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청이 본거지로 회귀한다면 그 과정에서 몽고에게 길이 막혀 조선으로 우회할 것을 염려했다. 이에 조선은 몽고의 동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송미령 2005, 83-84). 김창업의 몽고에 대한 관심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전에 황제가 우리나라에 보낸 자문에 지금 금주 지방에 해적이 출몰하니 주의하여 방비토록 하라고 하였는데, 그 해적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철산 통자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산은 어느 부입니까?”

“산동 등주에 속해 있습니다.”

“등주는 여기서 뱃길로 몇 리나 됩니까?”

“바람만 순조로우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의 성명을 써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혹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예전의 사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3권 1712년 12월 14일

“금주(錦州) 해적 가운데 대왕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는데
그렇소?”

“있습니다. 진상의라고 합니다.”

“대단하오?”

“산둥, 절강을 어지럽히고 다섯 성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개
해적은 바람을 타고 달리며 출몰이 무상합니다. 지난해 10월
성경장군 패화락이 청자 절자로 계주한 것이 내각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어찌 군대를 풀어서 소멸시키지 않소?”

“대개 해상의 도적은 주거지역을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금
관병은 모두 죽음을 겁내는데, 누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싸우겠습니까?”

“적병은 얼마나 되오?”

“듣건대 3만, 4만이라 합니다.”

- 『노가재연행일기』 제4권 1713년 1월 3일

김창업이 연행을 떠난 1712년은 상고선(무역선)이나 조선
어선을 상대로 노략질을 해오던 중국 해적선이 요동반도에서
가까운 황해도 해역 일대에 자주 출몰했던 시기다. 중국 해적은
황당인이나 해량적으로 불렸는데 이들 우두머리는 왕을

참칭하기도 했다. 해적선의 출몰로 숙종까지 “황당선이 나오지 않는 해가 없는데 금년은 특히 황해도에 더욱 많으니 매우 염려스럽다.”며 경계를 철저히 하고 발견 즉시 추적해 체포하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했으니 김창업 역시 중국 해적의 동향을 살피는 데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김창업은 단순히 청나라의 산천과 풍속, 문물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명말청초의 상황과 몽고 세력과 해적의 동향을 살피며 18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나가며

18세기 조선은 전통적 천하질서와 화이관을 바탕으로 중화의 예악문물을 숭상하면서도 청조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이 혼재하는 시대였다. 통설적으로 북학론은 18세기 말에나 등장했다고 여겨지지만, 북학론은 18세기 초 맹아적 상태로 형성되었다.

김창업은 『노가재연행일기』에서 ‘소중화’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청조의 의관과 문물을 조선의 것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나타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의 문물과 풍속에 감탄하고 조선의 것은 이에 비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였다. 멸망한 명나라를 떠올리며 슬픔에 잠기면서도 청 황제의 통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역사에 함몰되지 않고 현재를 실용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창업이 ‘화이관’을 지니면서도 청의 풍속과 문물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북벌에서 북학으로 옮겨가는 전개과정에서 ‘이적’과 ‘문물’을 구분해서 바라보고자 했음이 드러난다. 청나라가 오래도록 변성할 수록 청나라의 몰락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조선의 지식층은 청나라의 몰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청나라가 오랫동안 변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청나라의 근본적 속성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그들이 중화의 문물을 빼앗아서 그러다는 논리로 설명했다. ‘이적’으로서의 청나라와 ‘중화의 문물’인 청나라의 문물을 구분하면서 청나라의 문물이 곧 중화의 문물이라는 관념으로 이어졌다. 이는 청 문물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게 하였고 북벌에서 북학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작용했다.

김창업은 중국의 산천과 풍속, 문물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명말청초의 상황을 논하고 몽고의 동향을 살피고 해적에 관한 정보를 묻는 등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이는 김창업이 기존의 뿌리 깊은 관념을 바탕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서도 연행 중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통해 괴리를 느끼며 때로는 기존 관념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소극적인 관찰자의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연행에 참가했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송명멸청의 시기 중화적 세계질서의 붕괴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당시 조선사회의 지식인이 기존 관념과 변화된 세계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의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도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현재를 개척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복합적인 심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재단법인민족문화추진회. 1976. 『연행록선집IV』 (노가재 김창업 저). <고전국역총서> 98.

<2차 자료>

구본현. 2008. “노가재(老稼齋) 김창업(金昌業)의 동장(東庄)에 대하여.” <퇴계학논총> 14.

구본현. 2011. “옛 文 人 들이 사랑한 서울의 동북 지역.” <인문과학연구> 15.

김남기. 2002. “김창업과 김창흡을 추도한 조정만의 만시.” <한국한시연구> 10.

김상조. 2005. “김창업(金昌業)의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영주어문> 10.

백주희. 2014. “J. S. Gale의 老稼齋燕行日記 英譯本 一考.”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송미령. 2005. “18세기 조선 지식인이 본 청조(淸朝)의 통치.” <명청사연구> 23.

유장근 외. 2009.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윤재환. 2019. “18세기 전반 연행록(燕行錄)에 나타난 뒤엎힌 인식과 하민(下民)의 묘사.” <한민족어문학> 85.

이시바시 다카오. 2009. 《대청제국 1616-1799: 100만의 만주족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홍성구 역. 휴머니스트.

이장우. 1976. “가재연행록해제.” 『국역연행록선집IV』 <고전국역총서> 98.

이호윤. 2018. “18세기 조선의 청조인식-『노가재연행일기』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2.

전혜숙. 2005. “18세기 初 <燕行錄>에 기록된 朝鮮知識人의 服飾觀-金昌業·崔德中의 燕行錄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8(1).

정혜중. 2015. “18세기 조선지식인의 청국 여성관 - 金昌業과 朴趾源의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73.

정훈식. 2021. “조선후기 燕行錄에 기록된 청대 風俗 인식의

추이.” <한국문학논총> 87(1).

허태용. 2007. “17.18세기 北伐論의 추이와 北學論의 대두.”
<대동문화연구> 69.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만남 고관상대

유지현

연세대학교

들어가며

만남이란 나와 전혀 다른 타자를 만나 소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남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기도 하고 혹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자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된 나를 경험하기도 한다. 만남이란 전혀 다른 두 개 이상의 것이 만나 서로의 것을 나누며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그 자체만으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무수한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세계역사 또한 무수한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져왔다. 누군가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또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자신의 삶터를 떠나 다른 세상을 탐험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만남들의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수많은 역사적 만남들 중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만남은 단연 의미있게 다루어야 할 만남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6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 초 세계는 포르투갈의 커다란 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세계질서는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성되었다. 글로벌 파워로서 세계중심에 선 포르투갈은 식민지 개척을 목적으로 활발한 해양 탐험 활동을 벌였고, 그에 따라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여러 대륙으로 신향로를 개척하며 세계 곳곳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Modelski 1978, 219). 신향로의 개척은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확대된 해양 교통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했고, 이는 식민지 사업과 교역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종교 단체에도 영향을 끼쳐 신대륙 선교사업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성되고 글로벌 파워의 신향로 개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교역과 식민지 사업, 선교 사업을 통해 동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동서양의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예수회 선교사들의 역할과 공헌이다. 무역 상인들의 새로운 시장과 돈에 대한 갈망이 동서양 교역의 물꼬를 텃다면, 예수회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신념은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넘어서 동서양의 깊이 있는 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부터 험난한 항해를 거쳐 미지의 세계인 아시아로 건너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신대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 선교지 현지인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가깝게 지낼 때 비로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교사들은 먼저는 현지인들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부하며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두번째로는 현지인들에게 유럽의 문물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데 힘썼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회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라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의 실현을 위해, 그에 대한 발판으로 먼저 문화적, 학문적 교류에 힘썼던 것이다.

그렇다면 동서양의 여러 크고작은 만남들 중에서도, 유럽 예수회와 한국의 만남은 어떠했을까. 안타깝게도, 유럽 예수회와 한국의 직접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 프란시스 자비에르(Francis Xavier)를 시작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일찍부터 서양과 직접적인 교류를 가졌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을 통한 서양과의 간접적인 만남이 전부였다(신익철 2013, 446). 더군다나 중국 북경에서 이루어진 한국과 서양의 만남은 조선 사절단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만 성사될 수 있었기에, 만남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만남의 자체도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 만남이 제한적이었다고 해도 그 영향마저 미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당시 중국은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적 나눔에 힘입어 과학, 수학, 천문학 분야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서양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보며, 조선의 지식인들 역시 서양 학문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북경을 방문할 때면 귀로만 들었던 서양의 문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때문에 북경을 방문하는 조선 사신단은 의례적으로 천주당을 방문하여 예수회 선교사와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 속에서 서양의 예술, 종교, 과학 등의 문물을 접했다. 매해 몇 차례 되지 않는 연행을 통해 만남을 가져왔기에 만남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만남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남달랐기에 북경에서 서양과 한국의 만남은 조선 과학과 천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과 중국 학계의 경우, 자국과 예수회 선교사들과의 점점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켜왔다. 물론, 앞의 두 나라의 경우 예수회 선교단과 오랜 기간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기에 한국과 비교하여 연구 소재가 많고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역시 북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예수회 선교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고 이는 당대 조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에, 둘의 만남 역시 자세히 연구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18세기 북경에서 이루어진 예수회 선교 단체와 조선 사절단 간의 만남, 그 중에서도 예수회 선교사 할리슈타인과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의 만남을 살펴보고 그 만남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두 고인의 만남을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 우리나라 18세기 역사에서 할리슈타인이라는 서양 선교사 인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그는 천문학과 수학에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가졌던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로, 그 능력을 중국 황제로부터 인정받아 중국 황실에서 오랜 시간 일했다. 그는 중국 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조선에까지 그 영향을 끼쳐 조선 과학의 발전에도 일조했다. 그의 과학과 천문학에 대한 소양이 대단하여, 조선 실학자들은 물론 조선왕 영조 역시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영조는 조선 사절단이 북경에서 돌아올 때면 할러슈타인과의 만남에 대해 직접 묻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공헌에 비해, 그의 이름은 현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못하다. 비록 한국땅에 발 디딘 적 한번 없고 북경을 방문한 조선 사절단 이외에 한국인을 만나 소통해본 적도 없는 인물이지만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국의 선조들을 만나고 그들을 통해 바다건너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할러슈타인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한국 역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역사적 인물의 만남을 재현함에 있어, 할러슈타인과 홍대용이 둘의 만남에 대해 직접 작성하여 남긴 글들을 1차 사료로 삼고, 그에 더하여 둘의 만남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참고하고자 한다. 18세기 북경에서 서로를 만나기까지 할러슈타인과 홍대용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서로 다른 두 인생의 북경에서의 만남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과거의 만남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만남 전: 중국 북경에서 서로를 만나기까지

할러슈타인

할러슈타인은 1703년 8월 27일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Ljubljana)에서 태어났다. 그는 류블랴나 예수회 대학을 마친 후 1721년 10월 26일 비엔나에서 예수회 단체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그는 한편으로는 인문 교양학(Humaniora), 수학, 신학 등을 공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문법과 수사학을 가르치며 20대를 보낸다. 배움과 가르침을 거듭하며 20대를 보내고 있던 그는 1727년 10월 8일 신대륙 선교활동에 지원하게 되고, 그의 바람은 8년이 지나 173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드디어 선교지를 향해 떠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중국으로 가는 여정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다. 할러슈타인이 몸을 실어야 했던 배는 대개 여객선 전용이 아닌 화물선 혹은 화객선이었다. 배 위에는 많은 짐이 실려있었고, 짐이 차지한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좁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했기 때문에 배 위에서의 생활은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 게다가, 배 위에는 늘상 질병이 돌아 안전하지 못했고, 지나가야 하는 항로 부근에 전쟁이 일어날 때면 갈 길을 멈추고 마냥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역경도 할러슈타인의 신대륙 선교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중국으로 향하는 고된 여정 중에서도 포르투갈어와 천문학을 공부하며

앞으로의 선교활동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Saje 2009, 62-73).

1735년 9월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유럽을 떠났던 할리슈타인은 3년이라는 고된 시간 뒤 1738년 8월 25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중국 마카오에 도착했다. 마카오에 도착한 뒤 할리슈타인은 중국어 공부에 열중했고, 중국 관리의 요청에 따라 마카오와 그 주변 지역을 담은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다음해 1739년 3월 1일 할리슈타인은 다른 네 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마카오를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다. 그가 북경에 도착했을 당시, 북경에는 3개의 카톨릭 교회가 존재했고(북천주당의 경우 처음에는 교회로 인식받지 못하다 후에 북당으로 불리며 3개의 카톨릭 교회와 함께 교회로 인식되었다), 총 34명의 카톨릭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 중 31명이 유럽 출신이었는데, 해마다 나이 든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그들을 대신해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전체 선교사의 수와 구성은 해마다 바뀌었다.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수가 많지 않아 1743년까지 유럽 선교사 수는 22명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에도 선교사 수는 더 늘지 않아 1766년 북경에는 할리슈타인을 포함해 16명의 예수회 선교사들만이 남아있었다. 유럽 출신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도 소수의 중국인 목사들이 선교활동을 벌였고, 러시아 정교회 단체 또한 1680년대부터 북경에서 활동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한다(Saje 2009, 73-79). 얼핏 봐도 1700년대

중국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에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다.

할러슈타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중국 당국은 선교사들을 의심스러워했다고 한다. 북경 사람들은 선교사들에 대해 거리낌을 갖고 있었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카톨릭 신자로 개종했다고 한다. 그리스도교 관례는 허용되었지만, 이러한 종교적 관용은 오직 북경과 북경에서 1시간 내외 거리인 주변부에만 적용되었고 다른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활동은 중단되지 않았고, 선교사들과 카톨릭 신자로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가혹해졌다.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고,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은 감금되거나 고문을 통해 카톨릭 믿음을 부정할 것을 강요받았다. 체벌 이외에도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중국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1749년에는 중국 여러 지역에서 잡힌 선교사들이 사형에 처해졌고, 할러슈타인은 또다른 선교사 펠릭스 다 로차(Felix da Rocha)와 함께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 서적과 그림을 배부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당하기도 했다. 둘은 사법 재판소로 소환됐지만 황제의 중재로 간신히 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회 선교사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비단 선교활동에 불리했던 중국의 정치적 상황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것은 로마 신도단의 불신과 비난이었다. 로마 신도단은 실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선교사들을 힐난했고 북경에서 그리스도교의 관례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할러슈타인이 북경에 도착했을 당시 전체적인 상황은 예수회가 선교활동을 이어나가기에 매우 열악했다. 북경의 정치적 상황이 선교활동에 호의적이지 못했던 것은 물론, 자신들의 든든한 지원군이길 바랐던 로마 교황과 신도단으로부터 지지는커녕 비난과 책망을 받았기에, 18세기 북경에서의 선교활동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Saje 2009, 80-82).

그러나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회 선교사들이 북경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가장 먼저는 선교사들의 뛰어난 과학적 소양 덕분이었고, 두번째로는 이를 알아본 중국 황제의 안목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 옹정제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건륭제는 유럽인들이 황궁에서만큼은 쓸모있다는 아버지의 조언을 새겨들어 예수회 선교사들은 자신의 곁에 두고자 했고(Saje 2009, 80), 이것은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은 물리적 세계와 실용과학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관심은 특히나 학문적 역량이 부족했던 천문학에 집중되었다. 때마침 북경으로 건너온 예수회 선교사들은 비단 천문학 뿐만 아니라 수학, 음악, 미술, 기계학, 건설, 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그들의 강점은 선교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빛을 발했던 것이다(Saje 2009, 83). 중국 황제는 물론 고위 관직자들 역시 종교와

관련해서는 예수회 선교사들을 외면하면서도, 선교사들이 가진 학문적 소양에는 큰 관심을 가졌기에, 할리슈타인을 포함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에 앞서 그들로부터 먼저 신임을 얻기 위해 학문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었다.

실제로 1644년부터 1775년까지 청나라 조정에서 천문, 역산을 담당한 흠천감 감정은 예수회 선교사들 사이에서 역임되었다(신익철 2013, 453). 할리슈타인 역시 중국 황실로부터 유송령(劉松齡)이라는 중국 이름을 부여받고 1743년 12월 포르투갈 출신 선교사 안드레 페레이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황궁의 흠천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1746년 5월 6일 흠천감의 총 책임자였던 이그나티우스 코글러(Ignatius Kogler)가 세상을 떠나면서 할리슈타인은 그를 대신해 관아의 총 책임자가 되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황궁 흠천감의 총책임을 역임했던 것은 한편으론 선교사들에게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얻고 그들과 학문적으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게 현지 관직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 경계심을 사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중국인 관직자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오랜 기간 황궁의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졌고, 선교사들의 학문적 소양이 황궁 흠천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기보다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황궁 밖으로 쫓아내고자 했다. 할리슈타인 역시 중국인 관직자들의 질투심 가득한 모략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예수회 선교사들의 존재는 단순한

모락에 의해 위태로울 만큼 가볍지 않았다. 그들이 중국 학문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지대했고, 그만큼 그들을 향한 황제의 신임은 두터웠다. 할리슈타인 역시 다른 흠찬감 책임을 맡았던 선교사들과 같이 중국 황제의 총애 아래 중국 천문학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일하다 1774년 10월 29일에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홍대용

담헌 홍대용은 영조 7년 1731년 봄 음력 3월 초에 충청도 천원군 수신면 장산리 수촌마을에서 아버지 홍역과 어머니 청풍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권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1742년 열두살이 되던 해에는 석실서원에 들어가 스승 김원행 밑에서 수학하기 시작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내온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홍대용 역시 당연히 관직에 올라 나랏일을 돌볼 것으로 생각됐지만 그는 여느 양반댁 자제와는 다른 뜻을 품었다. 벼슬을 목표로 장구(章句)나 외우는 과거공부보다는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경학공부에 매진하고자 했다. 그렇게 홍대용은 고학공부에 정진하며 자신의 10대, 20대 시절을 보내다 1759년 29세가 되던 해부터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과학 발명품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홍대용은 당시 나주 목사로 일하고 계시던 아버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실학자 나경적을 알게 되고, 그의 인격과 과학지식에 큰 감명을 받아 그와 함께 혼천의와 자명종 제작에 몰두하게 된다. 아버지 홍역의 재정적 도움을 바탕으로 나경적과 함께

3년 뒤 1762년에 두 대의 혼천의와 자명종을 완성했고 홍대용은 이것들을 자신의 고향인 수춘 부락에 설치한 후 농수각이라 이름지었다(김태준, 1988).

어려서부터 벼슬자리를 위한 과거공부를 외면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고학공부와 과학공부에 정진했던 홍대용은 30대 중반에 북경 여행이라는 인생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1765년 6월 숙부인 홍억(洪億)이 중국 북경 연행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되면서, 홍대용은 숙부의 보좌관 자격으로 북경 연행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 과거공부를 포기한 홍대용에게 북경 연행이란 어찌면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기회였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과 함께 놀고 훗날 자라서는 학문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던 홍억이 자신을 자제군관으로 추천하면서 북경 연행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절단에 합류하게 된 홍대용은 1765년 10월 12일에 수춘을 떠나 3일 뒤 서울에 도착했고, 다음달 11월 2일 서울을 떠나 12월 27일에 북경에 도착했다. 1766년 3월 1일까지 대략 60일간 북경에 머물렀고 1766년 4월 27일 서울에 돌아왔다(Kim 2017, 505). 두달간 북경에 머무는 동안 홍대용은 남천주당을 여러번 찾아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했고, 북경 시내를 구경하다 유리창에서 엄성, 반정균, 육비 등의 중국 선비들을 만나 우정을 쌓기도 했다.

북경 여행에서 돌아온 홍대용은 여행담을 기록한 담헌연기를 썼고, 중국 선비들과의 교류도 계속 이어나갔다. 여전히 벼슬자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홍대용은 이덕무, 박제가, 박지원, 정철조 등의 실학자를 만나 얘기하는 것을 즐겼고, 동시에 의산문답, 주해수용 등의 철학소설과 수학책을 지었다. 40대 후반에 가까워서는 벼슬을 얻어 지내다 1783년 53세가 되던 해 중풍으로 별세했다고 한다.

만남의 성사: 세 차례의 만남

이렇게 서양과 동양이라는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인물은 북경이라는 접점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1765년 12월 홍대용이 북경에 도착한 이후, 두 사람은 1766년 1월과 2월을 거쳐 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북경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홍대용은 할리슈타인과의 세 차례의 만남을 여행록에 자세히 기록했고, 할리슈타인은 유럽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홍대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듯한 글을 남겼다. 둘이 살아 생전에 남겨놓은 글을 바탕으로 중국 북경에서 이루어진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세 차례의 만남을 재현해보고자 한다.

만남이 성사된 장소: 북경 남천주당

홍대용과 할리슈타인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은 북경 남천주당으로, 18세기 조선 여행사가 북경을 방문할 때면 의례적으로 들렸던 장소 중의 하나이다. 남당은 여행사가 머물렀던 옥하관(玉河館)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천주당이었으며, 숙소와 가까웠던 것만큼 조선

사신단의 방문이 집중되었다고 한다. 홍대용이 북경을 방문하였을 당시 남천주당에는 할리슈타인과 고가이슬이 살고 있었고, 그렇게 둘의 만남은 손님과 집주인의 관계로 시작되었다.

북경 남천주당은 명나라 황제 신종이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를 위해 17세기 초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10년 북경에 도착한 마테오 리치는 당시 명나라 황제 신종에게 여러가지 서양 물품을 진상했다. 그 중에는 지도, 성상, 양금, 자명종 등이 있었는데, 신종은 특히나 자명종을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선물받은 자명종이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였고, 황제는 자명종을 처음에 선물한 서양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수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 길로 황제는 또다시 자명종이 고장날 경우를 대비하여, 북경에 서양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을 가까이 두었다고 한다. 당시 신종황제가 마테오 리치와 다른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하사했던 거처가 바로 오늘날의 남천주당이다.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당은 여전히 예수회 선교사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서양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겼던 청황제는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에게 마테오 리치가 살던 남당과 함께 그 주변을 하사하였고, 아담 샬 선교사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큰 성당을 지었다고 한다(Goodnews, 2015). 17세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북경 남천주당은 훼손되고 재건축되는 과정을 거듭 거쳐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당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 북경 남천주당 (출처: Christians in China)

1766년 1월 9일 첫번째 만남

대부분의 조선 사신들이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남천주당을 찾은 것처럼, 홍대용 역시 북경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천주당을 찾았다. 1766년 1월 9일 관상감(觀象監)의 추길관(誡吉官) 이덕성과 통역관 홍명보와 함께 남천주당을 찾은 홍대용은 먼저 천주당

내외부의 이국적인 모습에 신비로움과 기이함을 느꼈다. 건물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서는 남천주당의 주인 할리슈타인과 고가이슬을 만났고, 그들은 황실이 하사한 중국 이름을 사용하여 각각 유송령과 포우관이라 했다. 두 서양 선교사를 처음 만나는 것은 물론 서양 사람 자체를 처음 본 홍대용은 자신의 여행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할리슈타인의 인물에 대한 유일한 기록으로 할리슈타인을 연구하는 슬로베니아 학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유송령의 나이는 62, 포우관의 나이는 64 인데, 비록 수염과 머리털은 희었지만 건강한 얼굴빛은 어린애 같았고, 깊숙이 들어간 눈에 눈동자의 광채는 사람을 쏘는 듯하였으니, 벽화 속에서 보던 인물과 꼭 같았다.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의복과 모자는 청국 제도로서 유송령은 양람정(亮藍頂)을 쓰고, 포우관은 암백정(暗白頂)을 썼다. 유송령은 3 품(品), 포우관은 6 품으로서 모두 흠천감(欽天監)의 관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에 들어온 지 벌써 26 년이 되었으며, 수만 리의 먼 길을 항해(航海)하여, 복건(福建)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육지에 내렸다고 한다(유포문답, 1974).

서른넷의 홍대용이 예순둘의 유송령을 보고 어린애와 같이 건강한 얼굴빛과 사람을 쏘는 듯한 광채의 눈동자를 지녔다고 묘사한 것으로 보아, 홍대용의 눈에 유송령은 지긋한 나이에 자기관리에 성실하고 생각과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으로 비춰졌음을 알 수 있다. 유송령과

포우관의 용모를 보고 천주당 벽 곳곳에 걸려있는 벽화 속 서양 사람들과 꼭 같다고 한 홍대용의 말로 미루어 보아, 유송령과 포우관은 서국적인 용모에 중국황실의 법도에 따라 청나라 조정의 의복을 갖춰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홍대용이 북경에서 돌아와 할러슈타인과 고가이슬의 인물을 묘사하는 글을 남겼듯이, 할러슈타인 역시 유럽에 있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홍대용과 이덕성, 홍명복을 묘사한 듯한 글을 남겼다.

... They are strong, muscular, well-built people, and good soldiers. They dress according to ancient Chinese customs, now in robes of peace, now in those of war(Saje 2009, 347).

홍대용은 할러슈타인과 고가이슬의 인물에 대해 비교적 긴 글을 남긴 반면, 할러슈타인은 조선 사람들에 대해 위와 같이 짧은 두 문장을 남겼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은 근육질 몸에 체격이 다부진 좋은 군인들로 비춰졌다.

홍대용이 천주당 안을 둘러보고 싶다는 말에 유송령은 직접 안내를 맡아 천주당 안을 구경시켜주었다. 묘당과 천주당 벽 곳곳에 붙어 있는 화상들 그리고 유럽에서 건너온 여러가지 물건들을 보고 홍대용은 서양 문물의 기이함과 신비로움에 사로잡혔다. 구경 중에 할러슈타인은 홍대용에게 책상 위에 진열되어 있던 책 한권을

펼쳐보라고 건네주었는데, 황제와 후비의 복록을 축원하는 글이 담겨 있었다. 홍대용은 이를 아첨하는 행동이라 생각했고, 도리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행동을 오히려 자랑하는 할리슈타인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송령은 비록 나이가 많고 천문 역상에 소견이 높았으나, 이렇듯 도리에 어긋나고 아첨하는 일을 스스로 나타내 외국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하니, 극히 비루하고 용속하여 먼 나라 이적의 풍속을 벗지 못한 일이다(홍대용 2020, 352).

홍대용은 할리슈타인이 천문학에 뛰어난 견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천주당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는 모습에 분명 좋은 인상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할리슈타인이 이처럼 호감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도리에 맞지 않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홍대용은 그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나 한 수 배워보고자 찾아간 사람이 기대와는 다르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듯이, 홍대용 또한 이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할리슈타인에 대한 홍대용의 실망감과는 별개로 또다르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홍대용은 할리슈타인의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그것을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의 풍속과 연결지어 비판했다. 이는 홍대용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하기보다

당대 동아시아에 만연했던 시대적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과거부터 오랜 시간 중국의 천하질서에 예속되어 중국과 군신관계를 유지했다. 신하국가로서 중국에 충성을 다하며 중화사상을 깊이 받아들였고,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그 나머지 주변부는 오랑캐로 간주하며 중국의 선진문명을 전해 가르치고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오랜 시간 조선땅 깊이 스며든 중화사상은 16세기 명의 도움을 받아 왜군을 물리치면서 그 색이 더욱 짙어졌다. 홍대용이 자신이 보기에 달갑지 않은 할리슈타인의 특정한 모습을 개인적인 성향이 아닌 서양 전체와 연결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중화사상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리슈타인을 바라보는 홍대용의 속내는 한마디로 말해, 그의 학문적 소양은 인정하고 우러러 보면서도 그가 뿌리를 두고 있는 서양의 문화는 역시 오랑캐의 문화로 하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첫날 홍대용은 묘당과 벽에 붙은 여러 화상들을 제외하고도 파이프 오르간과 자명종을 구경했다. 홍대용과 다른 두 조선 사신들은 하나를 보고나면 또다른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할리슈타인은 어떤 것들은 보여주기 어렵다며 사신들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거절의 의사표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끊임없이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할리슈타인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탁하는 홍대용과 두 사신들의 고집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침실을 보여달라는 조선 사신들의 부탁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홍대용과 두 조선 사신들의 거듭되는 요청과 가끔은 무례한 부탁에 불편하고 언짢기도 했겠지만 할러슈타인은 끝까지 예의를 갖춰 그들을 대우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의 연행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할러슈타인과 고가이슬은 첫만남 이후 숙소로 돌아가는 홍대용과 두 사신을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배웅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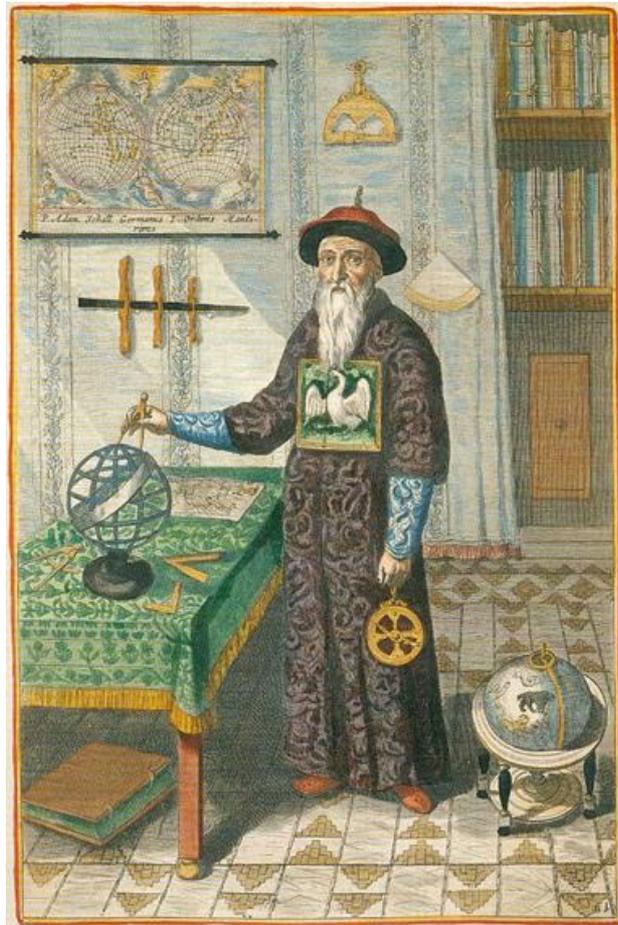


그림 2. 독일 출신 예수회 선교사 요한 아담 샬 폰 벨(Johann Adam Schall von Bell) (출처: Wikimedia Commons)



그림 3. 홍대용 초상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 그림 2와 3은 18세기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삽입한 인물 초상화이다. 할리슈타인의 초상화로 알려진 그림은 찾아볼 수 없어, 그의 초상화 대신 독일 출신 예수회 선교사 요한 아담 샬 본 벨의 초상화를 삽입했다. 할리슈타인과 아담 샬 두 사람 모두 중국에 머무는 동안 흙천감에서 일했던 예수회 선교사로 자세한 얼굴 생김새는 달랐을지라도 중국황실의 의복을 입은 모습은 비슷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은 홍대용의 초상화로, 청나라 선비 엄성이 그렸다고 전해진다.

1766년 1월 19일 두번째 만남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두번째 만남은 첫만남 이후 10여일이 지난 19일에 이루어졌다. 사실 홍대용은 첫만남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13일에 이덕성과 함께 남천주당을 재방문했다. 그러나 그 날 할리슈타인은 일로 인해 흙천감에 나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고가이슬은 남천주당을 방문한 재상 대인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하느수 없이 홍대용과 이덕성은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만 잡은 채 발길을 돌려 천주당을 빠져나와야 했다.

이후 19일에 이루어진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두번째 만남은 첫만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었다. 처음 홍대용과 이덕성, 홍명복이 남천주당을 방문했을 때 할리슈타인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그러나 두번째 만남에서는 사전에 약속되었던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지기로부터 19 일 조선 사신들의 재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해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할리슈타인과 고가이슬은 당일 남천주당을 찾은 홍대용과 이덕성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홍대용과 이덕성이 두번째 만남을 위해 남천주당을 방문했을 때 문지기는 할리슈타인과 고가이슬이 지난밤 밤새도록 천상을 관찰하다 아침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 여전히 잠에게 깨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대용과 이덕성은 하는 수 없이 대인들이 침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폐백의 목록을 작성하여 문지기를 시켜 전달하게 했다. 그러나 대인들은 앞전에 받은 폐백에 대해서도 답례를 못했으니 또다른 폐백을 받을 수 없고, 오늘은 몸이 피곤하여 만날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올 것을 부탁했다. 홍대용이 문지기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남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늘은 만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홍대용은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적어 문지기에게 대인들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들은 높은 덕을 흠모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정성이 있거늘, 두 번째 문병에 나왔지만 보지 못하고 무슨 죄를 얻은 듯하여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길이 하직을 고하고 나아오지 않으려 하니 헤아려 용서함을 바랍니다(홍대용 2020, 446)

쪽지를 받아든 할리슈타인은 마음을 바꾸고 홍대용과 이덕성을 만나고자 급하게 밖으로 나왔다. 마침내 내당에 마주앉은 홍대용과 할리슈타인은 둘 다 중국어가 편하지 못해 천주당에 머물고 있던 한 선비의 도움을 받아 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둘은 천주학과 천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홍대용은 천주교가 숭상하는 바에 대해 질문했고, 할리슈타인은 이에 “천주의 학문은 사람을 가르쳐 천주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홍대용 2020, 447). 이어서 홍대용은 자신의 주된 관심사인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혼천의(渾天儀)를 모방하여 만들었지만 문제점이 많았으며 북경에 있는 의기(儀器)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할리슈타인은 관상대에 여러가지 의기들이 있지만 출입통제가 엄격하여 외부인은 출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천주당에 있는 혼천의와 망원경을 보여주며 하나라도 더 배워가고자 하는 홍대용의 열의에 답했다. 날이 저물어 홍대용과 이덕성은 가져온 폐백을 남기며 떠나기 전 할리슈타인과 다음 만남을 또다시 기약하고자 했다. 할리슈타인은 이번달 1월에는 더 이상 한가한 날이 없으니 다음 달에 방문해주기를 부탁했다. 그렇게 남천주당을 떠나오며 이덕성은 홍대용에게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해 속상한 마음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이전에는 천주당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가장 반겨하며 대접하는 음식이 극히 풍부하고 혹 서양국 소산으로 남폐하는 선물이 적지 아니하더니, 근래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보챤을 괴로이 여겨 대접이 이리 낙락하니 통분합니다(홍대용 2020, 453).

1766년 2월 2일 세번째 만남

이덕성과 함께 다시 남천주당을 찾은 홍대용은 할리슈타인과 또다시 내당에 마주앉았다. 이번에도 역시 중간에서 소통을 도와줄 선비를 불렀고 그가 내당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리슈타인은 홍대용에게 조선에 대해 질문했다. 대마도와 부산의 위치에 대해 물었고, 조선과 일본에도 자명종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선비가 내당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덕성과 책력 만드는 법에 대해 짧은 논의를 나누었다. 이후에 홍대용은 할리슈타인에게 부탁하여 서양의 수학책과 붓, 자명종, 나침반을 구경했다. 날이 저물고 홍대용과 이덕성은 돌아갈 채비를 하며 이제 곧 귀국하여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전했다. 할리슈타인은 조금의 서운한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지난번에 받은 폐백에 대한 보답으로 서양에서 건너온 물건들을 홍대용과 이덕성에게 나누어주었다. 최근 서양과 왕래가 적어 약소하게나마 보답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덕성은 왕의 명령을 받아 역법을 자세히 배우고 의기와 서책을 구해 조선으로 가져가고자

했는데, 협조적이지 못한 할러슈타인의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빈 손으로 돌아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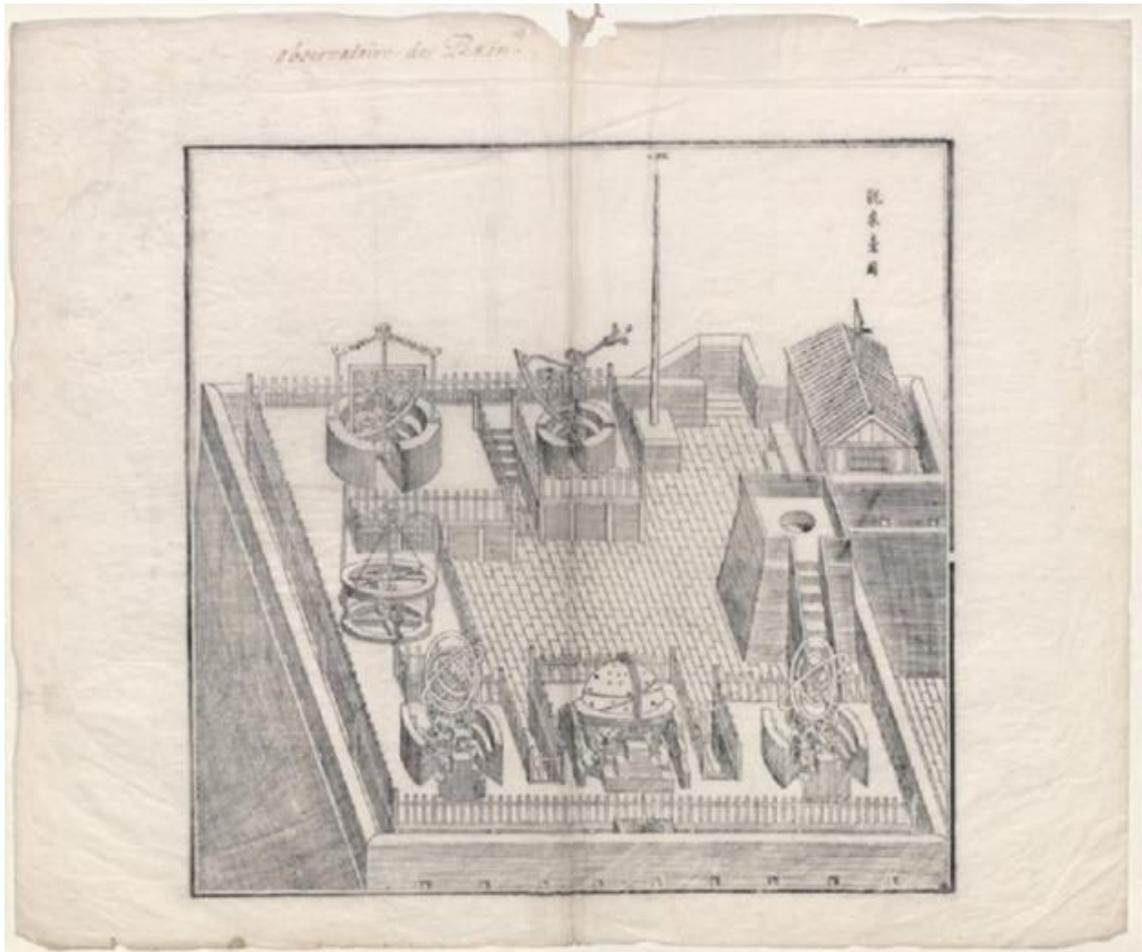


그림 4. 17세기 벨기에 출신 예수회 선교사 페르디난트 페리비스트(Ferdinand Verbiest)가 그린 고관상대 (출처: UNESCO Astronomy and World Heritage Webportal)

만남에 대한 평가

앞서 할러슈타인과의 세 차례의 만남을 자세히 기록해놓은 홍대용의 연행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홍대용의 글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듯이, 두 사람의 만남은 유쾌한 만남이었다기보다 서운함과 불편함으로 가득한 만남이었다. 남천주당이라는 한 공간에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만남은 끝으로 갈수록 즐거움은 사라지고 불편함과 서운함이 가득했다. 애초에 남천주당을 방문한 홍대용의 무리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에 대한 가능한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자 했다. 특히나, 그들은 천문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나라 조정의 흠천감에서 총 책임을 맡고 있던 할러슈타인과 가능한 한 잦은 만남을 희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할러슈타인의 마음은 그들과 같지 못했다. 그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많은 가르침을 전달해주기에 할러슈타인은 청나라 조정일과 남천주당을 방문하는 끊임없는 방문객의 발길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할러슈타인이 애초에 홍대용과 다른 조선 사신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꺼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유럽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그 역시 한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조선과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홍대용 무리에게 조선과 일본에 대해 적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할러슈타인 개인만의 관심사였을 뿐 홍대용과

나머지 사신단들과 함께 공유했던 관심사는 당연히 아니었다. 조선과 일본에 대해 궁금해하는 할리슈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자국과 이웃나라에 대해 친절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었지만 홍대용과 그의 무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바빴다. 다음은 할리슈타인이 북경에서 유럽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으로, 홍대용을 포함한 조선 사신들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Your Eminence also asks what news we have from Japan of the Christian faith. I answer that we have none at all. Although Japan is very close, here there reigns such silence about it as if it did not even exist. Delegates arrive from Siam, Cochinchina, Vietnam, and from Liuqui (or Riukiu), that is, islands between the Philipines and Japan. Koreans arrive each year, but no one has ever come here from Japan. The Koreans say that on a clear day they can see the Japanese mountains, though they know nothing about Japan; nearer to the truth is that they do not wish to say anything, as they are the craftiest people under the sun. Though they will pose questions for an entire hour, they never answer a single one. When they visit our house, and they always visit it immediately when they come to Peking, they first demand ink and a writing instrument. Because none among them knows how to speak Chinese, they communicate in writing. We answer them through

a servant. They often pose well-founded questions about astronomy. If I tell them to leave their questions that I will respond to them via express courier, they do not want to leave a single written character, and often prefer to return. They are strong, muscular, well-built people, and good soldiers. They dress according to ancient Chinese customs, now in robes of peace, now in those of war. It was never possible to subjugate them, yet neither could they unburden themselves of yearly taxes. I would write more if I did not fear interruption by the courier demanding the letter. In Peking, October 6, 1757, at midnight(Saje 2009, 347).

홍대용과 그의 무리가 할리슈타인으로부터 서양의 발달된 천문 지식을 배우고자 했다면, 할리슈타인은 그들을 통해 일본에 대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길 바랐다. 편지 발췌의 첫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예수회의 선교사업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7세기 초 도쿠가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철저한 감시로 인해 모든 종교 의식과 포교 활동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1635년에 들어서서는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사코쿠 칙령이 내려지면서 일본과 서양 간의 왕래는 거의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밖에서는 일본 선교사업에 대해 전해들을 길이 만무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의 선교사업 역시 순항을 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선교 상황과 비교해 비교적 자유롭고 서양과의 왕래도 여전히 유지되었기에, 유럽 예수회는 북경에 있는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통해 일본 선교 상황에 대한 작은 소식이나마 들을 수 있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어도 할리슈타인 역시 신대륙의 전도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로, 일본 상황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홍대용과 다른 조선 사신들을 만났을 때 일본에 대한 소식을 물어 전해듣고자 했지만 편지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시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할리슈타인이 묻는 질문에는 어느 것 하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리슈타인은 이러한 조선 사신들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상했었는지 그들을 하늘 아래 가장 교활한 사람들로 표현하기도 했다.

홍대용과 그의 무리들이 할리슈타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고의적인 의도가 따로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양 문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배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덕성의 경우 관상감 일관으로 서양의 발달된 천문학에 대해 배워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었고 홍대용은 비록 관상감 관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천문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둘 다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던 것이다. 그렇게 할리슈타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궁금증 해결에만 집중하다 결국 할리슈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할리슈타인의

통명스러운 태도에 자신들의 마음도 상한 채 만남을 종료하게 되었던 것이다.

홍대용의 글을 살펴보면 할리슈타인은 만남 내내 끊임없는 조선 사신들의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홍대용과 이덕성이 가진 천문학적 지식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홍대용과 이덕성이 할리슈타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공감해주었다면 이들의 세 차례의 만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 않았을까. 청나라 조정일로 바쁘다고는 하지만 홍대용과 무리가 마음에 들었다면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그들에게 자신의 천문학적 지식을 전해주고자 노력하지 않았을까.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만남은 서로 다른 곳에 관심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서로 헤아려 공감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만남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경이롭다라는 형용사보다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북경에서의 만남을 더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형용사는 없을 것이다. 머나먼 슬로베니아 땅에서 태어나 바다 건너 산 넘어 북경에 도착한 할리슈타인과 일찍이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자신만의 공부를 하다 숙부 덕에 북경 연행에

오르게 된 홍대용, 이 두사람의 만남은 기이하다. 온갖 교통수단이 발달한 오늘날이면 몰라도 먼 옛날 18세기에 슬로베니아 사람과 한국인이 제 3의 나라 중국에서 만났다는 것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이하지 않을 수 없다.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었기에 둘의 만남은 굉장히 귀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았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한명은 선교에 다른 한명은 천문학에 관심을 두어 둘의 만남 속에는 공감과 즐거움보다는 불편함과 서운함이 더 많았다. 홍대용이 유리창에서 마음 맞는 중국 선비들을 만나 조선에 돌아와서도 그들과 계속 연을 이어갔던 것처럼, 만약 할리슈타인과도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천주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물론 조선에 돌아와서도 그 인연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둘의 만남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어쩌면 18세기 우리나라 역사에도 서양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흔적이 남게 되지 않았을까.

한 개인의 인생이 무수한 만남들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제사회 또한 무수한 만남들의 연속으로 형성되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만남들 중에는 협력과 평화를 이끌어낸 만남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움과 전쟁을 부추기는 만남들로 있었다. 나와 다른 타자를 만나 소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무수한 만남들이 결국 끝에 가서는 전혀 다른 결실을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아마도 만남에 참여한 나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함은 물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둘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유무일 것이다. 18세기 이루어진 할리슈타인과 홍대용의 만남에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들이 많았지만 이 만남을 참고삼아 앞으로 한국은 서양은 물론 국제사회 안의 다른 타자들과 더 좋은 만남과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조금 더 집중한다면 그들과 한층 더 나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가톨릭인터넷굿뉴스. 2015. “GOODNEWS 자료실 - [순교] 북경의 남천주당과 우리나라.”
http://pds.catholic.or.kr/pdsm/bbs_view.asp?num=84&id=151532&menu=4831.
- 김태준 지음. 1988. 《홍대용》. 서울: 한길사
- 박성래. 2003. “동양에서 처음 地轉說 주장한 홍대용.”
- 신익철. 2013.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한국학문학회> (51): 445-486.
- 온누리 2000 선교본부 외. 2015. 《와이미션?》. 서울: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 홍대용 지음; 정훈식 옮김. 2020. 《주해을병연행록》. 서울: 경진출판.

홍대용과학관. <https://www.cheonan.go.kr/damheon.do>.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Baker, Donald L. 1982. "Jesuit Science through Korean Eyes".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 207-239.

Cieslik, Hubert. 1954. "Early Jesuit Missionaries in Japan 1 - St. Francis Xavier."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Jesuit Conference of Asia Pacific. <https://jcapsj.org/about-us/our-history/>.

Južnič, Stanislav. 2008. "Letters from Augustin Hallerstein, an eighteenth century Jesuit astronomer in Beijing". *Journal of Astronomical History and Heritage* 11 (3), 219-225.

Kim, Minho. 2017. "One from the East, One from the West: The Uneasy Encounters between Hong Tae-yong and Augustin Hallerstein in Mid-Eighteenth Century Beijing." *Acta Koreana* 20 (2), 501-528. muse.jhu.edu/article/756477.

Ledyard, Gari. 2011. "Hong Taeyong and His Peking Memoir". *Korean Studies* 6 (1), 63-103.

Midzunoe, Ikuko. 2005. "Christian and Anti-Christian Tract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In Francis Britto's All About

- Francis Xavier. Retrieved from
<http://pweb.cc.sophia.ac.jp/britto/xavier>.
- Modelski, George. 1978. "The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Stat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0 (2), 214-235.
- Morris, James Harry. 2018. Rethinking the history of conversion to Christianity in Japan, 1549-1644.
<http://hdl.handle.net/10023/15875>.
- Saje, Mitja. 2015. "The importance of Ferdinand Augustin Hallerstein for cultural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China and Korea." *Asian Studies* 3 (2), 13-32.
- Saje, Mitja, ed. 2009. *A. Hallerstein–Liu Songling: The Multicultural Legacy of Jesuit Wisdom and Piety at the Qing Dynasty Court*. Maribor; Ljubljana: Association for Culture and Education Kibla; Arhiv Republike Slovenije.
- Shin, Ik-Cheol. 2006. "The Experiences of Visiting Catholic Churches in Beijing and the Recognition of Western Learning Reflected in the Journals of Travel to Beijing."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9 (4), 11-31.
- UNESCO Astronomy and World Heritage Webportal.
<https://www3.astronomicalheritage.net/>.

Vishnevskaya, Elena. 2020. “The Early Modern Jesuit Mission to China: A Marriage of Faith and Culture.” *Asian Philosophies and Religions* 25 (1), 38-42.

건륭과 카스틸리오네의 건축학개론 원명원

박진희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청조에 태어나 시대의 원림들을 풍미하고, 점차 기울게 된 청조의 자취를 따라 함께 그 모습을 잃어버린 낙원이 있다. 원명원은 중국 땅 안의 이름난 강남(江南)부터 지구 반대편에서 한달음에 건너온 궁전까지 품을 줄 아는 황제의 정원이다. 특히 원명원 내 장춘원에는 유럽식 궁전을 본떠 만든 ‘서양루’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 서양루는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지어질 수 있었다. 카스틸리오네는 청의 궁정화가로서 약 50년 동안 선교를 이어간 이탈리아의 화가이며, 청나라 황제 아래라는 제약된 환경 속에서도 선교와 예술 활동에 피력한 인물이었다. 그가 전하는 예수회의 복음은 일방향적 전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청의 문화예술을 이해하며 그 맥락 속에서 청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려 했다(김지인 2016). 그가 유럽에서 공부했던 미술 기법을 청의 정서와 문화예술과 합치어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두 문화권이 서로 만나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일은 두 물감을 짜서 섞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학에서는 두 문화가 만나서 일으키는 작용을 ‘문화 접변’이라 정의한다. 문화 접변의 결과에는 문화 융합, 문화 병존, 문화 동화 등이 있는데, 이 결과들은 문화 접변의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가 만나는 과정이 자발적인지 혹은 비자발적인지, 두 문화가 일방적인 문화 접변을 경험했는지 혹은 상호적인 문화 접변을 경험했는지, 문화 전파를 통해 들어온 새 문화가 기존 토착 문화와 어떤 관계성을 지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과정에 자리잡는다. 문화 융합, 문화 병존은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 유지되는 반면, 문화 동화는 한쪽의 문화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앞의 두 결과와 구별된다(두산백과).

건륭제가 서양루 축조 당시 서양의 건축 기술보다는 건축 예술, 건축 미학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서양루의 탄생을 문화 접변의 맥락 속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회에 안고 들어온 서양의 건축 예술이 중국의 토착 건축 예술과 맞닥뜨렸다. 제2차 아편전쟁의 여파로 원명원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1차자료와 2차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는 원명원의 본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서양루는 기본 골격은 서구식 건축에 기초하면서도 일부 요소는 중국의 전통 재료와 기법을 차용하여 독특한 조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본 글의 뒷부분에서 서양루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나, 이렇게 독특한 조화의 형식은 당시 서양루 건축을 도맡았던 예수회의 선교 방식과 건륭제의 문화 수집 방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에서 논하였던 문화 접변의 맥락에서 우리는 서양루의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났을 때, 그것도 각자 훌륭히 변성한 두 문화가 만났을 때, 격렬한 저항 없이 두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바로 한 세기 전, 그것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17세기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 중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예술과 문화를 전파하던 시절에, 서양 역법이 중국 사회에 - 특히 중국의 천하질서에 - 큰 파장을 일으키자 양광선(楊光先)은 『부득이(不得已)』(1665)라는 제목의 상소를 황제에게 올려 반기독교 운동을 전개한다(안경덕 외 2013, 16). 이후 반기독교 논쟁에 불씨가 붙어 이를 선교사, 예수회 신부인 천문학자의 반론이 이어졌고, 결국 서양 역법이 정확하다는 것에 밝혀져 양광선은 흙천감감정(欽天監監正)에서 파직되었다. 이 논쟁 과정은

치밀한 계산의 결과로 종식되었으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실 양광선이 처음 쏘아 올린 ‘부득이’라는 제목에 놓여 있다. 양광선은 그의 글 맨 앞 머리말에서 책 제목이 ‘부득이’라 쓰여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대부들은 세상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파에 휩쓸려 온 백성을 사교(邪教)의 후예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또한 나라에 예로부터 내려오는 임금 · 어버이 · 스승을 없애고 있으니, 이 (바로잡는) 일은 정말 그만둘 수 없다. (중략) 이 지경인데도 그만둘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을 그만둔다면 세상에 그만두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나 광선이 부득이하야 나선 까닭이다. 자여(子與)가 한 말과 비교해볼 때, 마음은 더욱 아프고 상황은 더욱 급박하니 이해를 따질 겨를이 어디 있을 것이며, 호랑이와 싸우고 강을 건너는 것을 어찌 헛되다 하겠는가! 이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부득이不得已’라고 하였다(양광선 1665; 안경덕 외 번역, 40-41).

양광선도 그의 상소가 이해를 따져 쓴 것이 아닌, 당장 위협받고 있는 중국 안의 고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쓴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분명히 기존 중국 질서에의 도전처럼 느껴진 예수회의 물결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는 광선의 일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일렁이기 시작한 중국 사회 내에서 겪은
멀미를 하루 빨리 잠재우는 것만이 그의 목표였고, 그는
'부득이'하게 붓을 든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화 충돌은 문화 융합, 문화 병존보다 훨씬
단순한 일차작용이다. 문화 융합 또는 문화 병존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파악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 이룩할 수 있다.
물론 두 문화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문화 양상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면, 인공적인 토의의 장 없이도 자연스레 두 문화가
합쳐질 수 있긴 하다. 다만, 문화 충돌 또는 문화 동화가
야기하는 문화 제국주의의 폐해는 상대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가 저지르기 쉽지 않은 일이다.

천하의 청을 평정하는 황제로서, 건륭제는 천하밖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황실 안에 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안에서 중국 고유의 건축 미학을 잊지 않으며 서양루를
완성하는 카스틸리오네의 역량은 문화 충돌의 위험을 잊게 한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을까? '선교'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청 황실의 문을 두드린 카스틸리오네는
어떻게 그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건륭제의 마음을
열었을까? 기존의 문화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선교사들을
적극 등용하여 황실 정원에 작은 유럽을 세운 건륭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아름다운 서양루의 모습에 가려진 그들의 저의를
복원하는 일은 서양루를 복원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미지의

하늘, 미지의 땅, 미지의 사람이 만나 문화 융합을 이룬 초기의 사건은 21세기 세계정치의 판 위 질서 충돌에게 문화적, 예술적, 선교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원명원, 장춘원, 서양루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앞서,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원명원, 그 안의 장춘원, 그 속의 서양루의 미학에 대해 천천히 쌓는 것으로 글을 시작하려 한다. 지금은 많이 소실되어 생생하게 그릴 수 없지만, 여러 자료의 묘사와 그림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원림의 물상을 떠올리는 것이 이번 목차의 목표이다.

본 글에서 칭하는 ‘원명원’은 가장 처음에 지어진 원명원, 장춘원, 기춘원의 세 곳을 모두 합치어 부르고 있다. 가장 처음에 지어진 원명원은 위 ‘원명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원명원 본원’으로 부르겠다.

원명원 안의 장춘원

원명원은 강희제 때 처음 지어져, 그의 아들 옹정제 때를 지나 건륭제 때 전폭적이고 다채로운 확장을 마치게 된 청나라 최고의 황실 정원이다. 청나라의 황제들은 이 아름다운 원림에서 초기에는 여름 더위를 피하는 피서산장으로

방문하였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들은 일년의 대부분을 원명원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18세기의 청나라는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 있었다. 원명원은 그 무대가 되는 화려한 황실의 거처로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Li 2-3).



그림 1 (출처: China Heritage Quaterly)

원명원은 ‘둥글 원(圓)’, ‘밝을 명(明)’, ‘동산 원(園)’으로 이루어진 이름으로, ‘원만하게 비추는 원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원명(圓明)’의 개념은 ‘완벽하게 아름다우면 진정으로 선한 경지’를 의미하는 불교 용어이다. 싯다르타 태자를 낳아 기쁜 첫 번째 부인이 태자에게 “모든 지혜를 두루 밝힐(圓明一切智)” 분이라고 말했다 전해진다(왕룡주 2015, 42-43). 강희제와 옹정제가

불교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좋은 이름이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원림이 전부 원명원의 면적에 해당한다. 그림 1에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을 그어 4등분 한다면, 가장 먼저 오른쪽 하단 부분이 기춘원에 해당한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을 약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장춘원,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원명원 본원이다.

1749년, 건륭제는 원명원의 건물, 경치를 확장하기 위해 ‘장춘원(長春園)’이라 이름 붙인 원림을 동쪽에 추가했다(Li 13). 건륭제는 중국 각지를 여행하며, 마음에 드는 원림을 발견하면 화가에게 명하여 원림의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리고나서 그 원림의 그림을 그대로 장춘원에 재현했다(이은상 2021, 252-253). 마치 작은 보물상자에 소중한 보물을 모아두듯, 건륭제는 그가 만나는 아름다운 원림들을 장춘원에 그대로 복제하곤 했다. 이는 강남(江南)의 이름난 원림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한창 유럽의 분수에 매료되었던 건륭제는, 예수회 선교사들에게 유럽식 궁전까지 짓게 한다.

장춘원 속의 서양루

서양루는 장춘원의 북서쪽에서 북단 전체를 꽉 채우며 자리잡고 있다. 이은상(2021)에 의하면, 정확히 “건륭제는 장춘원 북쪽

모퉁이에 있는 길이 320m, 너비 85m의 좁고 길쭉한 땅에 유럽식 궁전인 서양루를 건설했다.”고 한다. 그 안에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베르사유’와도 같은 유럽식 궁전부터 유럽풍 설계의 미로 건축물과, 건륭제가 좋아했던 유럽식 분수지도 지어졌다.

‘서양루(西洋樓)’의 ‘누(樓)’는 중국 원림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건축 양식의 일종이다. 구릉과 호숫가에 지어지며 주로 개방형 창호를 택함으로써 자연 풍경을 최대한 만끽할 수 있는 누는 원명원 건축에 자주 쓰인 건축 양식이다(왕룽주 2015, 66). 탁 트인 서양루에서 즐기는 중국의 자연 풍경은 건륭제의 마음을 제법 사로잡았을 것이다.

건륭제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이탈리아의 바로크풍 구조 건물과 분수지 등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선교사들이 참여하였고, 카스틸리오네는 그 중에서도 작업을 주요하게 도맡았다. 건륭제는 카스틸리오네에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궁전과 분수 그림을 주문하였고, 그 그림은 원명원 안에 새로운 스타일의 정원, 즉 서양루를 축조하기 위함이었다(Barme 1996, 122-123). 건륭 12년경에 시작된 서양루 축조는 건륭 48년경에 마무리되었다.

서양루는 단순히 유럽풍의 건축물을 그대로 베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로, 해안당은 분수를 위한 유압 펌프를 가지고 있는 서양루의 가장 큰 구역이 있다. 이

분수에는 놀라운 요소가 숨겨져 있다. 바로 사람의 몸을 하고 동물의 머리를 가진 열두개의 조각상들이다. 둥근 분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상 속의 조각상들은 동양의 시간을 관장하는 십이지신의 설화에서 기원한 것이다(Siu 75). 그림 2를 참조하면 정 가운데의 분수를 둘러싸고 있는 수묘한 조각상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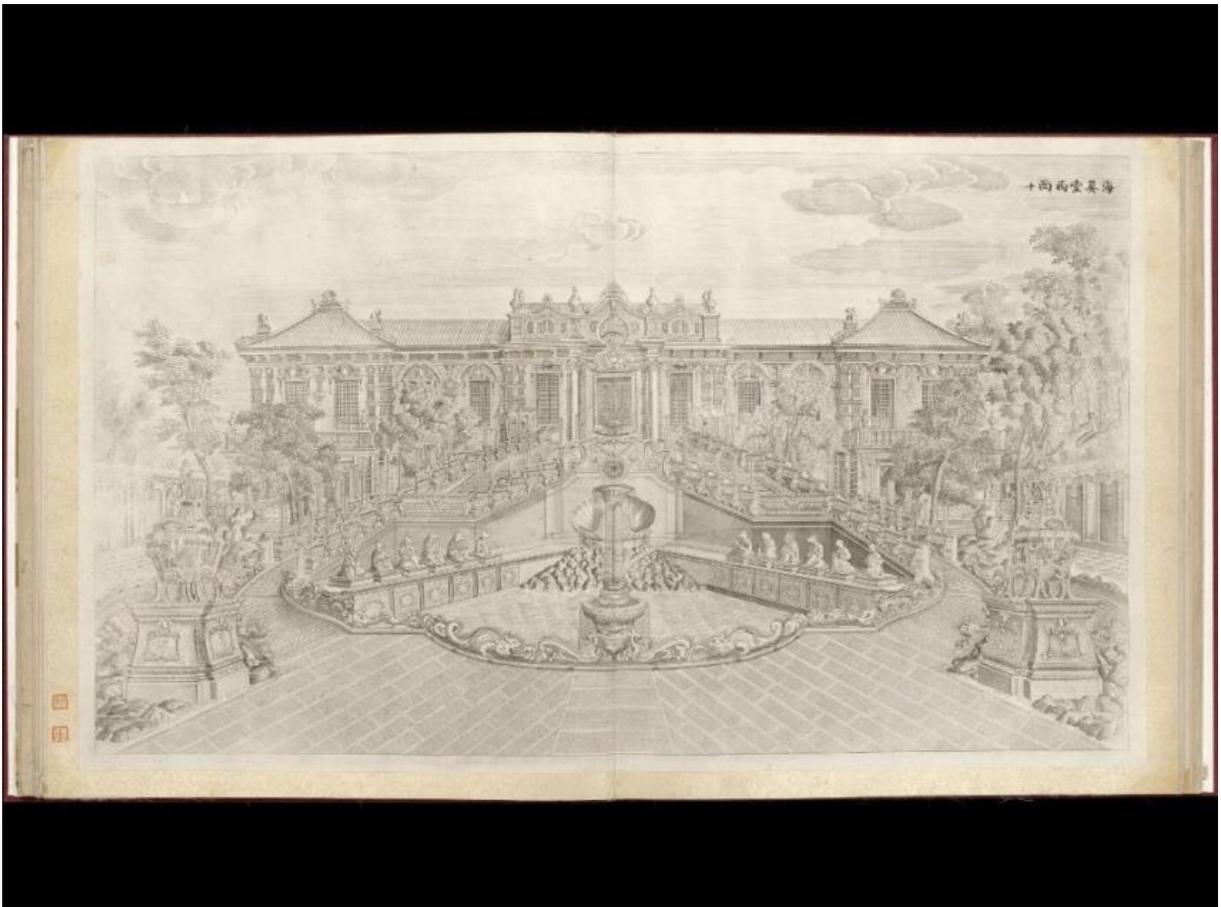


그림 2 (출처: Yi Lintai)

이외에도 담홍색 벽돌 담장, 빛깔 고운 유리, 중국풍 장식품과 휘장, 태호석과 죽정, 중국식 황색, 남색, 혹은 녹색

기와 등 주요한 건축 요소들은 여전히 중국의 것을 견지하고 있었다(왕룽주 2015, 129-130). 또한, 실제로 서양루를 축조할 당시에는 예수회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예술가들도 함께 협업하였는데, 그렇기에 원명원은 중국의 예술가들과 서구의 예술가들 사이의 공동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iu 1988, 77).

건륭제와 원명원

건륭제의 청과 세계 인식



그림 3 (출처: Royal Academy Arts)

강희제의 아들 옹정제, 그리고 그 옹정제의 아들인 건륭제는 찬란했던 청을 이끌었던 마지막 황제로 알려져 있다. 건륭제 이후의 청은 서구의 세력에 의해 급속도로 멸망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건륭제 시기 확장에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원명원은 청의 흥망성쇠와 그 시기를 함께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건륭제의 무대이다.

‘천하사상’, ‘천자’ 개념의 위엄에 압도되어 종종 사람들은 청 황조 역시 그들이 아는 모든 지역의 그들이 손에 넣어야 한다고 착각하곤 한다. 건륭제는 번성한 청을 이끌었고 그의 통치권이 매우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경계선은 조금 더 명확했다. 건륭제는 그가 알고 있는 중국 밖 세상에 대하여 그 자신이 지배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네덜란드, 인도, 러시아,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을 중국과 엄연히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 아래 모든 나라가 제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칭기즈칸, 율리우스의 것과는 사뭇 다른 인식이다. 건륭제의 시기는 전 세계 국경이 정해지고 있던 시기이며, 건륭제는 “광대한 사해구주에서 중국은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 부친의 말을 기억할 만큼 그의 국경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Elliott 2010, 277-288).

이러한 건륭제의 국경 인식을 고려하였을 때, 건륭제가 보여주는 서양루 축조는 더욱 흥미로워진다. 그는 유럽을 중국

세계에 편입하고자 장춘원에 복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왜 그는 중국 국경 밖의 세계, “외국”의 건축물을 황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거처인 원명원에 복제했을까? 오늘날의 21세기처럼 세계화가 완연하게 진행되지 않은 17-18세기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청 황제가 바다 건너 먼 유럽의 문화를 숙고 없이 들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건륭제가 중국 영토 안의 원림을 복제하는 것에 나아가 서양의 정원까지 탐낸 이유는 다음 차례에서 바로 이어지는 건륭제의 ‘문화 수집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 수집가, 건륭제

건륭제는 단순히 정치에만 몰두하는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청 황조 후기에 가장 다양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후원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Sommer, 136). 그는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한 수집품을 가득 수집하였는데, ‘건륭풍’이라는 말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디자인의 물건을 가리킬 정도이니 그의 수집 스타일을 알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수집 철학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수집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수집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대의 유물들은 오늘날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오늘날 만들어진 것들이 고대의 골동품보다 더욱 화려하다. 그러나 화려한 장식보다 소박함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누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건륭제)

건륭제가 남긴 위와 같은 말을 통해 우리는 수집 자체에 대한 건륭제의 진심을 알 수 있다. 그가 이토록 온세상의 보물, 작품, 거기에서 나아가 건축물까지 남김없이 모은 이유는 그의 미적 감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화려한 미학은 건륭제의 청 황제로서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즉 건륭제가 그의 수집품을 단순히 ‘아름다워서’ 열심히 모은 것만은 아니라는 소리다. 건륭제가 그토록 세계의 보물에 눈독을 들인 이유를 그의 지위, 출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치어 만들어진 그의 독특한 아비투스(habitus)의 측면에서 차례대로 분석해보겠다.

첫째, 그는 ‘황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강희제, 옹정제도 그러하였고, 사실상 중국의 역사에 기록된 ‘황제’라면 모두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건륭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황제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택하는 ‘문무(文武)의 겸비’를 중요시 여겼다. 강희제 역시 그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쁨과 동시에 말 타기와 사냥을 좋아하는 황제였고, 옹정제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황실 업무에

몰두하는 행정적인 지도자였다(Li 5). 건륭제는 정치학, 군사학뿐만 아니라 시, 예술,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지식에 통달하여 그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둘째, 건륭제는 ‘만주족’ 출신의 황제였다. 만주족 출신이 세운 청 나라는 이전 중국의 왕조들과는 그 근본을 달리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기에, 다양한 민족에 대한 이해와 문화에 대한 섭렵이 필요했다. 건륭제는 그를 둘러싼 여러 소수 민족의 문화를 잘 이해하여 그 스스로 적극 체험하고 수용하는 황제였다. 장춘원 내에 이름난 원림을 복제하는 것 역시 소수 민족 문화 수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주족 출신의 황제로서 그가 지니게 된 독특한 아비투스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건륭제는 다민족국가를 안고 있는 강력한 황제였다. 세계의 다양하고 진귀한 물품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것을 손에 넣을 능력을 갖춘 건륭제는 국내 예술에 제한된 채로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된 일반 평민과는 확연히 다른 안목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건륭제는 동양에서 볼 수 없었던 서양식 회화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서양식 회화는 동양식 회화와 다르게 피사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적인 색채, 원근법, 음영 등 동양의 예술에서 선물받지 못한 진실성의 매력을 건륭제는 일찍이 알게 되었다(Elliott 2010, 255).

이외에도 유럽의 궁전과 분수를 알게 되어 그것들에 매료되거나, 유럽의 시계 기술에 푹 빠져 원명원에 시계공들을 들일 만큼, 건륭제가 자란 배경은 건륭제가 왜 서양루 축조를 바라게 되었는지 짐작하게 해준다. 그의 취향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복잡하고 다각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건륭제는 서양루를 그렸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명원은 건륭제의 미적 정취를 구현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미학은 아름다움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를 알고 아우르는 황제의 세계정치적인 면모를 내포하고 있다. 이 면모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한다면, 건륭제의 이러한 ‘문화 수집’의 경향은 역사 속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개념화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크로슬리(Pamela Kyle Crossely)가 분석한 흥미로운 분석 도구를 들어보자. 그에 의하면, 유라시아에 걸친 보편제국의 군주들이 보여주는 문화적 행위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백과사전, 윌림 또는 ‘호기심의 방(curiosity cabinet)’ 등 세계를 축소화하여 그들의 손아귀에 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Crossely 1999; 이은상 2017, 29). 건륭제의 원명원, 특히 장춘원의 내부가 그러했다. 이름난 윌림을 복제하여 그는 그의 손아귀에 미니어처 정원을 모을 수 있었고, 서양루 역시 그러한

수집품 중 하나였다. 이 수집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세계를 손 안에 넣은 군주’, ‘원한다면 언제든지 유명한 건축물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군주’ 등 권력과 직결되는 군주의 강력함이다.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는 ‘문화 수집’의 개념을 통해 수집가가 구축하는 자기, 문화, 진정의 배치 전략을 설명한다.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가득 모으듯이, 이러한 수집은 한 사람이 소유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라는 이야기다(Clifford 1988, 218). 이은상(2017)은 크로슬리뿐만 아니라 클리포드의 ‘문화 수집’ 개념을 통해 건륭제의 장춘원을 분석한다. 이은상은 “문화상징물들을 수집하여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통치자는 복제하여 재현한 대상들이 표상하는 지역들에 대한 지배를 공포하게 된다”는 결론으로 건륭제의 문화 수집을 이해한다.

카스틸리오네와 원명원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예술선교

카스틸리오네의 청나라 궁정화가 생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카스틸리오네가 어째서 선교사로서 청나라까지 당도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수회의 선교사로서 청을 방문한 카스틸리오네의 배경은 그가 보여주는 예술 선교의

중요한 성격을 설명하며, 이 설명은 서양루 축조에 크게 기여하였던 카스틸리오네의 심상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회는 16세기에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지키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도전받은 가톨릭교회의 위상을 돌려놓자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수도회 조직이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예수회는 그 어떤 수도회 조직보다도 선교에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성지로 모일 것이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심적인 선교를 바탕으로, 예수회는 반종교개혁과 트레نت 공의회와 종교 미학을 잘 활용하여 선교의 도구로써 활용했다. 예수회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아시아 지역까지 뻗어나갔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유럽의 종교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톨릭교회의 복음을 전하고자 아시아로 왔고, 바로크 양식이 내포하는 가톨릭교회의 신학적 상징을 선교지에서 중요한 선교의 아이콘으로 사용하였다(김상근 외 2009, 206-212).

이렇게 예수회가 아시아에서 펼친 근대적 선교 방식을 ‘적응주의’, ‘문화순응’, ‘토착화’ 등으로 부르는데, 이 용어들은 모두 지역 문화에 복음을 침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혜경 197). 글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스틸리오네 역시 청의 토착 예술을 이해하고 공부하여 문화 예술의 맥락 속에서 청나라 사람들을 이해했다. 이러한 토착 문화에 대한 이해는 그의

선교가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선교 방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 지역에 알맞게 적용하여 전하는 것, 예수회의 선교 방식이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카스틸리오네의 그림은 이와 같은 예술 선교를 청나라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실천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카스틸리오네의 궁정화가 생활

카스틸리오네는 청에 당도한 궁정화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우수한 화가였다. 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강희제와 달리 건륭제는 예수회 선교사들과 개인적으로 절친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런 황제와 가까이 친분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두 명의 인물 중 한 명으로 카스틸리오네가 유력할 정도이다(Elliott 2010, 289).

카스틸리오네는 그가 유럽에서 공부했던 서양화법과 서양식 회화 기법을 청 황제들에게 선사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기하학적 사실성에 초점을 두어, 현실적인 색채와 원근법, 음영법을 적용한 실감나는 그림은 청나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예술이었다. 그러나, 카스틸리오네는 서양화법을 그대로 그림에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림에 적절하게 동양적 요소를 섞어, 어딘가 신비롭고 색다른 느낌을 주는 동서양의

조화를 카스틸리오네가 그려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4는 카스틸리오네가 그려 낸 그림이다. 아이들과 하인들에게 둘러싸인 건륭제의 모습을 서양화법과 동양적 요소를 조화시켜 화려하게 그려 내고 있다. 건륭제와 사람들의 모습은 원근법과 사실적 채색을 활용하여 보다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반면, 주위를 채우고 있는 자연물의 표현은 동양의 산수화법을 담아내 친숙한 느낌을 준다.



그림 4 (출처: The Palace Museum)

비교적 자유롭게 원명원을 드나들며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의 조화를 탐구하는 카스틸리오네였지만, 청나라 황제 아래에서 일하는 궁정화가라는 점이 오히려 동서양 미술 조화에 제약을 두기도 하였다. 프랑스 예수회 화가이자 청나라에 선교사 역할로 오게 된 장 드니 아티레(Jean Denis Attiret)는 그가 유럽으로 쓴 편지 ‘A Particular Account of the Emperor of China’s Gardens near Pekin’에서 궁정화가로서의 삶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적어 두었다. 한번 궁정화가로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다시 청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다(Attiret 1742, 66). 이는 청나라 내부의 국가적 기밀이 바깥으로 누설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청나라 황실 안에서 생활하였으며, 일반 남자 하인들은 출입이 불가했던 원명원에도 드나들 수 있었다(Thomas 2009).

또한, 서양화법은 황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황제의 얼굴을 그릴 때, 본디 중국은 황제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카스틸리오네는 그림자를 지우라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야만 했다(Musillo 2006, 173).

왜 카스틸리오네는 서양루를 그렸나?

카스틸리오네가 확실히 유능한 궁정화가였던 것은 맞지만, 그의 실력만큼 그의 화가 생활이 안락하고 쉬웠던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 온 궁정화가들은 공식적인 봉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중국 화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화가 생활에의 제약이 패널티가 적었지만, 카스틸리오네 정도의 지위라면 그의 작품으로 황제를 만족시킬 줄 알아야 하는 정도의 책임은 지니고 있었다. 선교를 위하여 청나라에 온 카스틸리오네의 선교사 생활이 잘못된 그림 한 폭에 해고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Musillo 2006, 31-32). 물론 카스틸리오네는 청에서 명예롭게 선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청나라 황제

아래에서 그리는 그림은 결코 쉬이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궁정화가 생활을 지속하던 그에게 건륭제는 서양루 축조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카스틸리오네는 실력 있는 화가였지만 건축 분야에서는 아마추어에 불과했다. 궁정화가로서 거역할 수 없는 황제의 명이기에 카스틸리오네는 수십년을 걸쳐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희대의 정원을 축조했다. 그것도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독특한 인상의 황실 정원을 말이다. 나는 가능성의 열쇠를 청 황제 아래라는 하드-파워적 영향력과 예술신학의 소프트-파워적 영향력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려 한다.

카스틸리오네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 출신 궁정화가들은 제약적인 환경 아래에서도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하나님의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서양화법의 성격이 그러했다(김지인 2016). 이 영광을 위해 궁정화가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회에서 배운 예술 지식을 잊지 않으며 청나라의 토착 미술과 적절히 조화까지 이루는 적응주의 선교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서양루 축조는 화가로서 청나라로 향한 선교사들에게 새로운 과제였다. 그들은 건축 아마추어였으며, 카스틸리오네는 자신이 상상하고 그린 유럽풍 궁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실현하며 여러 기술자와 함께 서양루를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된 서양루가 건륭제의

문화 수집에서 나아가 선교사들이 바라는 선교의 효과까지 이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건륭제는 오로지 유럽풍 궁전의 외형을 수집하고 싶어 했으며, 사실 그 궁전을 움직이는 서양의 과학 기술에는 큰 방점을 두지 않았다. 이는 건륭제가 과학 기술을 등한시했다기보다, 어쩌면 17세기 중국 내 반기독교 논쟁의 기억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일수도 있다. 건륭제는 예수회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중국인들의 기독교를 받아들여 믿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Lettre edificantes, 22 (Etat de la religion en 1783): 219f.; 김지인의 번역 참고).

완공된 서양루의 얼굴

서양루의 초상

건륭의 문화 수집가적 성향과 예수회의 문화 선교 방식 간의 적절한 궁합은 어쩌면 원명원 내 서양루 뿐만 아니라, 건륭이 관심을 보이는 문화 수집품이라면 무엇이든지 원명원 안으로 들였을 것이다. 그 문화 수집품들 중 한 가지가 유럽식 분수와 궁전이었던 것이고, 궁정화가 카스틸리오네와 천문학자 미셀 브누아, 그리고 많은 협업가들이 서양루를 완성했다.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가 각자의 연유와 사정으로 완성해 낸 서양루는 지금도 그 잔해에서 어렴풋이 볼 수 있듯, 동양과 서양의 건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티레의 편지에서도 읽을 수 있었듯이, 건륭제는 카스틸리오네와 예수회 공정화가들의 실력을 높이 샀지만 그것이 청에서 고수해온 중국의 문화 유산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서양루 축조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유럽식 궁전과 분수를 원명원에 복제한다 하여도, 그것이 청의 황제인 자신과 원명원을 드나들 수 있는 신하들의 눈에 속들도록 이리저리 손을 볼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이다.

카스틸리오네와 설계가들이 이러한 건륭제의 성격을 몰랐을까? 건륭이 아끼던 공정화가 카스틸리오네는 건륭의 취향도, 그리고 청의 문화 예술적 미학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카스틸리오네와 예술회의 문화 선교 방식은 일방적 문화 전달이 아닌, 토착 예술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건륭 아래에서 카스틸리오네와 설계가들이 동양과 서양의 건축 미학을 적절히 혼용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아래의 그림 5, 그림 6은 각각 서양루 내에서 동양과 서양의 요소가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그림 5는 대수법(大水法)으로, 서양루 내에서 주요한 분수 경관을 이루고 있다. 앞쪽에는 국화 모양을 한 분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냥개가 동양의 노루를 쫓는 모습을 하고 있는 분수대가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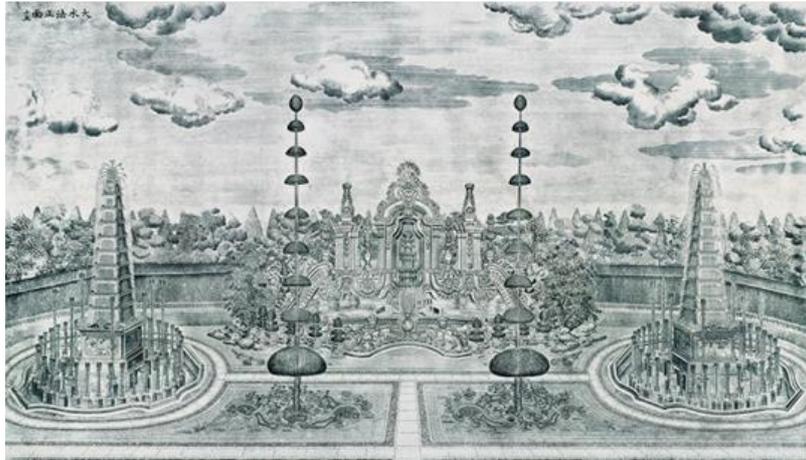


그림 5 (출처: 원명원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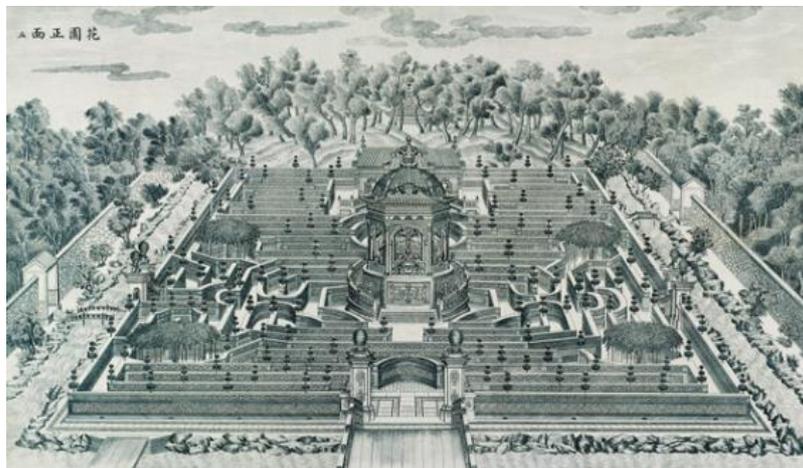


그림 6 (출처: 원명원 웹사이트)

그림 6은 서양루에서 그나마 현대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황화진(黃花陣)이다. 황화진의 앞의 미로를 지나 중앙부에

들어서면 동양과 서양을 적절히 섞어 놓은 듯한 정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치 중세 유럽의 귀족들이 더위를 식히는 석조 파빌리온을 닮기도 했고, 뽀족하게 팔각형의 지붕을 씌워 고즈넉한 정자만의 매력을 사수하는 동양의 미감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외에도 앞의 그림 2에서 보여준 해안당의 십이간지 동상 등 서양루 곳곳에서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 완성되었다. 당시 그려진 서양루의 완공 모습과 오늘날 남아 있는 서양루의 잔해를 감상하면, 시누아즈리(Chinoiserie)와 외로페엔느리(Européenerie)의 신비로운 감각이 오묘한 건축의 묘미를 보여준다.

건륭제는 완공된 서양루에서 휴식, 업무, 연회 등 다양한 일상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완공된 서양루도 건륭제가 즉위부터 당장 마음먹었던 일은 아니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건륭제는 서양루는 고사하고 원명원에 새로운 건축물을 더하거나 원명원을 변형할 계획을 딱히 품고 있지 않았다. 원명원에 대한 건륭제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자료들 중 하나인 “Later Record of the Garden of Round Brightness”(1770)에 의하면, 건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이 원명원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까 봐 종종 두려움에 휩싸였고, 초기에 새로운 정원을 건축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건륭제는 거절했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오래된

정원에서 머무르던 중, 그는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황제에게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 주는, 아버지의 것이 아닌 황제 자신의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Zou 2005, 55).

건륭제의 서양루는 단순히 그의 문화 수집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그만의 프라이드(pride)를 거친다. 그는 원명원을 놓고 쉬는 피서산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의 선조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원명원을 잘 관리하고 싶어했다. 강남의 이름 난 원림을 모아 둔 작은 축소판인 원명원에 유럽식 정원을 데려다 놓은 것은, 선조들이 열지 못한 원명원 내지는 청의 다음 차원을 열고 싶어했던 것이 아닐까?

서양루의 잔상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의 신비로운 합작을 모든 이들이 기분 좋게 감상하는 것은 아니었다. 건륭제의 명을 받들어 서양루를 디자인한 카스틸리오네의 활동을 ‘유럽의 형태를 중국의 제국적 취향에 맞추어 변형’해주는 행위로 보는 편견의 눈총들도 있었다. 이탈리아, 고딕, 중국이 모두 섞인 혼종이라고 조롱하는 등이 바로 그 예시였다(Finlay 2007, 184). 서양루를 실제로 보았건 보지 않았건,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당대의 이런 보수적인 비판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유럽의 건축물을 중국

현지의 문화와 조화롭게 구성하여 어느 정도 변형한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새로운 심미적 균형을 발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사실 건륭제에게만 유일하게 맡겨졌었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유럽인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탄생한 건축 양식에 십이간지, 국화, 노루를 엮은 도전을 충분히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루는 18세기부터 21세기 지금까지도 원명원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이자, 꼭 방문해야 하는 관광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은 소실된 이 건축물을 왜 그렇게 찾느냐면, 그것이 단지 ‘동양에 있는 서양식 건축물’ 또는 ‘동양적 요소를 담고 있는 서양의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축의 조각이 되었기 때문이다. 건륭제의 시기에든 그러하였든, 고도의 심미적 우수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지구 반대편 세상의 건축물을 마법처럼 옮겨 놓은 서양루가 신비로울 뿐이다.

또한, 서양루는 청 시기 건륭제 집권의 원명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카스틸리오네가 대표하는 예수회가 남긴 복음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카스틸리오네는 청 황제 밑에서 궁정화가로 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과 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고 믿는 선교사였다. 그림도, 건축도 건륭제의 요구에 맞게 잘 완성한다고 한들 당장 눈

앞에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이라는 능력을 하나님의 소명처럼 여겨,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미지의 땅에서 그 뜻을 묵묵히 전하는 것뿐이었다.

나가며

건륭제의 청과 카스틸리오네의 예수회가 보여준 문화 조화의 양상은 21세기 우리의 세계정치에 친숙한 본보기가 되어준다. 특히 날로 심화되는 중국과 서구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서양루는 중국의 영토에 정갈하게 자리잡은 서구의 문화를 찬란하게 보여준다. 역설적이게도, 그 찬란한 서양루는 21세기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을 잃어갔다. 그것도 18세기에는 다정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유럽의 사람들에 의해서 서양루는 그 모습을 잃어갔다.

서양루의 몰상, 그리고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의 심상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21세기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화해’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륭제 이전의 17세기 중국에서는 기독교와 반기독교 논쟁이 있었으며, 뜨거운 논쟁 이후 18세기의 중국은 새로운 국면의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용은 기독교 자체를 종교로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천하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선교라면 건륭제는 언제든지 불호령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다만, 서양루의 미학은 천자의 마음도 흠친 매력을 품은 채 장춘원의 북단에 당당히 자리잡았다.

서양루를 완공한 건륭제와 카스틸리오네의 건축학은 복잡한 설계도로 짜였다고 설명하긴 어렵다. 오히려 각자의 명확한 목표를 지닌 채, 그 목표를 관철하려는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아떨어진 것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건륭제는 원명원을 잘 확장하여 그의 문화 수집가적 리더십을 활용하고 싶어 했고, 카스틸리오네는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선교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어 했다. 그런 그들 앞에 서양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풍문처럼 돌아다녔고, 그 모습에 반한 건륭제가 운을 띄우자 카스틸리오네는 평소와 같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물론 이 순간이 오기까지 두 사람의 배경에는 예수회의 지역 적응주의적 선교, 건륭제의 예수회 예술 활동 간섭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 요소들의 축적되어 세워진 결과가 동양의 미학에도 걸맞고 서양의 골조를 잘 살린 서양루의 탄생이었다.

본 글에서 나아가, 카스틸리오네와 예수회가 청에 전한 새로운 복음에 대해 중국 사람들의 반응을 어떠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예수회 예술에 관한 중국어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Pagani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선교 지역이 겪은 선교의 결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는 그 선교의 방식이 ‘지역에의 적응’에 있다는 측면에서, 위 연구를 추가한다면 건릉제와 카스틸리오네가 그려 낸 수요한 건축의 진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원명원 웹사이트

<http://www.yuanmingyuanpark.cn/>

김지인. 2016. “서양 예수회 선교사가 청나라 궁정화가가 된 과정에 관한 선교학적 고찰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2), 29-55.

이은상. 2017. “乾隆帝의 長春園 프로젝트에 관한 試論.” <東洋學> 68(-), 29-43.

Barme, Geremie. 1996. *The Garden of Perfect Brightness: A Life in Ruins*.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Cécile and Beurdeley, M. 1971. in Bullock, Michael (trans.), *Giuseppe Castiglione: A Jesuit Painter at the Court of the Chinese Emperor*. Rutland/Tokyo: Charles E. Tuttle Company.
- Clifford, James. 1988. *The Predicament of Culture: Twentieth-Century Ethnography, Literature, and Ar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rossley, Pamela Kyle.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inlay, John R. 2007. "The Qianlong Emperor's Western Vistas: Linear Perspective and Trompe l'Oeil Illusion in the European Palaces of the Yuanming yu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59-193.
- Hui Zou. 2005. *The Jing of Line-Method: A Perspective Garden in the Garden of Round Brightness*. Montreal: McGill University.
- Ishida, M. 1960. *A Biographical Study of Giuseppe Castiglione (Lang Shih-ning): a Jesuit Painter in the Court of Peking under the Ch'ing Dynasty*. (Vol.XIX, 101-103) Tokyo: Memoirs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 Loehr, G. R. 1972. "European Artists at the Chinese Court." *The Westward Influence of the Chinese Arts from the 14th to the 18th Century*. Art & Archeology in Asia (3). London: Percival David Foundation of Chinese Art, Londres. 33-42.

Musillo, Marco. 2006. "Bridging Europe and China: The Professional Life of Giuseppe Castiglione (1688-1766)." University of East Anglia, Ph.D.

_____. 2008. "Reconciling Two Careers: The Jesuit Memoir of Guiseppe Castiglione Lay brother and Qing Imperial Painter." *Eighteenth Century Studies* 42(1). 45-59.

Siu, Victoria. 1988. *Castiglione and the Yuanming Yuan collections*. *Orientalism* 19(11), 72-79.

김혜경. 2012.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역사와 의미》.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양광선. 1664. 不得已. 안경덕·김상근·하경심 역 2013. 《부득이:17세기 중국의반기독교 운동》. 서울: 일조각.

왕룡주. 2015. 《잃어버린 낙원, 원명원》. 김승룡·이정선 역. 한숲.

이은상. 2021. 《이미지 제국: 건륭제의 문화 프로젝트》. 서울: 산지니.

Mark C. Elliott. 2011. 《건륭제 :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양휘웅 역. 천지인.

모택동과 김일성의 한국전쟁 전야

5 월 13~15 일 북·중 회담을 중심으로

모택동 기념관

정하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들어가며

분단 70 년 동안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에는 북한에 깊은 이해관계를 맺은 중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끈질긴 북중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관계를 여러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국가의 대표만남의 시발점은 모택동(Mao Zedong)과 김일성의 5 월 13 일 베이징의 만남부터 시작된다. 이 때부터 시작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현재 2018 년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북중 관계는 다시 한번 밀착 관계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의 지원으로 자력 갱생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그동안 한미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관계의 변화를 항상 주목해왔다. 더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또한

중국의 많은 입김이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를 통한 정책의 성패는 중국의 협력 여부에 달렸다.

한편,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 시기를 기록해왔던 많은 양의 역사적 문헌들이 쏟아지며 냉전 시대를 문헌과 대조하며 그 시절 현장을 되짚어 보는 역사적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써 현재까지도 냉전의 잔재로 남아있는 한국전쟁의 북중소 관계 또한 다시 파헤쳐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에 시발점인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Joseph Stalin)의 만남을 중심으로 그 현장을 되짚어 보는 연구가 한창이지만,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한국적 시각으로 이 만남에 대한 다방면에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까울 수 없다. 필자는 이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김일성을 이해하기에는 북한 다음으로 가장 근접한 한국에서 김일성과 모택동의 만남을 5월 13~15일 회담을 중심으로 이해해보려고 한다.

더하여 중국의 중심인 시진핑은 모택동과 같이 절대권력 반열에 오르는 등 행보에 공통점이 보인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김일성을 벤치마킹하며 유일 지배체제 확립과 정책 측면에서도 경제건설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시진핑과 김정은의 사상적 배경에는 모택동과 김일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현실이 되어버린 한국전쟁 역사의 시작점인 모택동과 김일성의 5월 13~15일 회담을 중심으로 들어가 그들의 역사적 관계를 파헤쳐 보는 것으로 한국전쟁

있어 모택동과 김일성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며 나아가 당시의 만남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회동

1. 한국전쟁을 위한 김일성의 구애

1945년 일본 제국주의 패망과 함께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북쪽으로는 소련, 남쪽으로는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후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체제적 양립과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결국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서로 통일은 강력하게 원하지만 각자 본인의 체제 아래 하나의 한반도가 이뤄지길 주장한다. 당시 북한은 무력을 써서라도 남한을 공산화하길 원했고 무력 침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제에 잔재로서 남아있었던 중공업 지대를 가동하고 김일성을 필두로 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해놓은 상태였다. 또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동맹을 배경으로 두고 있었던 북한은 두려운 것이 없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김일성은 1949년 신년사에서 ‘국토완정’(國土完整)이라는 용어를 무려 13회나 사용하면서 무력 남침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25 전쟁). 이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김일성은 스탈린을 찾아가 지원을 약속 받기를 간곡히 촉구했다.

코민포름(Cominform) 설립 이후, 스탈린은 세계 공산당 체계 내의 정보 교류와 행동 통일을 매우 강조하였다. 티토는 바로 발칸연맹 및 그리스 내전 문제에서 보인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스탈린의 분노를 샀으며, 코민포름에서 축출되었을 뿐 아니라 소련 국가 보안 위원회(KGB)에 의해 피살될 뻔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러시아 당 안에 있는 대량의 전보와 회담 기록에서 보듯 김일성의 일처리는 신중했고, 절대 자기 권한의 한계를 넘지 않으려고 하였다(선즈화 2017, 265).

1949년 2~4월 김일성은 무력 통일을 계획하기 위해 소련 방문을 단행하였다. 이 방문은 북한의 다수 정책결정자와 함께 전쟁에 대한 소련 승인을 얻으려는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 방문 기간 중인 3월 7일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 의사를 전달하였다. 스탈린은 만약 남한에서 먼저 전쟁을 시작한다면 북한의 전쟁 개전에 동의하지만, 북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예브게니 1998, 44). 하지만 북한에 대한 원조는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3월 17일 북한과 소련 양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선즈화 2017, 265).

당시 회담에서 스탈린은 아직 북한의 전력이 압도적이지 않다고 하여, 남침 계획을 만류하고 더 철저한 준비를 독려했다. 당시 국제적 상황으로 보면 소련은 원자탄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남한의 미군 주둔이 북한 원조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의 초기 기류가 흐르는 당시 상황에서 미국과의 계속되는 대척 지점을 만드는 것은 소련으로서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1949년 4월 말에 북한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여 스탈린과의 협의 결과를 알리자, 모택동 역시 잠시 전쟁을 유보할 것을 권하였다.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대내적인 재편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의 안보가 우선순위 될뿐더러 모택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격전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전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전쟁 장기화는 일본을 끌어들이어 남한 ‘정부’를 지원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토르크노프 1998, 118). 그러나 국공내전에 도움을 줬던 북한에 남침 준비를 위한 중국 인민 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은 넘겨주며 전쟁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으로부터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하사 받은 김일성은 내심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문제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 계속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며 남침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를 완료하자 이를 기회라 생각했던 김일성은 다시 한번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 받고자 하였으나 끝내 전면전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하고 계획을 틀어 강원도 삼척지역에 일부를 점령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남한의 빨치산 무장봉기로 말미암은 혁명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현시점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첫째, 남한 내 빨치산에 대한 지원과 해방구의 설치, 반동체제 전복 및 남북통일 과제를 성공리에 해결한다는 목적 아래 남한 인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장봉기를 계획해야 한다. 둘째, 인민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강화해야 한다.”(러시아 연방대통령 문서보관소).

스탈린은 혁명으로 말미암은 공산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개성, 용진 등 38 선 주변 지역에 빈번한 남북 간 전투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러한 소규모 전투가 대규모로 변질 것을 걱정하여 1949 년 10 월 김일성에게 38 선 전투 중지 지령을 내렸다.

2. 스탈린의 남침 허락

이후 국제상황은 공산 진영에 힘을 박차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1949 년 8 월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하고 10 월에는 모택동이 장제스(Chiang Kai-Shek)를 상대로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며 중국을 공산화로 물들이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 미국이 내전에 대한 민주주의 진영의 개입을 포기하고 1950 년 1 월 12 일 미국의 애치슨 선언(Acheson line declaration)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북한의 남침 시에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제정세의 흐름으로는 전쟁의 적기라고 판단하였다. 중국이 아시아의 공산화가 된 이후 1950 년 1 월 17 일 북한 외무상

박헌영은 초대 주중 대사로 임명된 이주연을 환송하기 위해 소규모 오찬 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술기운에 스티코프(Terenti Fomitch Stykov)에게 모스크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남침에 대한 스탈린의 허락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에 스티코프는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지만 한참 동안 답장을 안 하던 스탈린은 대뜸 1 월 30 일경 김일성 동지에 마음을 이해한다며 남침에 대한 일을 위하여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스탈린이 마음을 바꾼 계기는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으며, 한국 전쟁 이후로 많은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탈린의 사회주의 정책은 2 차세계 대전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의해 특정시점에서 완전히 변화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 박명림 교수는 아이작 도이처(Isaac Deutscher)의 설명을 인용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스탈린은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 사회주의를 확장하기 보다는 확보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굳히기 전략을 선호했다. ‘확보된 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socialism in one zone) 전략이라는 것이다. 스탈린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그어진 경계선을 성실하게 지켰다. 그러나 이후 스탈린은 중국 혁명의 승리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이에 도이처는 “두 진영 간의 위험한 대립에서 스탈린은 중국혁명으로부터 거대한 지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세력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던 것이다. 즉, 중국혁명을 계기로 하여 스탈린은 단기적 평화공존과 영향력의 범위의 상호인정, 곧 ‘일지역사회주의’에서 일탈하였던 것이다.”

또한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통한 전략적 이익은 적었다고 보며, 모택동에 대한 그의 잠재적 경쟁관계의 관점에서 행동했을 것이다. 그는 중국혁명의 가능성을 오판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주었던 정치적 소심성의 인상을 불식하고 그 자신이 모택동처럼 혁명에 대해 담대한 전략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심초사 했을지도 모른다는 심적인 요소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박명림 1996, 193).

션즈화(Shea Zhihua)는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참전하기로 결정한 조건으로 중국과의 관계 변화와 미국의 정책적 반응에 대한 고려라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소련의 대외정책 변화 과정의 일부였고 스탈린이 소련 대외정책의 변화를 촉발시킨 진짜 요인으로 1947년 5월 프랑스 공산당과 이태리 공산당당의 연립정부에서의 퇴출과 1947년 6월 미국이 공개한 유럽에 대한 지원방안 즉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유럽의 공산당 퇴출은 소련이 전후 집행한 각국 공산당의 연립정부 참여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줬으며 마셜 플랜은 소련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정책이었다. 이에 소련은 전면적으로 대외정책 변경과 공산당의 관계 강화를 진전시키게 되고 이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아시아로 번져 나갔으며 대결위주의 정책으로 전화되어 한국전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션즈화 2010, 52). 박명림 교수와는 대조적인 부분은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결정한 동기 중 하나로 한반도가 소련의 극동정책에 있어 전략적 이익이 있었다고 보는 부분이다.

스탈린에게 중소동맹 체결은 양날의 검으로서 아시아에서 소련의 정치력을 강화한 반면 스탈린 자신이 1945 년 장제스(Chiang Kai-shek) 수중에서 획득한 대부분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반환해야 했다. 따라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소련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스탈린은 얄타협정과 이전에 밝힌 극동지역에서의 전략적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 영토 외에 다른 지역을 차지해야만 했으며 무엇보다 부동항의 획득이 절실하였다.

스탈린의 조선문제에 대해 전략적 지위를 위한 안전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는 것은 1945 년 6 월 29 일 소련 외교부 제 2 극동사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이 조선을 경유해 아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을 반대한 러시아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이다”,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조선이 미래에 소련 침략의 전진기지로 전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런 침략이 일본으로부터든지 아니면 극동지역에서 소련에 압력을 가하는 다른 나라의 어떤 시도로부터든지 모두 마찬가지다.” 이는 특히 한반도가 아시아 대륙으로의 확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점을 아주 뚜렷하게 설명해주며, 소련에게는 중요한 영토임을 반증해주고 있다(선즈화 2010, 200). 따라서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해 스탈린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장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바로 스탈린이 조선문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 출발점이 되었다.

러시아 학자인 토르크노프는(Anatoly Vasilyevich Torkunov) 중국혁명의 승리를 이유로 꼽고 있다. 스탈린은 미국이 대만에 있는 장제스 운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조선에서의 충돌에 말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당시 회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추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에 아시아 혁명가들의 힘을 과시했고, 아시아의 반동 세력들과 미국 및 서유럽의 연계가 약화하였음을 드러냈다. 이에 중국과 소련의 동맹조약체결로 미국은 아시아 공산주의자들을 자극할 처지가 아니었고 소련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미국은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회담에서 비로소 중국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선제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토르크노프 1998, 113).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바로 소련이 미국의 핵 독점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미국이 핵을 사용해 소련을 위협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저자의 부족한 견해로 스탈린의 마음을 움직인 정확한 이유를 유추해 내기에는 문헌의 접근성과 적은 연구 경험에 의하여 능력범주를 넘어선 주제이기에 확답을 내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국사회주의의 제한된 확장정책을 고수하던 소련의 정책이 선즈화가 언급했던 2 차세계대전 이후 나토설립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의 사회주의 공격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소련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본능적 정책 변화와 더불어 중국의 국공내전 승리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 소련의 핵개발 성공, 미국의 에치슨 선언으로 인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등 복합적인 국제정세의 변화가 합쳐져 한반도에서의 영토적 팽창까지 영향을 주었다.

1950년 5월 13~15일 그 현장 속으로

1. 모택동과 김일성의 밀실 데이트

김일성이 모택동과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 대표로서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상 1950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 가졌었던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결국 스탈린의 숙제를 풀어내고 남침에 대한 모택동의 지지를 받게 되며, 소련과 중국을 뒤에 얹은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원을 약속받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모택동은 당시 김일성과 스탈린과의 개전 결심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고 국공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한국전쟁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이 동맹을 맺은 이상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으며 모택동 또한 중국혁명이 달성되는 대로 군대를 포함한 여러 수단으로 북한을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밝혔다(박명림 1996, 96). 이는 김일성과 스탈린이 읽는 국제 정세가 앞서 밝혔던 여러

이유에 의하여 서로에 대한 상호이해가 통했고 남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스탈린은 김일성과의 회담을 마치고, 그에게 중국을 방문해 모택동과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도록 지시하였다. 스탈린이 남침에 앞서 중국의 허락을 받으라는 이유는 스탈린과 김일성 4 월 10 일 회담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스탈린은 만일 미국이 참전하여 북한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분명 고려하였다. 김일성이 남한을 점령할 못 하는 것보다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소련의 극동지역을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에 중국으로 방어하기 위해 모택동에 허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 없었다. 이는 모든 요구가 모스크바에서 충족되었고, 필요한 것은 모스크바에서 지원될 것이기 때문이었다(토르크노프 1998, 128). 하지만 스탈린의 요청대로 김일성은 박헌영과 함께 5 월 13 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모택동과 회담하였다.

5 월 13 일 김일성 일행은 베이징에 도착하여 당일부터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련 대사 바실리비치 로신(Nikolai Vasilievich Rosin)이 모스크바에 보낸 보고에 따르면, 회담의 초반 모택동은 김일성이 전달한 스탈린의 의견에 의문을 품었다. 13 일 당일 밤 23 시 30 분, 주은래(Zhou Enlai)는 소련 대사관으로 와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스탈린에게 즉시 보고 해주도록 요구하였다. “조선 동지들이 스탈린 동지의 다음과 같은 지시를 통지하였다. ‘현재의 형세는 과거와

달라, 북한은 행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중국 동지와 모택동 본인과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모택동 동지는 스탈린 동지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기를 희망한다.”(토르크노프 1998, 293).

이에 스탈린의 답장이다.

“조선 동지와의 회담 중에 스탈린 동지와 그 친구들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선의 통일 실현에 관한 건의에 동의하였다. 동시에 보충할 점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중국과 조선의 동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며, 만약 중국 동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세부 회담 내용은, 조선 동지가 귀하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토르크노프 1998, 293).

최종적으로 “중국 동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언급을 통해 결국 스탈린은 남침에 있어 중국에게 결정을 양도하며 자기 자신의 철저한 은폐를 위해 중국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이었다. 즉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동의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었으면서도 양도를 통해 이선으로 물러섬으로써 모택동에게 역할을 부여를 하고 스탈린은 ‘숨은 보스’로 소련의 참여와 행동은 숨기고 중국을 이용하여 한반도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의도가 다분하였다.

2. 모택동의 속마음

스탈린은 5 월 3 일 모택동에게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과 협의사항에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전보를 보내게 된다. “조선 동지가 우리에게 왔다. 그들과의 회담결과는 가까운 날짜 안에 귀하에게 통보될 것이다.”(러시아 연방대통령 문서보관소).

그러나 수일이 지나도 통보는 오지 않았다. 이후 5 월 12 일 김일성은 모택동을 만나러 비밀리에 베이징에 입성하게 되었고 회담이 진행되었다. 당시 모택동은 스탈린의 남침허락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스탈린의 허락을 받아낸 김일성은 모택동을 만나 남침 허락에 관한 내용을 전하게 된다.

모택동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에 앞서 대만과의 통일을 원했었다. 그러나 그는 스탈린의 결정을 반대할 처지가 아녔기에, 김일성을 지원하기로 동의하였다. 모택동은 경제개혁이라든지 중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련의 지원이 경제지원이라든지 군사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미 소련과 북한이 사전에 논의하여 합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회신을 받은 후 모택동은 모스크바의 견해에 찬성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모택동은 불만을 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선즈화 2017, 136).

5 월 15 일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모택동은 원래 자신은 대만을 먼저 공격하여 점령한 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며 그때에는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공격할 것을 이미 결정하였고, 이 또한 중북 공동의 과업이므로 동의한다고 말하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준비를 약속하였다. 모택동은 소련의 직접 참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로 올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일리아조바 2014). 이에 모택동은 만약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은 분대를 보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군대 일부를 북한 국경 배치 필요 여부와 무기와 탄약 제공의 필요 여부를 물었다. 김일성은 이 제안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지만 사절하였다. 모택동의 결정에 있어서 셴즈화는 모택동은 공산주의 진영에 큰형 격인 스탈린의 결정에 따르며 자신의 입지를 만들 목적과 국공내전 당시 북한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에게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 공산주의화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택동은 시큰둥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먼저 한반도 전쟁을 지지함으로 대만의 통일을 포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더하여 아시아를 자신의 수중으로 넣기 위해서는 북한을 끌어들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여 지원을 약속했지만 김일성이 자신보다 스탈린의 지원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스탈린이 로신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모택동에게 북한에서 중국인 대표가 없다고 불평한다고 전해주세요. 모택동이 한반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표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러시아 연방대통령 문서보관소).

회담 이후에도 김일성은 남침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고 6 월 25 일, 모택동은 오후가 되어서야 프랑스 통신사를 통해 북한군의 남침 소식을 들었다. 김일성의 정식 통보는 사흘 후, 그것도 베이징 주재 북한 무관을 통해서였다. 모택동은 협의 없이 전쟁을 진행한 북한에 매우 화가 났고 통역인 사철에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인데, 전쟁 발발 문제도 우리와 논의도 없이 겨우 지금에 와서 통보”하였다고 말하였다(박명립 1996). 중공 총서기였던 후야오방(Hu yaobang)은 당시 모택동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를 회고록에 남겼다. “주석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고 면도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염을 깎았다.”(김명호 2011).

3. 김일성의 속마음

1950 년 3 월 30 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미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공격은 3 일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남침하게 되면 남한 내 20 만 남로당원이 주도한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Weathersby 1993, 433). 스탈린 또한 이에 동의하며, 중국은 소련과 중소 우호동맹을 체결하여서 아시아에서 미국이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고, 소련의 핵 보유가 미국을 억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스탈린은 회담에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도 잊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김일성은 모택동은 중국혁명이 완수된 후에 북한을 도울 수 있고 필요하면 병력도 제공할 것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였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 자신의

힘에 의지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소련은 서쪽 방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다시 한 번 모택동과 상의하라고 촉구하고 특히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는 모험을 하면 소련은 직접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반복하였다(예브게니 1998, 52). 그러나 김일성은 이 회담을 통해 소련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더라도 한반도 전쟁에서 허락을 받았을 뿐더러 지원의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회담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5월 12일 김일성의 베이징을 비밀리 방문했을 당시, 그의 목적은 중국에 자신들이 무력으로 조국을 통일시키겠다는 의사와 이 문제에 대한 모스크바 회담의 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일성은 모택동을 만나러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는 스탈린에게 “자신의 요구가 이미 모스크바에서 충분히 달성되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더이상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러시아 연방 외교 정책 기록 보관소). 이를 통해 당시 김일성이 한반도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자신감이 넘쳤으며 필자는 이 배경으로는 모스크바의 허락과 함께 국공내전에 미국의 개입철회와 애치슨 선언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배제시킨 부분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택동의 국공내전 승리를 통해 국제적 분위기가 적어도 아시아 내에서는 공산주의 진영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남침을 시작하면 남한에 있는 수십만 공산주의자들의 도움으로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김일성의 오관이었으며 대만을 포기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땅이 마지노선이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회담이 끝났을 때 즉시 모택동 앞에서, 회담에서 모든 의제에 관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소련 대사에게 선언하였다(선즈화 2010). 득의양양한 김일성의 모습에서 모택동이 처했을 난처한 처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불만을 느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일성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혁명의 승리를 위해 큰 공헌을 하였지만, 모택동은 승리를 얻은 뒤 한반도의 통일과 해방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사실 모택동은 북한이 무력으로 국가를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계획하는 한반도 무력통일의 공산화는 중국혁명의 뒤를 잇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택동의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통일 대업을 완성한 후에 다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성격이 급한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었고, 스탈린이 1950년 1월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수정했을 때에는 아시아 혁명의 주도권이 중국에 떠맡겨 졌다.

모택동의 이러한 입장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중국의 불신과 불만을 만들어 냈고, 귀국 후 더 이상 모택동에게 전쟁 준비나 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협의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 고위 군수 관의 회고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 소련의 무기들은 중국 철도를 통하여 북한으로 운반되지 않고 모두 바다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은 한반도 전쟁 준비 작업을 중국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선즈화 2017, 295).

이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고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모택동은 김일성이 기반이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미군이 서쪽으로 상륙하여 북한군의 허리가 잘릴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공격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라고 건의했다. 김일성은 모택동의 말을 듣는 듯했지만 결국은 무시했다. 북한군이 계속하여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자 모택동도 서서히 참전 준비에 착수했다(김명호 2011).

맺음말

한국전쟁을 앞두고 스탈린과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의 삼중 만남은 그들로 하여금 개전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김일성의 1950년 3, 4월 모스크바 방문과 1950년 5월 13~15일 베이징 방문은 전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열쇠였던 것이다. 역사의 만약은 없다지만, 당시 모택동의 허락이 없었다면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30분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보고서의 목적으로 돌아와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회담의 의의와 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 회담을 통해 소련은 중국에게 한반도 전쟁에 대한 책임전가를 함과 동시에 전략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우려한, 신중하기 이를 데 없는 스탈린의 양보적 책임 회피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성공에 있어서 아시아의 공산화를 중국에게 맡긴 것이다. 즉, 아시아 내에 공산주의 진영의 세력확산이라는 임무를 중국에 맡김으로 소련입장에서는 국제적 무대에서의 이념적 양립의 큰 틀을 주도하는 동시에 유럽과 다른 지역의 공산화에 조금 더 힘을 쏟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세력확산 분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두 번째로 김일성에게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모택동이 이주연에게 한국의 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진술이다(박명림 1996, 154). 이는 이주연 김일성을 거쳐 모스크바에 보고된 이중 전언이다. 모택동이 미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므로, 김일성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의 전쟁 불참에 가능성에 더욱 힘을 실어줬을 것이고 이는 곧바로 전쟁의 실행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미국의 불개입의견을 제기했으나 모택동은 “우리는 그들의 참모장이 아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중국에서 물러났으며 한국에서도 이같이 신중한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박명림 1996, 158).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오판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로는 김일성은 전쟁에 앞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간 상호협력과 지원 약속의 숙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낸 시점이다. 회담 당시 모택동과 주은래를 비롯한 중국지도부는 김일성과의 회의를 중단하고 주중 소련대사 로신을 찾아 즉각 스탈린에 전보를 쳐서 김일성의 발언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로신은 5월 13일 즉각 스탈린에게 해명 전보를 보내길 바랐다. 이에 스탈린은 김일성과의 회담 결정 내용을 확인해 줌으로써 북한의 무력 침입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최종 확인을 받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이다. 로신이 이날 모스크바에 타전한 전문으로는 당시 모택동은 신속한 군사적 방법으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는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반도 공산화를 중국혁명의 연속성으로 보았다. 한국 전쟁에서 모택동이 당시 회담내용을 보면 중국군의 추가배치나 무기와 탄약의 공급이 필요한지를 문의하자 김일성은 이에 감사를 표시하였으나 제의는 사양했다. 물론 김일성에 입장에 스탈린에게 모든 지원을 받은 터라 사양했지만 이를 통해 모택동이 한국전쟁에 적극적 열의를 냈던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미군이 참전한다면 중국은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돕겠다.”고 하며, “소련은 미국 측과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전투 행위에 참가하기가 불편하지만, 중국은 그러한 의무가 없으므로 북한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하였다(박명림 1996, 158). 이미 스탈린과 김일성의 전쟁 타결은 모택동 처지에서 불만이 있었지만,

전쟁을 진행하기로 한 이상 한반도 전쟁을 간결하며 빠르게 진행하여 완벽한 공산국을 만들기를 내심 바랐던 모택동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모택동이 김일성과 스탈린의 합의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선즈화를 포함한 중국의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5월 13일에서 15일 회담에서 이미 모택동의 주장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이 회담으로 대만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시발점이 되었다. 회담에서 중국의 대만해방 구상은 김일성의 한국전쟁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이상 모든 계획이 틀어졌고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대만의 장제스로 하여금 내전의 패배로 지친 내부 상황을 돌볼 좋은 기회로 작용 되었고 현재까지도 중국은 대만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하는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당시 회담에서 모택동의 한반도 전쟁 지지라는 결정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 개혁성향 잡지 '염황춘추'(炎黄春秋) 2013년 제 12호에 따르면 마오는 1956년 9월 24일 베이징을 방문한 아나스타스 이바노비치 미코얀(Anastas Ivanovich Mikoyan) 소련 부수상과 회동에서 “조선전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스탈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은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연합뉴스 2015)라고 말하며 한국 전쟁을 막지 못한 중국의 책임에 대해 언급한다. 이 때문에 모택동의 잘못된 전쟁의 지원으로 전쟁 초기에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했던 혼란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생일대에

숙원이 되어 버리고만 대만과의 하나의 중국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의 끈질긴 구애와 무력을 동원하여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려는 의지에서 구상하게 되었으며, 이를 스탈린에게 제의하여 동의를 얻고 중국 모택동에 허락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렀다. 이 사실이 필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린 결론이다. 당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일성은 무력 통일을 주장하며 통일에 지나치게 급진주의적이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야욕 때문에 한반도를 다시 한번 전쟁이라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고 당시 국제적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오판이었다. 이는 스탈린과 모택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탈린은 한반도 전쟁을 지휘를 하되 겉으로는 빠지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김일성의 남침을 허락해준 장본인이다. 또한, 중국에 아시아의 공산화에 대한 대업을 맡김으로 한반도 전쟁에 모택동에 허락을 중요히 여김으로 모택동에 결정을 넘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김일성이 모택동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모택동의 선택은 중국의 내전승리로 말미암은 낙관주의적 분위기와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 그리고 혁명의 연장선으로써 한반도 전쟁을 진행하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전쟁 최종합의 결정 회담인 김일성과 모택동의 만남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아쉽게도 본 보고서를 통해 5 월 13 일에서 15 일에 회담 당사자들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보려 하였지만, 회담에

기록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아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 내용과 소련의 비밀문서들로 최대한 풀어보고자 하였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나아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회담 기록들이 공개된다면 참고하여 다시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문서들만으로 들여다보았던 이 회담은 한국전쟁 발발에 주요 주인공들의 노력으로 회담은 구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한반도 전쟁의 최종적 합의점이라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James G. Hershberg. 1993.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 James G. Hershberg. 1994.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4*.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 James G. Hershberg. 1995.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5*.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ashington, D.C.
- Weathersby. 1993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 Published By: Brill.

Архи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 보관소).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외교 정책 기록 보관소).

션즈화. 2000.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3 권 1 호, 11-91.

양귀송. 2000. “중국의 조선 출병 시말.” <현대북한연구> 3 권 1 호, 93-148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서울: 나남.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서울: 나남

바자노프 예프게니, 바자노바 나탈리아. 1998.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전쟁의 전말》. 김광린 역. 서울: 열림.

션즈화. 2010.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최만원 역. 서울: 선인.

션즈화. 2017. 《최후의 천조 (天朝) 모택동·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김동길, 김민철, 김규범 역. 서울: 선인.

토르쿠노프. 1998.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역. 서울: 에디터.

일리아조발 금발. 2014. “한국전쟁에서 소련공군의 비밀 참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태균. 2011. “6.25 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한 재고찰 -오인, 오식의 문제를 통한 접근.” <군사연구> 제 130 호.

김명호. 2011. “사진과 함께하는 김명호의 중국 근현대”

<중앙SUNDAY> 마오쩌둥, 외신 통해 북한 남침 사실 알아

2011.04.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5290302> (검색일:
2022.05.29).

연합뉴스. 6.25 65 주년 모택동 “전쟁 잘못됐다” 참전후회 2015.06.02

<https://www.yna.co.kr/view/AKR20150622001500083>

(검색일: 2022.06.14).

President Xi Jinping's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Cross-Strait Relations

Museum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Jongeun Seong

The University of Sydney

1. Introduction

Prior to the emergence of President Xi Jinping's so-called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新型国际关系)," China's foreign policies were based upon three main principles(Chung 2015). The first principle was called "不当头," meaning that China will not pursue leadership both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second principle was "不称霸," meaning China will not seek hegemony. Finally, the third principle was "不搞扩张," which mea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not implement territorial expansion. The three principles of China's foreign relations mentioned above were introduced by the third paramount leader of China, Deng Xiaoping, under the concept of "韬光养晦," which

describes China's "era of strategic modesty"(Chung 2015). However, since 2012, Deng Xiaoping's first principle, "不当头," started to fade away (Chung, 2015) due to President Xi Jinping's different approaches to Chinese foreign policy called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2013, during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NPC), the then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delivered a speech that clearly showed the main objectives of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instance, Xi Jinping mentioned one of the primary goals of the PRC such as, "实现全面建成小康社会"(Wilson Center 2013) in his speech. Xi Jinping meant that the PRC government's goal is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so-called "Xiaokang society"(小康社会) by 2021, which describes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for the Chinese people(Cho 2019). Moreover, Xi Jinping especially emphasized "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during his speech, which is the "Chinese Dream of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people"(Goldstein 2020).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essay will provide thorough scrutiny of President Xi Jinping's two main principles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1) Periphery Diplomacy of the New Era(新时代周边外交) and 2)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新型大国关系). Second, this essay will provide detailed analyses of how the principles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shaped the PRC's course of ac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Finally, the last

part of this essay will discuss how the principles of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explicitly applied for cross-strait relations since Xi Jinping's inauguration as the fifth General Secretary of the CCP in 2012.

2. President Xi Jinping's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新型国际关系): a Miscalculation? Or a Success?

Since Xi Jinping became the fifth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12 and the seventh President of China in 2013, he has shaped not only China's domestic politics but also China's foreign policies through his strong leadership. President Xi Jinping has been well-aware of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circumstances, which is why he came up with the principles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during the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CP in 2017(Goldstein 2020). However, China's implementation of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the 1) Periphery Diplomacy of the New Era and the 2)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collided with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led "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Notwithstanding the PRC's emphasis on "peaceful development"(和平发展) that outwardly refrains potential conflicts with its peripheral states, the United States started to actively suppress the PRC's attempts to gain global hegemony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Such 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PRC and the United States caused by the emergence of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explained by Graham Allison's "Thucydides Trap." The presumption of the "Thucydides Trap" is that when the hegemon or the "ruling power" that led the international order weakens, the war between the "rising power" and the "ruling power" is inevitable(Allison 2017). President Xi Jinping himself indeed acknowledged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Thucydides Trap in the world."(Allison 2017); however, President Xi Jinping added that "major countries might create such traps...if they make the mistakes of strategic miscalculation."(Allison 2017). Thu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China's implementation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a "strategic miscalculation," understanding the Periphery Diplomacy of the New Era and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s crucial.

2.1 Scrutiny of the Periphery Diplomacy of the New Era(新时代周边外交)

In order to alleviate territorial and economic disputes with neighboring states, the PRC came up with the so-called “Periphery Diplomacy of the New Era”(新时代周边外交) a decade ago. The word “periphery” first appeared in former Chinese President Hu Jintao’s official report at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CP(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 in 2012. For instance, President Hu Jintao remarked, “...区域次区域开放合作, 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 推动同周边国家互联互通。”(Central People’s Government 2012), which promoted PRC’s “connectivity” with its neighboring states. However, President Hu Jintao did not specify the goals of China’s Periphery Diplomacy in his report, which is why the examination of President Xi Jinping’s speech at the 2013 Peripheral Diplomacy Work Conference is also necessary.

President Xi Jinping remarked in his speech, “...我国周边外交的战略目标, 就是服从和服务于实现“两个一百年”奋斗目标、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 ...”(People’s Daily 2013). It means that Xi Jinping had set up the goals of Periphery Diplomacy under the “two centenaries” timeframe and aimed to achieve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President Xi Jinping also explicitly stated that “巩固睦邻友好, 深化互利合作, ...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 努力使周边同我国政治关系更加友好...”(People’s Daily 2013), which is to pursue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states,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protection of national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In addition, Michael Swaine's analyses are also worthwhile in understanding China's periphery diplomacy. Swaine defined the goals of China's periphery diplomacy in three main points: 1) enhance political goodwill; 2) deepe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3) increase China's cultural influence(Swaine 2014). To be specific, based on the second goal of China's periphery diplomacy, it is clear that the PRC has been endeavoring to strengthen its regional economic influence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under two main slogans. The first slogan is called, "Community of a Shared Future for Mankind" (人类命运共同体) and the second slogan is called, "One Road, One Belt"(一带一路). Through the promulgation of such slogans, PRC has been propagandizing its economic influence for its periphery states as the "mankind's shared future." The PRC's initiative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oil pipelines and signing of energy agreements(Swaine 2014) with its periphery states in Asia and beyond, are appropriate examples of "deep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which has its headquarters in Beijing, and the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CRA) - BRICS(IMF competitive) are also appropriate examples of China's regional economic influence(Gu 2017).

Albeit the fact that President Xi Jinping continuously emphasized: "friendly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states" and

“peaceful development”(和平发展) in several speeches,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PRC will never go to war with its opponents when it comes to safeguarding its “core interests”(核心利益). Henc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of periphery diplomacy, it is possible to speculate that China will primarily strive to consolidate its regional hegemony through multiple channels and eventually challenge the United States-led security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Swaine 2014). Although there are a plethora of research reports that simply conclude China’s ultimate goals of periphery diplomacy to gaining regional hegemony, however, the actual intentions of the PRC still need further scrutiny of the academia.

2.2 Scrutiny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新型大国关系)

Unlike the former presidents of China, Jiang Zemin, and Hu Jintao, who focused more on China’s domestic politics, President Xi Jinpi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reign policy issues during his term(Shambaugh 2020). From Deng Xiaoping’s foreign policy principle that does not pursue China’s global leadership, “不当头,” Xi Jinping changed the direction of China’s diplomacy based on the so-called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中国特色大国外交). In the past, under the slogan of

“peaceful development,”(和平发展) China used to pursue peaceful relations with other states for its economy; however, China started to expand its global influence under Xi Jinping's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Shambaugh 2020).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Xi Jinping promoted idealistic and moral values such as the “Community of a Shared Future for Mankind”(人类命运共同体).

The incumbent Chine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ang Yi, delivered a speech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that stated the goals of China's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Wang Yi remarked, “对第一个问题，习近平主席已经用三句话作了非常精辟的概括，第一句是“不冲突，不对抗”，第二句是“相互尊重”，第三句是“合作共赢。”(People's Daily 2013). The first goal, “不冲突，不对抗,” means that China will prevent any potential conflicts or confront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The second goal, “相互尊重,” means mutual respect between states, and the last goal, “合作共赢,” is the so-called win-win cooperation. Although China has been pursuing win-win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under the second goal of “mutual respect,” China maintained its assertive stance when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raise objections regarding China's internal affairs.

For example, Yang Jiechi, the Director of the Central Foreign Affairs Commission General Office, remarked,

“世界上绝大部分国家并不承认美国的价值就是国际价值，不承认美国说的就是国际舆论...”(Xinhua News Agency 2021), which means that the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re not necessarily equivalent to the international values,” thus implying that China has a right to implement its values. Yang Jiechi also added, “美国有美国式的民主，中国有中国式的民主.”(Xinhua News Agency 2021), mean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its own style of democracy, while China also has its own style of democracy. At the same time, Yang Jiechi continuously emphasized that the PRC supports peaceful development, “中国坚持走和平发展道路,” which shows that the goal of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is not to provoke the ruling power, the United States.

Until the size of China’s gross domestic product(GDP) becomes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by 2049, which is the year of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RC’s establishment of New China(新中国), it is anticipated that China will prevent a direct military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no one can assure us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go to war within the next few decades. If the PRC achieves the so-called “Xiaokang society”(小康社会) by 2049, it is possible that Graham Allison’s “Thucydides Trap” might become a reality. It is true that there are multiple hurdles for China to become the

new "ruling power," which is why further research on China's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necessary.

3. Analyses of How the Principles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haped PRC's Course of Actions

3.1 PRC's Application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Cross-Strait Relations Since 2012

PRC's so-called "core interests"(核心利益) are classified under three main aspects: (i) fundamental system and state security; (ii) stat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iii) st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Zhou 2019). Since the Taiwan Strait is claimed as a territory of the PRC under the "One-China principle"(一个中国原则), cross-strait relations are classified as the PRC's protection of its (i) fundamental system and state security(Zhou 2019). Since the issues related to Taiwan are perceived a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e PRC has been maintaining its assertive stance when a foreign country such as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intervene in cross-strait relations. The 2021 U.S.-China summit in Anchorage, Alaska between Antony Blinken, the U.S. Secretary of State and Yang Jiechi, the Director of the Central Foreign Affairs Commission General Office, is an appropriate example that shows the PRC's

application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or cross-strait relations.

Yang Jiechi remarked, “中方主张和平、发展、公平、正义、民主、自由的全人类共同价值，主张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Xinhua News Agency 2021), which means that China advocates peace, development, fairness, democracy, and the common value of freedom for all mankind. Most importantly, Yang Jiechi showed PRC’s assertive stance by clearly stating, “台湾、香港、新疆都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部分，中方坚决反对美方干涉中国内政行径，并将继续作出坚定回应。”(Xinhua News Agency 2021) that the issues regarding the Taiwan strait are internal affairs, therefore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 right to intervene in China’s internal affairs.

In 2022, the Chinese Defense Minister, Wei Fenghe, remarked at the Shangri-La Dialogue host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如果有人胆敢把台湾分裂出去，中国军队必将“不惜一战、不惜代价。”(Xinhua News Agency 2022), meaning that China will not hesitate to go to war with any country that tries to separate Taiwan and the PRC. As shown in Director Yang Jiechi and Minister Wei Fenghe’s speeches, the PRC has maintained its assertive stance when it comes to safeguarding its “core interests”(核心利益). Even if China tries to avoid any potential military conflicts with other states, the PRC publicly

announced that it would immediately take action if another state tried to break the One-China principle. When it comes to analyzing cross-strait issues, there might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principles of the Periphery Diplomacy of the New Era and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contradict each other. The Periphery Diplomacy of the New Era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China's national sovereignty, whereas the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pursues peaceful relations with other states. However, China will still exercise its rights to safeguard the One-China principl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y do not provoke the United States.

Another reason behind the PRC's emphasis on keeping Taiwan under their control is due to their third principle of "core interests," (iii) st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society(Zhou 2019). In Taiwan, there is the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TSMC), which is one of the world's foremost semiconductor companies. Suppose the PRC successfully keeps Taiwan under the CCP's control. In that case, China will be able to make the TSMC a state-owned enterprise, which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China's core interests. If China nationalizes the TSMC, many countries worldwide will be more dependent on China in terms of semiconductor technology. TSMC's semiconductor business is lucrative and helpful for the PRC's technological advancement, thus strengthening China's soft power in the long term.

3.2 Innermost Intentions of President Xi Jinping's Implementation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Achievement of the Chinese Dream

Despite the outward stance announced by the political leaders of China, what are Xi Jinping's innermost intentions for implementing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China has been the hegemon for centuries, maintaining the so-called "Zongfan relations(宗藩关系)" or the tributary system with its periphery states under the traditional cultural concept of "all under heaven"(天下). However, starting from the Treaty of Nanjing, where the Qing Dynasty dropped to its knees to the Western powers, China's pride in its status as a regional hegemon utterly shattered into pieces. In order to restore the traditional cultural concept of "all under heaven"(天下), Xi Jinping's innermost intention is to implement the principles of the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o enjoy its hegemonic status both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Hence, Xi Jinping's goal to achieve the "Chinese Dream of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people"(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is the restoration of "all under heaven" because he desperately desires China's glory in the past.

4. Conclusion

The question of whether President Xi Jinping's principles of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e strategic miscalculations requires further scrutiny. However, from a future-oriented 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is likely that the PRC will successfully become the regional hegemon, notwithstanding the United States' effort to maintain its "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One reason is that the unipolarity system l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91 has been weakened.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China's purchasing power parity(PPP) already surpassed the PPP of the United States in 2013. Moreover, by 2049,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PRC maintains its 6% annual economic growth rate, China is expected to succeed in achieving the so-called "Xiaokang society." However, to actualize Xi Jinping's Chinese Dream of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people, several hurdles need to be overcome because China has not proven itself its qualifications to become the so-called "responsible stakeholder." In order to become the global hegemon or the responsible stakeholder, China must prov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hina's "Community of a Shared Future for Mankind"(人类命运共同体) is more beneficial than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Bibliography

- Allison, Graham.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 Brunswick, Victoria: Scribe Publications. Accessed April 17, 2022.
- Boao Forum for Asia. 2015. “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博鳌亚洲论坛2015年年会开幕大会上的主旨演讲（全文）。”
<https://www.boaoforum.org/ljnh/cn/hydtm/19352.htm>.
- Beckley, Michael. 2022. “China Keeps Inching Closer To Taiwan.”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0/10/19/china-keeps-inching-closer-to-taiwan/>.
- Central People’s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2. “胡锦涛在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http://www.gov.cn/ldhd/2012-11/17/content_2268826.htm
-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2022. “新时代中国周边外交的理论与创新与实践。”
<https://www.ciis.org.cn/gjwtyj/dqqk/202203/P020220329548647132867.pdf>
- Chung, Jaeho. 2015. “Assessing China’s Pow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Accessed June 17, 2022.

Goldstein, Avery. 2020. "China's Grand Strategy under Xi Jinping: Reassurance, Reform, and Resistance."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Gu, Bin. 2017. "Chinese Multilateralism in the AIIB." Ox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People's Daily Online. 2013. "习近平在周边外交工作座谈会上发表重要讲话强调：为我国发展争取良好周边环境."
<http://cpc.people.com.cn/n/2013/1026/c64094-23333683.html>

People's Daily Online. 2013.

"王毅：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可以也应先从亚太开始。”

<http://world.people.com.cn/n/2013/0922/c1002-22991964.html>

Swaine, Michael. D. 2014.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Periphery Diplomacy." Stanford, California: China Leadership Monitor.

Swaine, Michael. D. 2015. "Xi Jinping's Address to the Central Conference on Work Relating to Foreign Affairs: Assessing and Advancing Major 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Stanford, California: China Leadership Monitor.

Shambaugh, David. 2020. "China and th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Xinhua News Agency. 2021. “杨洁篪在中美高层战略对话开场白中阐明中方有关立场.” http://www.xinhuanet.com/world/2021-03/19/c_1127230729.htm

Xinhua News Agency. 2022.

“国台办：“台独”若触碰红线，我们必将采取断然措施予以坚决粉碎.” http://www.news.cn/tw/2022-06/15/c_1128743936.htm

Zhou, Jinghao. 2019. “China’s Core Interests and Dilemma in Foreign Policy Practice.” Incheon: Inh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Accessed June 17, 2022.

https://sydney.primo.exlibrisgroup.com/permalink/61USYD_I NST/2rsddf/cdi_nrf_kci_oai_kci_go_kr_ARTI_6998588

